
**Paris21회의, 한-Eurostat통계기관장
회의와 MOU 체결, 제7차 OECD통계위원회 및
제58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참가결과 보고**

2010. 7.

목 차

I	개 요
1.	회의 명
2.	참가목적
3.	대표단구성
4.	출장지역
5.	출장기간
6.	대표단 주요활동
II.	회의의제 및 일정
1.	Paris21회의
2.	한-Eurostat통계기관장 회의(MOU체결)
3.	제 7차 OECD통계위원회
4.	제58차 UNECE통계기관장회의
III.	주요활동
1.	국제통계 협력 활동
2.	관찰 및 평가
3.	회의별 주요 내용
IV.	주요의제요약 및 검토의견
1.	Paris21회의
2.	한-Eurostat통계기관장 회의(MOU체결)
3.	제 7차 OECD통계위원회
4.	제58차 UNECE통계기관장회의
V.	기타
1.	기념품
2.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명단
3.	약도
4.	주요 연락처 및 명함

I. 개요

1. 회의명

- PARIS21 집행위원회 및 제1차 이사회 회의
- 유럽연합통계처(Eurostat)와 MOU 체결
- 제7차 OECD 통계위원회 회의
(7th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 제58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58th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2. 참가목적

- 국제 통계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의 정보와 이슈를 파악
-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통계기관장들과 교류
-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 활동 등

3. 대표단 구성

- 단장: 이인실 통계청장
- 단원: 통계청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김신호 복지통계과장, 박상진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한국은행 최덕재 경제통계국 팀장, 주오이시디대표부 서원석 주재관

4. 출장지역 : 파리 OECD 본부 컨퍼런스 센터

- 단, 유럽연합통계처(Eurostat)와 MOU 체결은 룩셈브르크 Eurostat본부

5. 출장기간 : 2010. 6. 1(화) ~ 6. 12(토)

- PARIS21 집행위원회 및 제1차 이사회 회의('10. 6. 2-4)
 - 출장자: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박상진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 유럽연합통계처(Eurostat)와 MOU 체결('10. 6. 4)
 - 출장자: 이인실 청장,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김신호 복지통계과장
- 제7차 OECD 통계위원회 회의('10. 6. 7-8)
 - 출장자: 이인실 청장,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김신호 복지통계과장, 박상진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한국은행 최덕재 경제통계국 팀장, 주오이시디대표부 서원석 주재관
- 제58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10. 6. 8-10)
 - 출장자: 김신호 복지통계과장, 박상진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6. 대표단 주요 활동

- 이인실 통계청장은 OECD 통계위원회(CSTAT) 의장단에 재선임 되었으며 본회의와 의장단회의에서 주요 통계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적극 표명
- 한국통계청과 유럽연합통계처 간 통계협력 약정서 체결로 한-EU 협력 기반 공고화

II. 회의의제 및 일정

1. Paris 21회의

일자	시간	의 제
2일 · PARIS21 집행위원회 회의	14:00 14:30	등록
	14:30 14:40	환영사 (좌장:Pali Lehohla&Eckhard Deutscher)
	14:40 14:45	의제 채택
	14:45 15:30	PARIS21 사업진행현황 보고('09.11월~'10.5월) 및 토의
	15:30 16:00	Logical Framework, Governance Arrangement 및 Funding Issues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
	16:15 17:15	토의
	17:15 17:30	New Governance Arrangement 및 Logical Framework에 대한 승인 및 새 이사회 임명
3일 · 오전:PARIS21 1 이사회 · 오후:통계역 량강화 공여국 회의	09:00 09:15	이사회 공동의장 및 집행위원 선출
	09:15 10:15	파트너십 협력 의제 및 토론
	10:30 11:45	2011-14년 회기 사무국 사업 및 예산
	11:45 12:15	기타 의제 논의, 의사결정 및 폐회
	14:00 14:10	환영사 (좌장: Shaida Badiee)
	14:10 15:00	PARIS21 자금조달 이슈 논의
	15:00 16:00	TFSCB 자금 및 공여국 이슈 논의
	16:15 17:30	자금조달 방식, 수요 및 전략 관련 논의
17:30 17:35	폐회	
4일	09:00 10:00	통계지원에 관한 국가 사례 발표
	10:15 10:30	Presentation of the PRESS questionnaire for 2010 round
	10:30 11:55	Use of PRESS data : a tool for collaboration 논의
	11:55 12:00	폐회

2. 한-Eurostat통계기관장 회의(MOU체결) (4일)

시 간	면담자	주 제
10:00-11:00	국제협력국장 (Mr. Pieter Everaers)	ESS, Eurostat 조직 및 활동, PEEI 및 커뮤니케이션 소개
1:00-11:30	통계처장 (Mr. Walter Rademacher)	한-Eurostat MOU 체결
11:30-12:30	품질·정보서비스국장 (Mr. Michel Glaude)	SDMX, IT, 품질 및 방법론 이니 셔티브, 직업 규약 및 상호평가 등
11:30-12:30	오 찬	
14:00-14:45	사회통계국장 (Mr. Inna Steinbuka)	사회통계
14:45-15:15	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과장 (Mr. Pieter Everaers, Ms. Maria João Santos)	회의 정리 및 향후 협력 약속

3. 제7차 OECD 통계위원회

일자	시간	의제	검토부서
7일	09:30 09:45	I. 개회 및 안건 채택	-
	09:45 10:00	II 전차회의 후속 조치사항 · 공식 통계 신뢰성 측정 관련 전자직업반(EDG) 활동 · OECD 추가 가입국 관련 검토	국제협력/연구기획실
	10:00 11:00	III. 2011-2012회기 사업·예산 운영계획	국제협력담당관실
	11:15 12:30	IV.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범OECD 프로그램(2011-2012) - 소득 소비에 관한 캐나다 통계청 보고	연구기획실
	14:30 15:30	V. OECD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표	연구기획실
	15:30 16:30	VI. 금융 통계	한국은행
	16:45 17:30	VII.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 : 멕시코 사례 발표 (구두발표예정)	-
8일	09:30 10:30	VIII. OECD 혁신전략과 측정 이슈	행정자료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0:45 11:15	IX. 기업통계 및 기업가정신	정보서비스팀 행정자료팀 등
	11:15 11:30	X. 이주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	-
	11:30 11:45	XI. 2010-2012회기 의장단 선출	-
	11:45 12:30	XII. 기타 안건	-

4. 제58차 UNECE 통계기관장회의

일자	시간	주요 안건
8일	14:30~14:45	개회 및 안건채택 CES 상위기구 회의
	14:45~17:20	UNECE 지역 국제통계활동 조정(1) - 통계 배포, 커뮤니케이션 및 공표 - 정부재정 및 공공영역 통계 - 생활시간 조사에 대한 각국 비교 보고 - 정보사회 측정 및 과학·기술·혁신 통계
	17:20~17:30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사업 추진현황
9일	09:30~10:30	유럽통계기관장회의 매뉴얼,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 - 성인지통계에 관한 매뉴얼 -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가구에 대한 측정 - 고용의 질 측정
	10:50~12:30	공간통계 세션 1: 공식통계에서의 통계그리드 활용 - 핀란드/미국/슬로베니아
	14:30~16:00	세션 2: 공간분석(지도와 통계정보의 통합 활용) - 이스라엘/스웨덴/네덜란드/멕시코
	16:30~17:30	세션 3: 종합토론 및 결론
10일	09:30~11:10	글로벌위기가 통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세션 1: 금융통계, 국제수지 및 국가간 연결 - 노르웨이/미국/WTO
	11:30~12:30	세션 2: 커뮤니케이션 및 시의성 - 뉴질랜드/루마니아/프랑스
	14:30~14:45	세션 2: 커뮤니케이션 및 시의성 (계속)
	14:45~16:15	세션 3: 사회·가구통계 - 네덜란드/스웨덴/Eurostat
	16:15~16:45	세션 4: 종합토론 및 향후 사업에 관한 권고
	16:45~17:00	기타 안건
	17:00~17:30	보고서 채택 및 회의 종료

III. 주요활동

1. 국제통계 협력활동

- **UNSD 통계처장(Mr. Paul Cheung)과 ICT 통계회의*** 개최 준비사항 논의

*한국통계청, UNSD, ITU, UNCTAD 공동개최('10. 7. 19-21, 서울)

- 현재 준비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속적 협력 합의
- 한국의 host country로서의 역할분담(일부 발표자 경비지원 포함), 개최식 주요 인사 초청, 한국세션 구성 등 주요 사항 협의
- 향후 한국통계청·UNSD 공동개최 국제세미나 정례화 재확인

- **월드뱅크 Mr. Misha BELKINDAS (Development Data Group 매니저)** 면담

- 월드뱅크 Development Data Group이 개발 중인 Virtual Statistical System('10년 중 완료예정)의 개도국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한국 통계청이 올해 안에 월드뱅크 자금으로 실시해 줄 것을 제한하여 이에 합의함

*제1회 세계통계의 날('10.10.20) 기념행사로 실시 고려

- 또한, 동 매니저는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일부 세부사업을 KOICA 자금으로 한국통계청과 협력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
- 이에 월드뱅크가 사업내용, 대상국, 지원자금 규모 등에 대한 사업Proposal을 작성하여 한국통계청을 통해 KOICA에 전달하는 방안 논의

- OECD 통계국(Mr. Paul Schreyer)과 글로벌 프로젝트 협력사업 논의
 - 글로벌 프로젝트("Measuring Progress and Well-being")의 개도국 Outreach program을 한국통계청과 협력하여 실시하며, 현재 확보된 World Bank fund 사용계획에 대해 시기, 장소 등 논의
 - 시기: 2011년 후반 또는 2012년 전반
 - 장소: 아시아(한국에서 개최토록 요청함)
- 주요국 대표단과 협력활동을 위한 접촉
 -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및 칠레 통계청장이 한국통계청과 협력 의사를 표명하여 추후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논의하기로 함

2. 관찰 및 평가

- OECD통계위원회는 OECD 각국 통계기관장 및 국제기구 통계부서장들이 세계 통계시스템이 나아갈 기본방향, 의제별 실천방안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정립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임
 - 아국은 동 회의를 통해 세계 통계 동향에 대한 최신정보 교류 및 고위급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청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
- 이인실 한국통계청장이 OECD통계위 차기 의장단에 연임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G20 개최국가로서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 맞는 국제협력 활동 전개가 가능하게 됨
- Eurostat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OECD통계위원회 회의 참가시 기관장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 PARIS 21에 공여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성공적인 국가통계시스템 운영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기회 확대 필요.

3. 회의별 주요 내용

□ PARIS 21(21세기 통계발전 파트너십) 회의

-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사업내용에 대한 Progress Report를 승인하고 2010-2014년 활동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
 - 주요 활동 프로그램을 조정(Coordination), 통계인식제고(advocacy), 국가통계발전전략(NSDS) 및 통계지식(Knowledge for statistics)으로 설정
 -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PARIS 21이 향후 5년간 약1,300만불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국에 자발적 기여금 제공을 요청
- 기존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폐지하고 개도국 지원사업 아젠다 설정과 활동 강화를 위해 이사회(Board)를 새로 설립하고 의장 및 멤버를 구성함
 - 공동의장: Mr. Eckhard Deutscher(DAC의장), Ms. Samia Zekaria (이디오피아)
 - 멤버: 수혜국, 공여국* 국제기구 포함 41개로 구성
 - * 공여국: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그리고 2개국을 추가 확보 예정
 - * 차기 회의는 2011년 4월 27-29일 파리 개최로 잠정 합의

○ 재원 확보 방안

- PARIS21은 5년간 소요예산 전체를 일시에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 확보를 위해 공여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한의 직접 예산을 확보하되 전문가, 직원 파견 등 지원 방식 다양화

(한국측 발언 요지)

- 우리청은 본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처음 참여하여 21세기 국가 핵심인프라인 통계생산을 위한 PARIS 21의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PARIS 21 활동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힘
- 한국은 향후 정식 멤버가 되고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여금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사 표명

□ 한-EU 통계협력 MOU 체결

○ 유럽연합통계처(Eurostat)와 통계협력 양해각서 사인

- 이인실 통계청장은 6월 4일 유럽연합통계처 본부(룩셈부르크)를 방문하여 Mr. Waltar Radermacher 통계처장과 기관장 회의를 갖고, 양자간 통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동 양해각서는 통계의 국제기준, 비교가능성, 국가통계시스템 강화, 인적자원과 지식 교환, 정보교환, 개도국의 통계발전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포함
- 동 회의에서 양 기관은 사회통계, 품질관리, SDMX 등 다양한 통계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 3월 제8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한-EU 통계비교보고서 발간(2011)에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함

□ OECD 통계위원회 회의

○ 전차회의 후속 조치사항

- 공식 통계 신뢰도 측정 인지테스트 실시
 - 한국, 호주, 캐나다가 설문지 초안에 대해 인지테스트를 마쳤으며 비영어권 국가의 추가적인 자발적인 인지테스트를 요청하고, 인지테스트 결과를 2011년 2월 의장단에 보고하기로 함
- OECD 가입후보국에 대한 통계 평가
 - 2010년 5월 칠레가 OECD에 가입하였고 연말까지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이 가입예정이며, 러시아에 대한 평가보고 리뷰(통계평가 포함)가 2011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

○ 2011-2012 사업 · 예산 계획의 승인

- 통계위원회는 OECD 사무총장의 2011-12년 OECD의 전략방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통계국 및 범OECD 통계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회원국의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사업을 결정
- 통계국은 우선순위 5위까지는 예산지원 하기로 보고(환경계정, 국민계정의 가구 불평등 지표통합, 소득·소비·자산 통합조사 방법개발, 부문별 국민계정 분기 작성, 무형자산 측정)

(한국측 발언 요지)

- 많은 신규사업이 범 OECD 통계사업 등 통계국이 아닌 다른 국의 통계업무로 수행됨에 따라, 통계국/통계위원회의 OECD내 타 국/위원회와의 협조 및 조정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짐을 강조

○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범OECD 프로그램(2011-2012)

- OECD 사무총장은 최근 ‘전략방향(Strategic Orientation)’ 보고서에서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향후 2년(2011-2012)의 주요업무로 설정하며 통계국의 업무 수행을 요청
- 이와 관련하여 소득분배 및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통합적 고려에 초점을 맞춘 가계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공감
- OECD 통계국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각국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조하며 타 국제기구와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적
- OECD 설립 50주년인 2011년, 동 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한국측 발언 요지)

- 한국통계청은 캐나다 및 유럽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조사와 유사한 가계금융조사(Household Finances Survey)를 금년부터 연간주기로 실시하여 가계의 경제적 웰빙 측정을 위해 소득, 소비, 자산을 동시에 파악할 예정이며, 향후 캐나다, OECD 등과 공조하여 국제기준의 측정방법과 내용을 통일함으로써 정확성,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하겠음

○ OECD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표

- 녹색성장 지표는 정책정합성, 분석건실성 및 측정가능성을 기준으로 각 국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
- 녹색성장 지표셋은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i)생산의 환경적

효율성과 생산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 (ii)소비의 환경적 효율성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 (iii)천연자원보유량과 생물다양성을 기술하는 지표, (iv)환경적 삶의 질을 모니터 하는 지표, (v)정책대응 및 제도 모니터링 지표임

(한국측 발언 요지)

- 현재 Proposed Framework은 경제자원과 환경자원, 사회자원의 투입과 산출을 개념적으로 연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경이나 생태계 요소의 활동을 투입과 산출로 일관성 있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한 global agenda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국제적으로 합의하기 쉬운 지표 체계가 될 것임
- 한국통계청에서도 녹색성장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되면 공유하겠음
 - 지표선정은 2010년, 지표작성은 2011년 완료 예정이며 지표 분석틀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정책주제 분류와 동일하게 구성
 - 이에 OECD 통계국장이 한국의 지표개발 결과를 참고하여 녹색성장 지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고 함

○ 금융 통계

-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시의 적절한 금융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생산이 요구됨
- 이에 따라 OECD는 통계위원회에서 금융통계관련 활동을 점검하고 현재 금융기업국에서 운영 중인 '금융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 WPFS)'의 통계국 배치를 논의

○ OECD 혁신전략과 측정 이슈

- 현존하는 혁신 측정 지표들이 혁신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다양성과 연계성을 나타내지 못함을 인식하고 포괄적 범위의 혁신과, 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낼 새로운 지표개발을 추진
- 혁신을 위한 측정 아젠다 : 5개 주요 활동
 - 광범위한 혁신의 측정 및 거시경제와의 연계 증진
 - 혁신의 결정요인과 효과 측정을 위한 고품질, 포괄적 데이터 인프라 투자
 - 공공 분야에서 혁신의 역할 인식 및 측정 개선
 - 새로운 통계기법 고안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
 - 혁신의 사회적 목표와 사회적 영향 측정 개선

○ 기업통계 및 기업가정신

- 기업의 행태, 생멸 및 기업가정신 관련 데이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OECD는 2006년 EIP를 발족하고 기업가정신을 '결정요인', '성과 및 '효과'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별 지표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
- 현재 성과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기업체 생멸통계가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국 및 성과와 결정요인 지표를 확대 필요

○ 2010-2011회기(2010.6월~2011.12월) 의장단 선임

- 의장단 선출
 - 의 장 : Brian Pink(호주)
 - 부의장 : Jean Philippe Cotis(프랑스), Katherine Wallman(미국)

- 의장단 : Insill Yi(한국), Jill Matheson(영국), Gosse van der Veen(네덜란드), Jaime Garcia(스페인), Jan Plovsing(덴마크)

-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

- OECD 이사회가 결정한 Rules of Procedure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회기부터는 의장단 임기를 2년→1년으로 줄이고 매년 임기를 1월1일에 시작하기로 합의

□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오찬회의('10. 6. 8, 12:30-14:30)

○ 통계위원회 평가를 대비한 준비

- OECD 평가위원회의 통계위원회 평가가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설문 대상: 회원국 및 자료 이용자
- 평가 분야: 위원회 활동의 내용과 질에 대한 포괄적 평가

○ 회원국들이 가입후보국(BRICS 등)과의 통계협력을 긴밀화

- OECD의 relevancy와 impact 증대를 위해 기존 유럽중심에서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와 협력관계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회원국들이 가입후보국과 상호 협조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강조

□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 통계 보급, 소통, 및 출판 심층분석 결과

- 접촉하기 어려운 그룹(hard-to-reach groups)과의 의사소통 보다 오히려 일반 유저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 소통, 배포해야함.
- 통계해독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Steering Group은 관련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작업은 IAOS 활동과 연계 필요

- 사전배포와 엠바고, 소수그룹에 대해 국제적으로 좋은 선례를 공유하는 작업 필요
- 통계보급와 소통, 출판관련 UNECE사무국과 CES Steering Group은 "Making Data Meaningful"시리즈의 일부로 통계해독능력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후속조치에 대해 승인

○ 생활시간 통계

- 생활시간통계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 필요
-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의 실용성과 비용축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

○ 정보사회측정과 과학·기술·혁신 통계

- 이와 관련된 통계 개발에 있어 세 가지 큰 부문(개념틀, 통계 인프라, 국제협력)에서 접근 필요하며 정보사회의 개념적립 어려움 토로
- 동 분야는 국제적관심이 집중되어 OECD 내에만 해도 20여개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회의체가 구성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국제적 공조가 어려워,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협력이 요구됨

○ 성인지통계 매뉴얼, 새로운 형태의 가족·가구 측정보고서 및 고용의 질 측정보고서 수정안 승인

- 성인지통계 매뉴얼 발간예정이며 월드뱅크의 재정지원을 통해 러시아어로도 번역예정
- 고용의 질의 경우, 주관적 및 객관적 관점의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에서

직업의 다양성과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지표해석에 주의 필요

※ 차원별 고용의 질 구성지표(안)

A.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① 고용의 안전성 ② 최소연령이하의 노동 ③ 고용의 공정성

B. 수입과 복지혜택

① 임금(수입) ② 비임금 금전적 보상

C. 근로시간과 근로의 균형성

① 근로시간 ② 근로시간 조정 및 유연성 ③ 근로의 균형성

D. 고용보장과 사회적 보호

① 고용보장 ② 사회적 보호

E. 노사관계 F.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G. 직장유대관계와 직무동기

- 개인 행동양식, 가족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기존 가족 개념의 경계를 탈피하여 비교 가능한 새로운 가구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및 측정 틀 정립

※ 새로운 가족 및 가구(안)

A. 재결합 가족(Reconstituted Family)

○ 부부 중 한 쪽에만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가 포함된 가족, 그런 자녀는 없으나 최소한 한 쪽이 결혼경력이 있는 재결합 커플 등

B. 가구간 왕래자(Commuters Between Household)

○ 주말부부, 외지유학생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가구를 왕래하는 사람

C.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Living Apart Together)

○ 독립성 유지, 생활여건 등의 이유로 공동의 거주지 없이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

D. 동성커플(Same-Sex Couples),

E. 따로 살며 네트워킹하는 관계(Living apart but within a network)

○ **공간통계(Spatial Statistics)**

- 통계그리드*는 통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작은 소규모 단위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구역 중심 데이터 서비스와는 달리 데이터 분석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계그리드는 일정 간격(예. 1km², 2km²)을 기준으로 구역화하는 방법

- 공간통계와 메타데이터의 국제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경 지대에 대한 그리드 표준화가 필요

- 핀란드의 경우 1970년도 센서스부터 모든 건축물을 좌표로 나타내는 그리드 방식통계를 제공하고,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코드화된 등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그리드 기반 통계 제공에 유리하나,

- 인구밀도가 낮아 그리드데이터 활용 시 기밀유지의 한계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Local Restricted Imputation 방식 및 자료공표 가이드라인 활용

- 스웨덴은 소지역통계 분석용 2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Municipality eXplorer와 Data from the Map이용

※ UNECE는 Eurostat 주관으로 유럽지역 공간정보 분석을 위해 그리드 방식을 기초로 하는 GEOSTAT 프로젝트 추진('10~, European Forum for Geostatistics, The European GridClub)

○ **소규모 경제의 시의성 딜레마**

- 국가통계시스템은 공식통계에 관한 인지도 확산 및 최대 활용,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능력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뉴질랜드의 경험을 통해 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적시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거나 주요경제통계의 시의성과 주기를 향상시키기 전에 품질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도출

○ 재정위기로 도출된 사회통계 분야에서의 사안들

- 위기시기에 통계가 사전경고시스템 제공 및 사후 결과 모니터링, 위기에 대한 정책 답변 평가, 출구전략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위기 후 빠른 대응력, 적시 연별통계제공 및 구조 데이터를 통한 위기영향 분석 등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이용 가능한 자료의 더 나은 사용과 시의성, 정보격차감소, 유용성 등 모든 차원의 강화된 대응 필요
- 현장업무와 데이터처리 간 시간 단축을 위한 도구 개발, 적용가능한 양질의 사례를 다른 회원국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의성 확보에 일조
- 통계 모듈 등의 통계관련 수요를 행정데이터 수집으로 통합
- 빈곤율 예측을 위해 EUROSTAT과 NSI는 EU-SILC 자료의 시의성 향상을 논의
- 현재 긴급정책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메커니즘 보유를 위해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의해 개발된 인프라가 현재 시험 중임.

○ 2011년 정기총회 세미나 주제 채택

- 총회 회원국과 국제기구로부터 2011년 정기총회 기간 중 세미나 주제 목록을 받아 이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제출안을 채택
- 2011년 정기총회 주제
 - 통계시스템 기초에 관한 이슈에 자료 수집 및 공유/SDMX이행이 채택되었으며 네덜란드와 협력하여 UNECE가 세미나 구성
 - 최근 부각 이슈로 인적자본측정이 채택되었으며 캐나다, UNECE와 협력하여 뉴질랜드가 세미나 구성

IV. 주요 의제 및 검토의견

1. Paris 21 회의

1. 집행위원회 의제 2 : PARIS21 중기전략(2011-2014) 초안/
2. 집행위원회 의제 3 : PARIS21 조직 구조(2011-2014) /
3. 집행위원회 의제 4 : 자발적 기여금 관리/
4. 이사회 의제 2 : PARIS21 사무국 활동 및 예산 계획(2011-2014)/
5. 이사회 의제 3 : 분쟁 및 취약국가 관련 통계적 이슈/
6. 이사회 의제 4 : 파트너십 협력사항/
7. Paris21 개요

집행위원회 의제 2 : PARIS21 중기전략(2011-2014) 초안

주요 논점

- ◇ PARIS21은 중기전략(2010-14)을 통해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여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자원 조달 활동을 개시할 예정

□ 개요

- 동 전략의 기본 운영목표는 수원국의 정책수립 및 자원배분의 근간이 되는 국가통계 능력 배양으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05), 아크라행동 계획('08) 및 통계발전에 관한 다카선언('09)에 의거한 수원국의 자주적 통계 개발 계획을 적극 지원
- 나아가 동 전략은 정책 수요에 맞는 통계 개발 뿐 아니라 고품질의 통계 생산, 평가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

□ 주요 내용

- 중점 지원대상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
 - 중점 지원대상국은 최빈국(IDA 지원 적격국가*)이 우선이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위권 국가도 포함
 - ※ 국제개발기구(IDA) 지원적격국가: '09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저소득국(1인당 국민소득 \$976~1,135/년) 및 중저소득국 중 일부 (1인당 국민소득 \$1,136~1,855) 국가
 - 다카 선언에 따라, 국가통계발전전략(NSDS)을 중심으로 사업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 2010 인구주택총조사(UNSD) / 2010 농업총조사(FAO)
 - 국제비교프로그램(세계은행)
 - 새천년개발목표(MDG) 모니터링(UN System)
 - 환경 통계, 기후변화 (UNSD)
 - 가구조사 네트워크 및 가속데이터 프로그램(세계은행, PARIS21)
 - 일반공표기준(GDDS), 특별공표기준(SDDS) 등 데이터 공표기준(IMF)

○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 개편

- 현재 공여국(6개), 수원국, 국제기구 포함 총 26개국으로 구성, 향후 참여국 확대를 검토 중
- 43개 국가(공여국, 수원국) 및 국제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포함
- **이사회(Board)**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사결정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
 - PARIS21 업무 가이드라인 제공, 중기계획 검토 및 승인
 - 이사회회의 내실화를 위해, 연 2회 1일간 개최한 회의기간을 연 1회 3일간으로 변경하고 공여국을 비롯한 이사회 멤버 뿐 아니라, 참가 기관 확대
 - 의장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과, 집행위원회가 지명한 개발도상국 대표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명

○ 운영국(Bureau subgroup) 개편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명칭 변경하고, 역할 강화
 - 사무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 주기적으로 안건 조정
 - 회원 구성 : 사무국 매니저를 포함해 9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선출
 - 의장 : 집행위원회 회원 중 1인 선출, 임기 1년
 - 4회/년 이상 주기적인 회의 개최

□ 재정 전략

○ 재정 수요

- PRESS(PARIS21 보고서) 발간, 컨소시엄회의('14) 개최 비용
- 개도국 국가통계발전전략(NSDS)수립 지원 비용

- 태스크팀 업무지원을 포함한 지식개발 비용
- OECD에 지불해야 할 간접비용 및 사무국 직접경비

○ 재원 확보 방안

- 운영예산은 5년간('10-'14) 약 **1295만 유로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닌 5년간 소요예산 전체를 일시에 조성 할 계획
 - * 연간납부가능, 6월중 공여국 기여의사 및 금액 1차 조사 예정
- 재원 확보를 위해 공여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한의 직접 예산은 확보 하되 전문가, 직원 파견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 할 예정
- 또한, 예산 확보 노력은 통계역량구축기금(TFSCB) 조성 같은 재원 마련 운동과 별도로 수행
-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이자가 일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에 대비

○ 향후 일정

- 재원 조달 캠페인 준비 ('10.6월)
- 공식 캠페인 착수 ('10.10.21, 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
- 추진상황 점검 및 수정안 마련 (~'11.6월)
- 공식 캠페인 종료, 공여기관 확보를 위한 개별 접촉은 지속('11.12월)

집행위원회 의제 3 : PARIS21 조직 구조(2011-2014)

주요 논점

- ◇ PARIS21은 집행위원회를 이사회로 개편하고 운영국을 집행위원회로 개편하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

□ PARIS21 개요

- 설립시기 : 1999년 11월
- 통계활용 촉진과 개도국 통계역량 구축활동의 확대강화, 합리적 조율을 위해 설립
- 매년 개발원조위원회(DAC)와 UN통계위원회에 활동내용 보고

□ 이사회

- 역할
 - PARIS21의 전략적 추진 방향 설정 및 기구의 조직 및 임무 조정
 - 기구 업무의 전반적인 검토 및 향후 추진업무의 우선순위 설정
 - 집행위원회 회원 임명
 - 태스크 팀의 임무와 위성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하여 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중기 업무계획의 검토 및 조정 요구
 - 입력된 정보들의 검토 및 조정, PARIS21의 주기적 평가 결과 보고
 -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제공
- 의장
 - 2명의 공동의장으로, OECD의 DAC 의장과 집행위원회가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친 개발도상국의 대표로 구성
 - 2년 임기, 한차례 중임 가능

- 구성
 - 이사회는 회원 또는 그들이 지명한 대리인으로 구성. 사무국 관리자는 이사회 회원 겸임
 - 공여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선진국과 지역 개발은행 및 지역 기구를 개발도상국들이 가능한 한 동일 수준으로 이사회에 참여
 - EU 위원회, IMF, OECD, UN개발 그룹, UN통계국, 세계은행 등은 기구 창립 기관들로서 이사회에 항구적인 멤버

□ 집행위원회

- 역할
 - 사무국의 정규 업무프로그램 모니터, 위성프로그램 과정 검토
 - 연 업무프로그램과 예산 검토 및 승인
 - 필요시 연 보고서 및 기타 중요 문서의 검토와 승인
 - 이사회의 연 회의에 대한 의제와 보고서의 검토와 승인
 - 본 기구의 전체 회의 프로그램 검토와 승인
- 구성
 - 집행위원회 회원은 이사회에 의해 지명.
 - 회원은 아홉 명의 지정 회원과 제 10의 회원으로서 PARIS21 사무국 관리자와 겸하는 (투표권은 없음) 회원으로 구성
 - 회원들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2년에 한해 재지명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1년의 임기를 가질 장(chair)을 회원들 간에서 선출

□ 사무국

- 역할
 - 업무프로그램 실행
 - 이사회를 대신한 DAC 와 UNSC로의 보고
 - 본 기구에 대한 중앙 연락처 및 레퍼런스 포인트로서의 역할

- 지원 자료의 개발 및 효율적 분산 배치
- 정보교환 개발 및 웹사이트 등 관리에 관한 관련 파트너간의 조정

□ 태스크팀

- 태스크 팀의 업무는 집행위원회승인에 따라 사무국이 결정
- 태스크팀은 개념 프레임웍 개발하고, 공동업무 및 정보교환 증진을 위한 협동 업무를 실시하는 등 특정 업무 분야에 회원들이 더 집중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PARIS21에 기여

□ OECD와의 관계

- PARIS21 사무국과 OECD와의 관계는 OECD Council에 의해 승인된 문서에 지정
- 사무국은 OECD의 개발협력국(DCD)의 일부이며, PARIS21 사무국 관리자는 DCD 관리팀의 회원임
- PARIS21 사무국 업무프로그램은 DCD 업무프로그램과 예산(PWB)의 일부이며, 이는 DAC에 의해 논의되고 OECD Council에 의해 승인

집행위원회 의제 4 : 자발적 기여금 관리

주요 논점

- ◇ 2010-2014의 업무 및 예산 프로그램 (PWB)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국은 자발적 기부의 제공 및 관리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 개요

PARIS21은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 선언에 따라, 회원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모든 활동 주체의 비용 조달과정을 최소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확보하기로 함. 이 계획은 2011년 1월을 시작으로 2011-14 기간 중 해마다 네 차례에 걸쳐 적용될 되고 사무국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행 상황을 검토할 예정.

□ 주요 내용

○ 공여국 주요 검토 사항

- 이사회에 의해 동의된 우선 순위별로 자발적 기여를 제공할 것
- 사무국을 위한 자발적 기여 제공은 표준 OECD 약정을 이용할 것
- 사무국에 의해 준비된 금융 보고서 등 표준 사항들 외의 정보에 대한 요청은 삼갈 것

○ 사무국 지침

- PWB 과정과 자발적 기여 활성화 사이의 연계를 강화
- 연례 이사회 회의에서 PWB 기금 및 이행 과정에 대한 보고함으로써 자발적 기여에 대한 입장 표명
- 매년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단일의 통합 금융 보고서 제출

이사회 의제 2 : PARIS21 사무국 활동 및 예산 계획(2011-2014)

주요 논점

- ◇ PARIS21은 향후 저개발국가에 대한 국가통계발전전략 및 IHSN 과 ADP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확대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약 2천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

□ 개요

- PARIS21은 파트너십의 향후전략과 특별위원회의 **Logical Framework**에 따라, 주요 활동 프로그램을 조정(Co-ordination), 지지(Advocacy), 국가통계발전전략(NSDS), 통계지식(knowledge for statistics)로 설정

□ 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수준 (Global Activities)	국가 수준 (Country- Level Activities)
조정 (Co-ord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S보급,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교환 활성화 ▶ 새로운 연구 수행(데이터 이용, 통계품질관리 등), NSDS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PARIS21활동 평가(2013) 지원 ▶ 회의(이사회, 집행이사회회의 등)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발전지원 조정, 우선순위 결정하여 정부, 국제기구, 공여국간 파트너십 수립 지원
지지 (Advocacy)	<p>통계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독려, 통계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DS 홍보를 위한 툴킷(START)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발전계획이 포함된 소책자 발간 등 국가차원의 홍보 계획, 실행 지원
국가통계발전전략 (NSDS)	<p>NSDS는 저개발국가의 국가통계발전전략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 발전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NSDS 적용 ▶ NSDS코디네이터 파견, 방문 프로그램 운영 ▶ FAO, WHO등과의 협력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 지역범위 확대 ▶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 선택과 집중 ▶ 아·태(중동 포함)지역 : 유지 ▶ 분쟁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유지
통계 지식 (knowledge for statistics)	<p>ADP¹⁾와 IHSN²⁾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의 더 나은 이용을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에서 PARIS21은 IHSN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가구조사 방법을 만드는데 중점 ▶ 마이크로데이터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에서 ADP를 통해 데이터 보급, 보고, 분석 및 평가 방법 지원 ▶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

□ 예산(2010-2014)관련 주요 이슈

○ 주요 프로그램별 운영 예산(안) (단위 : 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C	COORDINATION	1,154,800	1,082,010	1,063,563	1,186,020	2,050,599
A	ADVOCACY	333,414	365,410	369,241	375,218	304,669
N	NSDS	1,901,747	1,799,576	1,848,427	1,868,930	1,906,523
K	KNOWLEDGE OF STATISTICS	3,083,921	2,265,599	2,516,079	2,633,342	2,742,618

○ ADP, IHSN 운영 예산 (단위 : 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A	Balance Previous year	3,043,922				
B	Income	0	0	0	0	0
A+B	Income Total	3,043,922	0	0	0	0
C	Expenditure	3,043,922	2,235,599	2,446,079	2,603,342	2,712,618
C-(A+B)	Gap	0	2,235,599	2,446,079	2,603,342	2,712,618
	Gap %	0	100	100	100	100

○ 핵심 프로그램 운영 예산 (단위 : 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A	Balance Previous year	1,490,905				
B	Income	1,283,155	805,436	555,436	277,718	0
A+B	Income Total	2,774,060	139,034	555,436	277,718	0
C	Expenditure	3,439,961	3,276,996	3,311,232	3,460,169	4,291,790
C-(A+B)	Gap	666,402	2,346,672	2,755,795	3,182,450	4,291,790
	Gap %	19	75	83	92	100

- 수입(income)부분은 그랜트로써, OECD에 의해 이미 승인 ('10.5.10)

** 예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1) ADP : Accelerated Data Program

2) IHSN : 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

이사회 의제 3 : 분쟁 및 취약국가 관련 통계적 이슈

주요 논점

- ◇ PARIS21은 국제사회와 분쟁 및 취약국가의 통계발전 논의를 발전시켜, INCAF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지역의 평화 및 재건을 위한 국가통계발전구축 지원을 계획

□ 개요

- PARIS21 집행위원회는 2008년, 소규모 작업반을 구성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통계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OECD DAC 산하 분쟁 및 취약성에 관한 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와 협력 도모

□ 각국의 경험

- 키갈리회의('09.5월), 뉴욕회의('10.2월)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은 내분, 전쟁 등 분쟁 상황에서 통계 활동 수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
- 분쟁시 조사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분쟁 후 여파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고아 통계 수집이 필요하며, 분쟁 후 재건지역 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

□ 국제적 지원

- 통계분야에 있어, SRF(Statistics for Result Facility)펀드는 분쟁지역 원조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고로, 시험적으로 5개 지역(아프가니스탄, 가나, 콩고, 나이지리아, 르완다)의 통계발전전략 수립 지원을 희망

□ 향후 계획

- 조정 :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통해 우선순위에 맞는 통계활동 지원
- 지지 :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지원 (국가통계 신뢰 재구축, 가이드라인 제공)
- 방법론 : 국가통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천 매뉴얼 제공
- ADP(Accelerated Data Program) : 시급히 필요한 통계를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사회 의제 4 : 파트너십 협력사항

주요 논점

- ◇ PARIS21의 새로운 전략목표에 따른 각 행위자(actors)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립

□ 파트너십 새롭게하기

- PARIS21은 '09.9월 발의된 '통계발전에 관한 다카선언*'에 따라 향후 5년간 (2010-2014)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PARIS21 참여기관의 공동사업과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제시
 - * Dakar Declaration on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DDDS)
- DDDS는 향후 5년간 파트너들이 수행할 항목으로 ①PARIS21 전략이행, ②통계분야 기술·재원 조달, ③공여국지원 조정, ④데이터이용자 요구 충족, ⑤통계 기법 및 방법론 개발

□ 파트너십 행위자(actors)별 역할과 책임

행위자	역할과 책임
개발도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이용자들의 수요 정기적 파악 및 국내외 통계이용 확산 홍보 · 국가통계발전전략(NSDS) 수립, 자원배분, 실행 및 평가 · 공여자(국)와 협력하여 국가통계발전전략 협력 증진 · 통계지원국가보고서(CRESS)을 통해 통계지원 및 NSDS의 추진현황 보고 · 통계발전과 PARIS21 사무국에 대한 자원확대 홍보
양자·지역·국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그룹 결성 및 NSDS를 통한 지원 체제 구축 · 국내외 통계 활용 증대에 대한 홍보 · 통계발전과 PARIS21 사무국에 대한 확대된 자원의 배정 및 홍보 · 국가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도구 및 방법 개발
연구·데이터 분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들의 통계 개발 필요성 홍보 ·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생산된 데이터의 품질 향상에 기여 · 범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통계 사용의 중요성 홍보 · PARIS21 사무국에 대한 자원 증대지원의 필요성 홍보
PARIS21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들에서의 통계 개발의 필요성 홍보 · 범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통계 사용의 중요성 홍보 · PARIS21 사무국에 대한 자원 증대지원의 필요성 홍보 · 해당 기구/ 국가 내의 이용자들로부터 PARIS21 이슈들에 대한 의견 청취 · PARIS21의 지역/국제 회의에 참가 · PARIS21 업무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PARIS21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의 업무 총괄 · 회원국들의 중심체 역할 · 이사국들이 회원국, 기타 국가, 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PARIS 21 개 요

□ 조직 개요

- 설립시기 : 1999년 11월
- 목 적 : 통계활용 촉진과 개도국 통계역량 구축활동의 확대강화
 - * PARIS21 : The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 업무체계 : 집행위원회, 집행이사그룹, 사무국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 : 사무국 총괄, 조직전략 설정, 업무계획 조정 및 예산 감독
 - 집행이사그룹 : 사무국 관리 감독, 집행위 회의간 지원, 정책실행 의사결정
 - 사무국 : 업무계획 집행,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³⁾ 보고, 공여기관 조정 등
 - 사무국은 OECD DCD(개발협력국)내에 설치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OECD 개발협력국 간부급에서 겸임(OECD DAC의 검토와 OECD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업무수행)

□ 집행위원회 구성

- 회원구성 : 24개 회원기관으로 구성
 - 공여기관 대표 : 12개 기관(국제기구6, 개별공여국6)
 - ※ 유럽위원회, IMF, OECD, UNSD, World Bank, UNDG(유엔개발그룹),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 파트너 국가 : 9개국(지역기구와 협의 선임)
 - 지역개발은행 : 3개 기관(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 의장선임 : 2인 공동의장 (OECD DAC의장, 유엔통계위원회 의장단 개도국 대표)
- 회원임기 : 3년임기 연임가능
- 회의주기 : 년 2회(6/7월 1차회의, 10/11월 2차회의)

□ 2009년 주요사업

- 지역 프로그램운영 : 각종 통계개발 심포지움, 지역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국가통계발전전략(NSDS) 수립 및 실행
- 특별 프로그램운영 : 소규모 국가의 통계역량 강화지원 등
- PARIS21 사업관련 인지도 고취활동 등

3)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추진을 위한 정보, 의견교환 및 개발조정 등의 목적으로 지난 1960년에 설립된 OECD 3대 위원회중 하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25일 24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2. 유럽통계처와 MOU체결

1. Eurostat 개요 /
2. Eurostat 주요 인사 /
3. Eurostat 조직도 /
4. 유럽연합 사회통계 발전계획 /

1 Eurostat 개요

□ 개요

- 가 입 : EU 27개국
- 성 격 : EU 총괄 통계집행기구
- 소 재 지 : 룩셈부르크
- 통계처장 : Mr. Waltar Radermacher
- 분 과 : 통계방법, 국민계정·유럽계정, 경제·지역통계, 농업·환경통계, 사회통계·정보사회, 사업체통계 등
- 설립목적 : 유럽 및 세계에 고품질 통계를 보급한다는 Eurostat 사명과 EU 및 회원국을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의 선구자가 된다는 비전을 위해 정립
- 직 원 : 약 900명 (73% 공무원, 8% 회원국 전문가, 기타 19%)

□ 주요업무

- 가입국에 통계조사 및 표준 등을 강제 실시할 수 있는 법을 1997년에 제정 및 운영
- 경제/사회구조 지표 작성 및 분석 (경제일반, 고용, 혁신, 경제개혁, 사회결속, 환경)
- 유로지표 작성 및 분석 (국제수지, 사업체/소비자 조사, 소비자물가, 해외무역, 에너지 등)
- 일반통계 및 메타데이터 작성
- 통계 5개 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통계자문 위원회 운영·간행물 발간 (통계연감, 연구보고서 등)
- 비회원국가 및 국제통계기관과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 재정지원 등)
- 회원국에게 각종 통계조사 지침 및 기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2

Eurostat 주요인사

① Waltar Radermacher (1952년 생)



- 학 력
 - 기업경제 전공

- 국 적
 - 독일

주요경력

- '03 ~ '06 전 독일 연방통계청 부청장
- '06. 12 ~ 전 독일 연방통계청 장
- '08. ~ 현 EUROSTAT 통계처장

② 피에터 에버라에스 (Pieter Everaers)



- 학 력
 - 공간과학 박사

- 국 적
 -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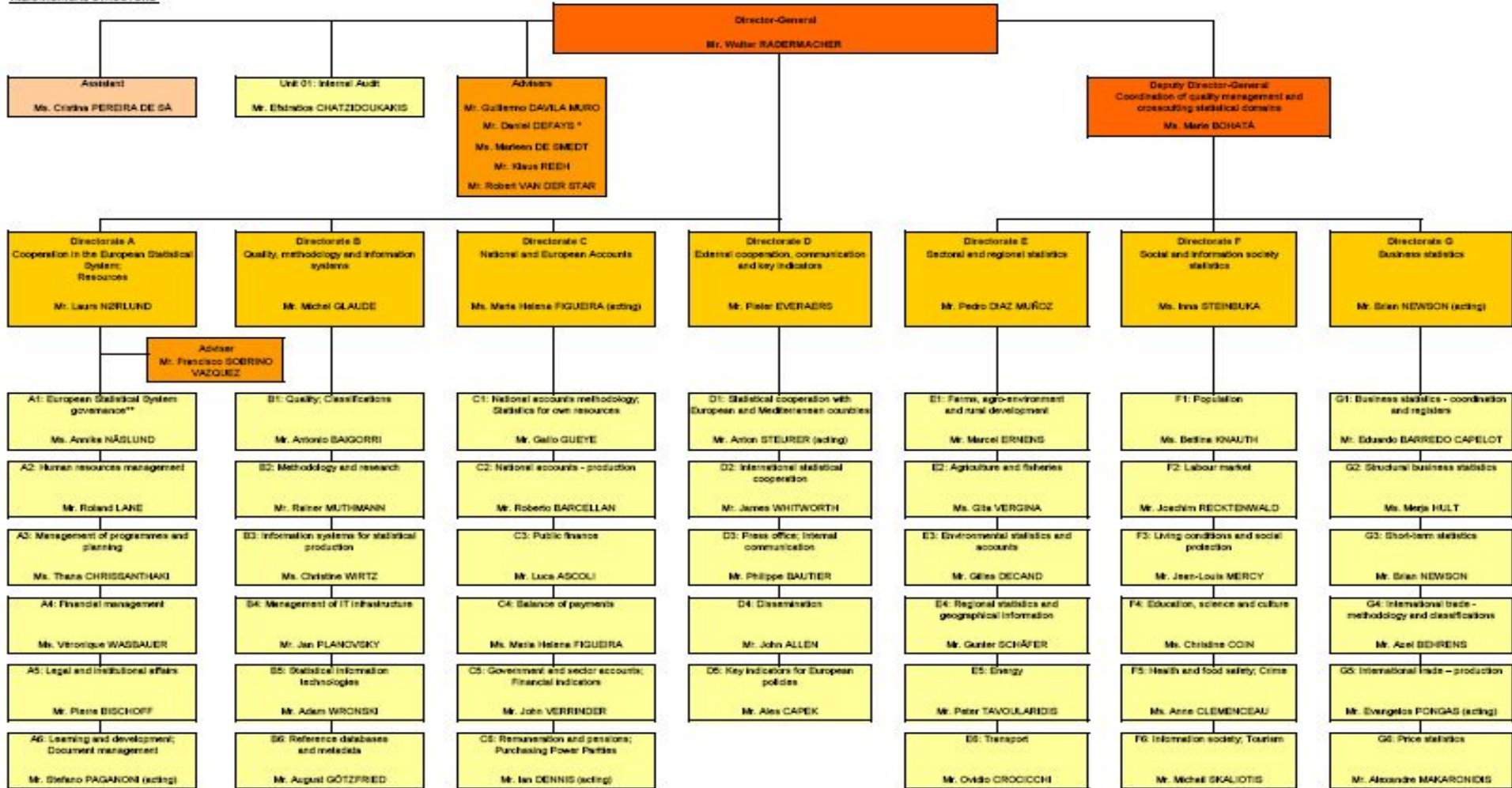
주요경력

- '84~ 네덜란드 통계청(CBS) 20년 재직
캠버라 그룹(소득통계), 리오그룹(빈곤통계) 참가
- '04~ (現)EUROSTAT 국제협력과장

3

Eurostat 조직도

HIERARCHICAL STRUCTURE



For secondment

** Includes Secretariat to European Statistical Governance Advisory Board

4

유럽연합 사회통계 발전계획

- Eurostat: 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tatistics in the European Statistical System (2008) -

1. 배경

- 사회통계 수요 급증
 - 인구고령화, 세계화, 다문화사회, 정보사회 출현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
 -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설계, 감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수준(지역, 전국)에서 통계적 수요 증가
- 반면, 통계생산은 비용과 응답자 부담을 전제
- 경제통계의 국민계정과 달리 광범위한 사회통계분야를 포괄하는 접근은 부재, 유럽의 통일된 사회통계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

2. 유럽 사회통계 현황(EU 가이드라인 제정된 통계)

-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 임금구조조사(Structure of Earning Survey)
- 소득체계 및 생활실태 통계(System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 Statistics)
- 노동비용조사(Labor Cost Survey)
- 지속적인 직업교육 조사(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Survey)
-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조사(ICT surveys(개인, 사업체))
- 성인 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
- 유럽건강인터뷰 조사(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
- 가구자산조사(Household Budget Survey)
-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 사회계정(Social account), 사회보건계정(개발중)

3. 액션플랜의 방향

- 품질향상(특히 국각간 비교가능성 향상)
- 이용자 수요에 반응
- 광범위한 사회통계 영역 통합을 위한 실천전략. 핵심 사회변수 셋 개발
- 분류조정
 - 가구조사에서 유럽 사회경제 분류(European Socio-economic Classification)를 시험 적용중
 - 2010년 EU-household Survey에서 16개 핵심 사회변수 셋 적용, 조사기준 일치(예: 도시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학학력 실업자 등)
- 신 유럽인 가구조사(new EHS)의 추진
 - 표본규모: 15세 이상 27만명(각 국당 평균 1만명 이상)
 - 정규 모듈: 16개 핵심변수, ICT 가구조사, 유럽인 건강조사(5년)
 - 비정규 모듈: 성인교육조사, 정책수요 반영 중단기 모듈

4. 사회 영역별 발전전략

- 인구
 - European Census Hub 구축: 각국의 센서스 자료 제공 창구 단일화
 - 인구추계: 유럽통계국에서 매 3~4년 주기로 작성
 - 국제인구이동 통계자료 교환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노동
 - Flexicurity(유연한 안전성): 노동시장유연성+사회보장+실업자 보호
 - 노동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
 - 노동시장 stock 보다 flow에 대한 관심증가
 - 전환에 대한 강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직장에서 은퇴경로, 주요 경제활동연령에서 노동과 비활동사이의 전환 등
 - 노동의 질
 - under employment 와 비활동 인구에 대한 분석
 - 이주자와 해외노동자의 성공적 통합

○ 생활실태와 사회 보장

- European System of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 새로운 지표개발: 박탈(deprivation), 아동 빈곤, 주택, 최저임금 수혜자 등

○ 소비자 보호

- Consumers in Europe: facts and figures 매년작성
 - 가구자산조사(5년)와 기타 통계(여론조사)를 방법론적으로 결합
- 비교가능한 평균가격 자료 개발

○ 교육, 훈련, 생애교육

- 정규교육에서 생애교육으로의 이동
- Employability(고용가능성)
-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 문화

○ 보건과 안전

- 보건계정(System of Health Account) 지표의 품질과 비교가능성
- 다양한 자료원을 결합한 분석
 - 조사 연계: 유럽건강인터뷰 조사, 건강검진 조사, 노동력조사와 작업장 건강및 안전조사 등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작업장 건강 및 안전조사와 행정자료를 결합 산업사고 및 질병 등 비용 산정
 - 행정자료 연계: 보건관련 비지출 및 지출자료, 보건노동계정 등

8. 범죄와 정의

- 각종 범죄에 대한 공통의 개념 정립(예,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
- 행정자료 이용 극대화
- EU 범죄피해 조사 모듈 도입

9. 차별

- 민족 구분을 위한 유러피안 분류의 정립
- 노동력조사(LFS)에서 부모의 출생국적 문항 추가
- EU-household Survey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측정하는 모듈 정립

10. 식품 안전

- '농장부터 식탁까지' 전과정의 식료품 안전 지표 개발
- 식품, 사료기준 및 모니터링 활동 통계의 공통용어(정의 및 분류) 정립
- 식품 소비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양 및 식품안전 정책 모니터
- 유기농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과 같은 차별화된 생산물에 대한 통계 작성

11. 정보사회

- 정책적 관심의 변화: ICT의 보급과 이용에서 ICT의 사회적 효과
 - 인터넷 정보와 원격근무 등을 통한 소비자 및 공공의 권익신장
 - 이동 제약자 및 원거리 지역 거주자 등의 물리적 거리 극복
 - 새로운 배제(인터넷 접근성 취약계층)의 형성
 - 프라이버시의 상실
 - 왜곡된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
- ICT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자료 수집: e-business, e-commerce, e-shopping, e-security, e-incultion, e-skills, e-government 등
- 사회분석시(교육, 기술, 배제, 생활실태, 노동, 시간활용, 보건 등)에 ICT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
 - ICT 이용실태 조사와 다른 조사 자료를 연계한 분석 강화
 - 다양한 소스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연계한 ICT 이용 실태 분석

<참고>

시애나그룹(1993·2005)

1. 국민계정, 경제분석과 사회통계
2. 사회 리포팅과 사회계정
3.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 모니터
4. 세대간 관계 및 사회 이동성
5. 다문화 사회이행 방향
6. 21세기의 가족
7. 사회통계의 계정, 사회발전 지표
8.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측정
9. 범죄, 정의 안전의 개념과 측정

유럽 사회통계 발전의 기본 원칙

- 참여: 유럽연합의 참여를 위한 타이밍
- 협조: 유럽통계위원회, 학계, 국제적 통계 공동체와의 협조
- 행정자료원의 잠재성 개척
- 국가간 통계의 비교가능성 증진: Ex-ant output harmonisation
- 유럽연합과 각국의 분업

3. 제7차 OECD 통계위원회

1. 의제 RD(2010)1 : 공식 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보고서/
2. 의제 1/Rev1 : 2011-12 CSTAT의 사업·예산 운영계획(PWB)/
3. 의제2 :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범OECD 프로그램(2011-2012)/
4. 의제 3 : 소득소비통계에 관한 캐나다 통계청 보고/
5. 의제 4 : OECD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표/
6. 의제 5 : OECD 금융통계(FINANCIAL STATISTICS)/
7. 의제 6 : OECD 혁신전략과 측정에 관한 아젠다/
8. 의제 7 : 기업체통계와 기업가정신 /
9. 의제 ELSA/WP(2010)1 : 이주에 관한 OECD데이터베이스/
10. 의제 8 : 2010-2011회기 의장단 선출/
11. 의제 Rd(2010)2 : 2011-12회기 타OECD 위원회에서 예정된 통계관련 사업/
12. 의제 info 4: OECD 데이터 보안 및 기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의제 RD(2010)1 : 공식 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보고서

주요 논점

- ◇ 국가별 차이로 인해 통계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모델 보다는 통계신뢰도 측정에 대한 조사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실익이 있음
- ◇ 실무그룹은 국가별 자료검토와 실행원칙을 통해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으며, 통계자료의 품질과 통계기관의 신뢰성을 통해 공식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개 요

- 2008년 6월 OECD통계위원회에서 “공식통계에서 신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 설문조사 모델 개발임무를 맡은 실무그룹의 Ivan Fellegi은 다음을 제안함.
 - 국가별로 측정대상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가 너무 커 ‘통계청에 대한 종합적인 국제 모델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
 - 통계청에 대한 인식도, 통계자료의 신뢰도·객관성 등을 포함한 ‘신뢰도 조사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실현가능하고 실익이 있음
- 공식통계의 신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식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별 환경차이로 인해 적절치 않으며, 대신 설문조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별로 널리 사용되기를 희망함.
- 2009년 6월부터 실무그룹이 활동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 결과물 및 지난 2월 유엔통계위원회 시 개최된 OECD 의장단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임

□ 실행 제안

- 설문지의 인지검사를 허용하고 결과위주로 설문지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의 권한을 강화
- 공식통계의 신뢰측정에 OECD설문지를 사용하려는 회원국에게 가능한 설문지 검토에 동의

□ 국가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및 실무그룹의 실행원칙

- 실무그룹은 16개 국가로부터 국가별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실행원칙을 도출함.
- (일반인구에 초점) 공식설문조사는 ‘고객(customer)이 아닌 ‘일반인구’(general population)에 초점을 맞춘 일반인구 조사모형이 되어야 함.
- (공식통계에 대한 인식) 일반대중은 공식통계자료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공식통계에 대해 지식이 있는 응답자를 찾는 것이 중요.
- (집중형 또는 분산형) 상이한 국가별 환경으로 인해 공식통계 신뢰도 조사에도 국가별 관행이 존재함. 예로 영국은 분산형으로 영국통계청(ONS)은 여러 통계생산기관중 하나이므로 국가 통계시스템의 신뢰도 측정과 영국통계청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구분되어야 함. 대부분의 OECD국가는 분산형이므로 실무그룹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할 필요.
- (신뢰회복보다는 일상적인 신뢰 모니터링) 신뢰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예로 2005년 영국인 6명중 1명만이 공식통계가 외부 간섭없이 작성되며 3명중 1명만이 통계수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국가별 특성으로 인해 치유방법도 제각각 일수밖에 없으므로 실무그룹은 일상적 방법에 의한 신뢰 모니터링을 희망함.
- (모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정보) 대부분 설문조사는 분석편의를 위해 응답자의 기본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데 실무그룹은 최소한의 배경정보 변수를 추천함.
- (신뢰도의 해석 및 측정) 신뢰도 해석과 측정은 통계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는데, 신뢰도는 신빙성, 신뢰성, 시의성 그리고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
- (설문지의 간략화) 짧은 설문지는 비용부담, 보고부담을 줄이는데 바람직하며, 간략한 설문지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공통의 시사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짐

□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 공식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단일 정의는 없음
- 공식통계의 근본적인 신뢰 요소로서 세 가지가 있음
 - 구조적 요소: 통계의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등
 - 통계적 요소: 통계작성과정의 건전성 및 양질의 결과물
 - 평판적 요소: 중요통계를 국민에게 공표할 책무, 언론과의 관계, 부정확한 언론보도를 교정 등
- 개념화의 한계
 - 저급한 결과물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만 양질의 결과물이 단기간에 필연적으로 국민의 신뢰수준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음
 - 타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 또한 통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통계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 프레임워크
 - 외부요인 : 문화규범, 인식도, 과거 역사 및 경험 등
 - 내부요인 : 통계자료의 신뢰(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객관성, 관련성, 일관성)
통계기관 신뢰(비밀보장,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효과성)
 - 내부요인은 통계작성기관의 권한에 속하고 통계자료의 신뢰 및 통계기관의 신뢰를 통해 공식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가정과 추가사항

- 설문조사는 도급하여 실시
 -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일기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고, 통계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급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
- 설문조사는 인터뷰 진행자에 의해 진행됨(전화 또는 대면조사)
- 설문지는 각국의 통계시스템(집중형/분권형)에 맞추어 조정되어짐.
- 설문지의 인지 검사(cognitive testing)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검사결과 개요>

□ 방법론

- 인구특성(성,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유의표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 인지실험은 적은 표본으로도 조사표 평가가 가능한 연구방법으로, 동일과제에 대한 호주통계청 표본 규모 역시 14명 내외임
- '신뢰', '공식통계' 등에 대한 용어 이해도, 애매하고 불분명한 문항에 대한 대응 등

□ 주요 결과

- (조사표 적절성) 신뢰, 공식통계 등 핵심용어의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제시된 응답예시의 범위 혼동 등 확인, 개선 필요
- (대안제시) 이해곤란한 문항에 대해 질문유형의 변경(ex. 개방형→폐쇄형), 응답예시의 세분화, 대표통계 선정기준 등 제안

□ Method of the Survey

- Detaile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individually for a sample of size 15 people selected to reflect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nd education level.
- The interviews were based on the cognitive interview method utilizing the think aloud technique and the verbal probing techniques and special emphasis was placed on the following items.
 - Verified in detail how respondents understood the core words such as 'trust' and 'official statistics'.
 - Asked the respondents to explain how they understood the difficult parts or sentences that they felt ambiguous or vague.
 - Worked out free discussions on the parts whe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or where revisions are necessary.

□ Preliminary Findings

- Before the actual survey started, we asked the respondents how they understood the core word 'trust' and 'official statistics'.
 - Most respondents understood 'trust' as the same as 'reliable'.
 - As the most 'trustable' person, mostly they responded with family members and friends. Some others responded with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 Most did not have any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this question.
 - The major reasons for trusting (distrust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found to be that they are satisfied (dissatisfied) with the objectiveness, the stability, and the friendliness in the organization's works.
 - The major reasons for trusting (distrust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from the information through news media, personal experiences, and subjective trustfulness.
- Most respondents understood 'official statistics' as the same as 'reliable statistics for the public'.

<Examples of Answer>

- Statistics for the public and public life
- Statistics with the reliable process including sampling, etc
- Statistics with the national coverage
- Statistics made by the authorized institutes

□ OECD modules Preliminary Findings

【Module 1】

- To determine whether the selection items are adequate, we used open type question as well as closed type question for Q a-2
 - Most responded with 'a little'. When asked with more detailed questions to determine the cognition level, some showed higher level of cognition than 'a little' while others show the opposite. Thus, it is found that 'a little' seems to cover a wider range of cognition.
- In general, the respondents did not have much problem in answering Q a-3. Some regarded the expression 'used the statistics for personal purposes' as 'searched the home page of the Statistics Korea for a purpose of getting some statistics'.
 -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never used' had experiences in using the statistics as part of their talking subjects.
- Not much difficulty was observed in understanding the statement submitted to the respondents for Q a-5.
 - Most respondents understood 'the information I provide to Statistics Korea' as 'the personal or the business information that he provides as part of the survey'

question'. Some misunderstood that it was the information that Statistics Korea has provided to him.

- Responses to the term 'will be kept confidential' can be summarized as 'the private data (either personal or business data) will not be released in an easily identified form'.
- To determine whether the selection items are adequate, we used both open type questions as well as closed type questions for Q b-2. The results show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s.
- We suggest that '④ Often' in the Korean expression be removed since the term is not easily distinguishable from '② Once in a month', or from '③ Once in a year'

【Module 2】

- Some respondents could not answer the trust question immediately.
 - Some of the major reasons were that too many organizations had been presented, that there had been difficulties in identifying some of the organizations, and that the respondent had never thought about trust in the organization.
- When questions on subjects with large scopes such as the media, the government, public services, or the judiciary are asked, the respondents tended to answer based on their partial knowledge. This problem can be remedied by segmenting the subject organization into detailed groups.

<Examples of Segmentation into Detailed Groups>

- The media : Newspapers, Broadcasters, etc.
- Governments : Central government, City halls (village offices), etc.
- Judiciary : The Supreme court, Attorney, etc.
- Some respondents expressed that the 'public service' is a too large or a too vague term to answer any questions related to it.

- However, the term 'congress' is always assumed to be the national congress and was never confused with the representative houses in local governments. There were no difficulties with the organizations such as the Statistics Korea, Bank of Korea, or other banks.

【Module 3】

- To determine whether the selection items are adequate, we used both open type questions

as well as closed type questions. The results show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s.

- When asked whether they knew about the four official statistics with additional questions, most responded that they knew or heard abou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statistics on prices, but not about the GDP or the life expectancy.
 - When asked whether they trust the four statistics and repeated the same for the four Korean official statistics, some responded with changed answers.
 - The trust level is mainly determined from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various media and their personal experiences.
- The respondents had different concepts on the different statistics of the official statistics, and hence their responses could turn out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statistics is the subject.
 - Using the same statistics for all the nations will be good for many reasons, but it will be worth to check if using the most popular or the most used statistics in a particular country would be any better than the 'same' statistics.
 - To select the statistics, one can use the number of accesses to the related homepage or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media.

【Module 4】

- When asked about the second sentence the 'interference from politicians for their own gain', the responses turned out to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categories. H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ment is to be modified in order to improve its clarity.
 - Politicians use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es in a form that the results are favorable for their purposes.
 - Politicians interfered with the process of computing the statistics or over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es so that the results are favorable for their purposes.
 - Politicians try to interfere with the markets so that the resulting statistics will be favorable for the general public.

(Example) When the prices are too high, the government attempts to reduce the prices.

【Module 5】

<It gives me the information that I want>

- Some responded with they are 'useful information' even though 'not the information

that I w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 It does not change over time in unexpected ways>

- Even though this is a question to verify whether the respondent accepts that 'every statistics data is a time series reflecting its current status', most respondents ha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intention. Hence, it is better to be replaced by a statement which can be understood more easily.
- Also, the expression 'does not change over time in unexpected ways' is a double negation and would be better if replaced by ' changes over time in expected ways'.

<It is free from interference from politicians for their own gain>

- As in the case of one of the earlier questions, the responses turned out to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categories, so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ment be modified to improve its clarity.
 - Politicians use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es in a form that the results are favorable for their purposes
 - Politicians have interfered with the process of computing the statistics or over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es so that the results are favorable for their purposes
 - Politicians try to interfere with the markets so that the resulting statistics will be favorable for the general public

(Example) When the prices are too high, the government attempts to reduce the prices

<It gives results similar to other sources on the same topic>

- Most respondents did not have any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question. However, when they were asked to describe a specific example of the 'other source on the same topic', not many respondents answered.

【Module 6】

- Most respondents had no difficulty in answering to Q 4. However, they started responding with a question what was the period or starting date for the gross income. Hence, we propose that the question be replaced by "What is your gross income before tax last year?"
- Most respondents were not familiar with this type of question(Q 5) and some did not understand the terms 'private sectors' and 'public sectors'.
 - However, when an alternative question 'What type of work are you doing?' was

presented to them, most respondents answered the latter is much easier and clearer to understand.

- Most respondents had difficulty at all in answering to Q 6, and requested more clarification on whether this was their Metropolitan City, Province/Si, Gun, Gu/Up, Myun, and Dong(up to now Korea Administrative Regional Unit)/Rural. Also most respondents didn't know the approximate population of the region where they live. Thus it will be better if this question is changed to a open type question so that each respondent could specify the type of the region where he or she lives and provide the answer to the given question. The survey taker could record the population of the corresponding region after the questionnaire is completed.

의제 1/Rev1: 2011-12 CSTAT의 사업예산 운영계획(PWB)

주요 논점

- ◇ 2011-12 OECD 통계위원회(CSTAT)의 사업·예산 운영계획(PWB)의 주요 핵심 사업 및 우선순위 사업 선정 결과 보고
- ◇ 회원국에 2011-12 신규 활동 및 연구 중 우선순위 선정 요청

□ 추진 배경

- OECD 사무총장은 2011-12년 OECD의 전략방향(Strategic Orientation)을 발표하고 추진을 위하여 각 국(局)으로 하여금, 동 회기 예산의 1%를 삭감하여 중앙우선기금(CPF, Central Priority Fund)을 마련

OECD의 전략방향 5대 분야

- ① 관계강화(EE) 국가 및 G20 회원국 중 비 OECD 회원국과의 협력 사업 증대
- ②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 ③ 발전 지표, 녹색 성장 전략 사업
- ④ OECD 혁신 전략 및 성장 신동력에 관한 후속 조치
- ⑤ OECD 50주년에 걸맞은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 OECD 통계위원회 및 통계국은 OECD 전략방향 중 통계부문 핵심사업 추출을 위해 통계위원회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통계국의 핵심사업을 재그룹화(클러스터링, clustering)하여 8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

전략적 우선순위

1. 핵심 통계 정보 및 IT 생산 인프라 강화
2. 새로운 방법론 개발
3. EE 및 비OECD G20 회원국 통계사업 연계
4.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지표 개발
5. OECD 녹색성장 및 혁신전략
6. 커뮤니케이션 개선 및 보급 툴 개발
7. CSTAT의 조정 역할 강화

+

핵심사업

1. 국민계정 및 PPP
2. 선행종합지수 및 기타 단가지표
3. 국제무역비교가능 지표
4. 기업체·글로벌화 통계
5. 노동·가구 통계
6. OECD 통계 사업 및 기타 조정활동

⇒

8개 우선순위 사업

1. 국민계정과 물가지표
2. 무역과 경쟁력
3. 기업체기업가정산글로벌화 통계
4. 선행종합지수 및 기타 단가지표
5. 노동력통계
6. OECD 통계사업 조정 및 커뮤니케이션
7. 웰빙 및 사회발전측정
8. 녹색성장 전략신성장동력 지표

□ 8개 우선순위 사업 내역 및 관련 예산 (revised)

※ 보라색 표시 부분 : 신규사업

※ 파란색 표시 부분 : 예산 변동 및 항목 추가

(단위 : 천유로)

2011-12 Draft PWB & 우선순위 사업	2011					2012				
	Total	Part I	CPF	현물	신규 VC	Total	Part I	CPF	현물	신규 VC
1. 국민계정과 물가지표 1.1 연간국민계정 1.2 분기국민계정 1.3 분기 부문별 국민계정 1.4 PPPs와 물가 1.5 금융통계	2437	2287		150		2333	2283		50	
2. 무역 및 경쟁력 지표 2.1 상품 무역 2.1.a 무역규모 및 가격 2.2 서비스 무역 2.3 경쟁력 지표 2.4 한눈에보는 무역 및 경쟁력지표	1155	1155				1153	1153			
3. 기업체, 기업가정신 및 글로벌라이제이션 지표 3.1 기업가정신 및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3.2 기업체 데이터 3.3 글로벌라이제이션 지표	930	590		60	280	1019	589			430
4. 선행종합지수 및 기타 단기지표 4.1 선행종합지수 4.2 기업 및 소비자 Confidence 조사	543	543				543	543			
5. 노동력통계	662	462			200	661	461			200
6. 가입원칙, 정책 및 제도	198	198								
7. OECD 통계업무 조정 및 커뮤니케이션 7.1 OECD 통계이니셔티브 조정 7.2 주요경제지표(MEI) 7.3 OECD Factbook 7.4 SDMX 7.5 회원 가입, EE 및 G-20 통계 - 2011년 9월 러시아 가입 - 러시아, EE 및 G-20 국가통계 DB (2012년 말) 7.6 보급 툴(tools) : eXploere, wikis 등을 활용한 동적·시각화된 웹데이터 인터페이스 제공	1541	1126	254		161	1540	1125	254		161
8.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8.1 웰빙 및 사회발전측정에 신규 간행물 발간(2011년 중순) 8.2 가구 소득자원 및 생활 여건 및 지속가능성 연구 8.2a 단기가구생활수준지표개발 8.2.b 소득,지출,부에 대한 통합프레임워크 8.2.c 국민계정내 불평등 통합 8.3 삶의 질 지표 8.4 4차 OECD 세계포럼(2012년 하반기) 및 관련 지역 행사	1313	409	345	44	515	1394	408	311		675
9. 녹색성장 전략 지표 및 신성장동력 기여 9.1 녹색성장과 국민계정 9.1.a 핵심국가자원 9.1.b 환경계정 9.2 녹색 기업가정신 (2012 Q2 관련 논문 발간예정) 9.3 무형자산 측정	306	46	260			306	46	260		
합 계						9085				8949

※ VC:자발적기여금, CPF:중앙우선기금

□ 회원국 의견 수렴 결과 (괄호는 우리청 의견)

- OECD는 앞서 제시된 우선사업 중 신규사업 10개를 대상으로 회원국에게 우선순위 선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측 의견 기송부

- 의견 미 제출 : 호주, 칠레,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신규사업 내역	Part I* 자금 (그 중 CPF)	VC	회원국 직접 연계 필요	순위
1.3 분기 부문별 국민계정 · 분기 부문별 계정의 데이터수집, 유지, 보급 · 가구, 정부 및 기업의 분기별 정보 요구증대에 응하기 위한. Eurostat, ECB와 협력, 금융·비금융 계정포함 (2011 Q3)	156(0)		Y	4(2)
2.1.a 무역규모 및 가격 · 재화 교역(물량) 및 단가에 관한 DB 구축(2011 Q4)	53(0)		N	6(3)
3.1 기업가정신 및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 OECD-Eurostat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EIP) 포함, 관련지표 범위: 회원국, 관계강화국 및 G-20 회원국 등. · '한눈에보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a Glance) 발간 준비 (2011 Q1, 2012 Q2)	206(0)	210	Y	8(1)
7.2.a 단기가구생활수준지표개발 · Prototype Survey (2011년 말), 일부 회원국에 시범조사 실시	114(81)		Y	7(4)
7.2.b 소득,지출,부에 대한 통합프레임워크 · 2012년 중 CSTAT의 전문가 그룹(캐나다 제안) 결성하여 methodological report 완성	20(3)	118	Y	3(6)
7.2.c 국민계정내 불평등 통합 · CSTAT에 관련 보고서 제출 (2012년 중순)	114(81)		Y	2(7)
8.1.a 핵심국가자원 · OECD 환경국과 공동 수행, 주요자원추출 및 생산력에 관한 자산 기준 모니터링 · '자원상태 및 자원생산력'에 관한 보고서(2012 Q2)	130(130)		N	9(10)
8.1.b 환경계정 · 통합 환경변수 개념틀 개발, SEEA 2003 업데이트 · 확대성장 계정 접근(2011 Q4) 및 SEEA 수정안(2012 Q4) ※SEEA : Handbook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2003	130(130)		N	1(8)
8.2 녹색 기업가정신 · 녹색기업가정신 관련 Working Paper(2012 Q2)	32(0)	130	Y	10(9)
8.3 무형자산 측정 · 무형자산 및 성장계정에 관한 working paper (2011 Q4), 일부 국가에 관한 실증적연구 이행(2012 Q4)	130(130)		N	5(5)

참고 1 CSTAT의 우선순위 선정 원칙

▶ 제1원칙

1. CSTAT 회원에 의해 발의된 이슈나 토픽
2. OECD가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여타 국제 통계 포럼에서 발의된 이슈나 토픽
3. CSTAT 및 통계국의 통계 전문가와 연계된 분야의 타 OECD 위원회나 각 국(局)에 의해 발의된 이슈나 토픽
4. OECD 사무총장이나 이사회에서 발의된 이슈나 토픽

▶ 제2원칙

연구프로젝트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고품질 개념적, 분석적 연구를 수행 하므로서 OECD의 강점을 강화시켜야 하며, 다른 국제기구가 행하는 연구와 중복 되지 않아야함.

▶ 제3원칙

연간 사업운영안은 CSTAT 회원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지원받거나 보전받는 등 통계국에 예상 가능한 2년간의 재정자금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 제4원칙

각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 일정표,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정의되어야 함.
장기(다년) 연구 프로젝트는 동 원칙을 따르는 하위 프로젝트로 세분화되어야 함.

참고2 OECD의 예산 편성 개요

▶ 회계연도는 매년 1.1~12.31, 복년도(2년) 예산 편성·운영

- Part I :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Part II :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비정규 예산 :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이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한 예산

▶ 예산 및 분담금

회원국 경제규모(최근 3년간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분담률 산정.
우리나라 분담률(Part I 기준) : 2.544%(2006), 2.297%(2007), 2.415%(2008, 9위)

[No. 1/Rev1] Comments on the Draft Program of Work and Budget for 2011-2012

< Applaud on the document >

Statistics Korea would like to applaud the efforts of the STD of the Secretariat for putting together a very clear and informative presentation on the Program of Work and Budget for the biennium. The Document gives a great help to the Committee Members in understanding where we stand and where are headed for in terms of OECD statistical work.

< On the importance of the coordinating role of the Statistics Directorate >

Korea would like to take note that many new activities and research work envisaged for the biennium will need to be carried out mainly by other Directorates of the OECD. Although the Statistics Directorate (STD) will be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them, a big chunk of the work has to be implemented and monitored in other Directorates. This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the STD's coordinating role. We'd like to ask the STD to see to it that the relevant Directorates are fully committed to main streaming those statistical projects into their work and making progress and following up on them via adequate allocation of physical resources and staff time.

의제2: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범OECD 프로그램(2011-2012)

주요 논점

- ◇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위해 범OECD 차원의 프로그램 착수 배경과 향후 2년간(2011-2012) 수행하게 될 주요 업무 내용을 기술

□ 착수 배경

- 호주,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을 사용하여 국가 발전을 계량화함
 - ※ 사례: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미국), 스티글리츠 위원회(프랑스)
- 2009년 10월 부산,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발표되었고, 같은 시기 EU는 “GDP and beyond - measuring progress in a challenging world”를 EU의회에 보고한 바 있음

□ 전략적 추진 배경

- OECD 사무총장은 최근 ‘전략방향(Strategic Orientation)’ 보고서에서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향후 2년(2011-2012)의 주요업무로 밝히며 통계국의 업무 수행을 요청
- 프랑스 정부는 스티글리츠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OECD가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비용은 프랑스 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 유럽통계처(Eurostat)와 프랑스 통계청(INSEE)은 공동으로 “사회발전, 웰빙 및 지속가능한 개발 측정(Measuring progress,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후원회를 구성

□ 범OECD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이와 관련하여 통계국은 “웰빙과 사회발전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of Societies)” 문서에 유관 프로그램을 설명. 여기에는 기존

통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업무 및 다음과 같은 3차원으로 추진 할 연구 개발 업무가 포함됨

- 경제적 자원 - 가구별 경제상황 변동을 쉽게 파악할 새로운 기법 개발
- 삶의 질 - 각국 통계청이 웰빙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지침 개발.
- 지속 가능성 - 인적자원 보유현황 및 소모성 자연자원의 보유량과 흐름에 대한 보다 나은 측정법 개발

○ OECD 내 각 부서의 참여 내용

국 명	참여 내용
DELSA (고용/노동/사회국)	사망률 집계 및 극빈 상황에 대한 취약성 정도 측정 추가
ENV (환경국)	환경여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측정, 자연 자원과 환경자원의 변화 측정법 개발
ECO (경제국)	'Going for Growth' 보고서에 기술된 비시장 활동에 관한 각종 지표 통합
EDU (교육국)	교육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법 개선
GOV (지역개발국)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 기관별 시민의 신뢰도, 부패 수준 지표 등의 개선 방법 검토
DCD (개발협력국)	웰빙 및 사회 발전 측정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진
DEV(OECD개발센터)	'2011 World Development Outlook'에서 개발국에서의 사회적 화합 및 배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
STI(과학, 기술, 산업국)	기술적 진보 및 혁신 무형자산의 측정과 ICT에서 국민의 참여확대 측정 지표 개발

- OECD 내 각 부서 및 여타 국제기구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나, 여름 이전 완료하여 예산 위원회에 제출 예정
-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자체는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반영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 OECD 설립 50주년인 2011년, 동 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

검토의견 : [No.2]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범 OECD 프로그램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 향후 2년간 추진계획

- OECD에서 향후 2년간 “웰빙과 전체사회 발전 측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헌신할 계획임
 - 프랑스의 스티글리츠위원회 CMEPSP 보고서 이후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에서 OECD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프랑스의 위원회나 여러 지원집단과 이 어젠더를 공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임
 - CMEPSP와 OECD Grobal Project의 연구는 상호보완적이고, 또한 협력을 통해 21세기에 적합한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통으로 수렴되고 있는 핵심적 관심영역 (Economic Resources, Quality of life, Sustainability) 설정은 이미 상당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두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틀(framework)을 보면, 사회지표 발전 단계로 볼 때 물질 단계(material stage), 사회단계(social stage), 지구촌 단계(global stage)를 모두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본 프로젝트의 결과가 구체적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이에 대한 새로운 측정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필요성 지적
 - 이 주제에 대한 지금의 정책환경이 전문가나 학계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측정과 정책결정자의 영역으로 관심을 이동할 시기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
 - 특히 OECD 50주년인 2011년에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와 그 구체적인 결과물의 출판을 기대함

□ 검토의견

-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보고서나 OECD 글로벌 프로젝트의 텍사노미에서도 계기판(dashboard) 지표제시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음
 - GDP를 넘어서고,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하는 웰빙과 사회발전 종합지표 (composite index)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분석들과 함께 하위 영역((Economic Resources, Quality of life, Substantiality)에 대한 이론적 분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또한 현재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검토하고 있으나 이들 영역간의 관계 설정과 함께 개별 지표의 가중값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비 EU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ODED 회원국의 의견수렴이 필요
 - 기존 계획을 보면 향후 2년간의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등 EU 가입국가들에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OECD 글로벌 프로젝트의 논의가 결과적으로 회원국의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OECD의 2년간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제시되면, 한국의 경우 적극적인 반응을 위해 스티글리츠위원회와 OECD 사회발전 측정 연구결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

[No.2] Comments on OECD-wide Programme on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of the Societies

- This OECD's strategic plan for making progress followed by the outcomes of the Stiglitz Commission and the 3rd OECD World Forum held in Korea last year seems desirable and KOSTAT welcomes it.
- In particular, we agree that this is the time to take one step further to reflect this agenda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o encourage policy makers to pay attention to this. KOSTAT looks forward to having the new statistical publication to be issued in 2011, which i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ECD.
- However, still the reports from the Stiglitz Commission and the OECD Global Project are limited in just proposing dashboard indicators. More detailed and structured logical frameworks for the 3 main sectors(Economic Resources, Quality of Life and Substantiality) should be established. Also, more practical way to make the connection among 3 sectors and weight them respectively would need to be proposed.
- Also, any opinion from Non-EU member stat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it seems OECD's strategic plan over the next 2 years is led by mostly EU countries including France.
- If the OECD proposes more detailed way to measure well-being and progress of the societies under this programme, KOSTAT is willing to adopt this global agenda to the policy-making process at the national level. We will keep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is programme.

의제 3 소득·소비통계에 관한 캐나다 통계청 보고

주요 논점

- ◇ 사회발전 측정을 위해서는 우선 “가계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 소비, 자산 등의 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 캐나다 통계청은 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데이터 베이스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권고안 제시 및 각 국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OECD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

□ 배 경

- 프랑스 특별경제자문위원회인 “스티글리츠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발전 측정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 사회의 웰빙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웰빙을 고려할 수 있는 측정방안이 고안되어야 함을 강조
- 이와 관련하여 소득분배 및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가계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안 마련 필요 강조
- 캐나다 통계청은 최근 인구고령화 추세, G20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글로벌경제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가계 재무건전성 측정”에 대한 관심 등과 함께 소득·소비통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

□ OECD의 역할

- OECD는 보다 총체적인 수준에서 소득·소비·자산의 상호작용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

- 소득과 자산의 측정 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잠재 소득”에 대한 개념을 자산의 개념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 필요
- OECD는 회원국에 소득·소비·자산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
- OECD는 회원국에 소득·소비·자산 통계 보급에 대한 기준 및 권고안 마련

□ 캐나다 통계청의 제안

- OECD는 기타 국제기구와의 공조와 적극적인 개입 등을 통하여 소득·소비·자산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소득·소비·자산 통합계정 및 측정방안 연구 사업에 관심이 있는 각국 전문가 그룹과 OECD와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OECD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고

검토의견 : [No.3] 소득·소비통계에 관한 캐나다 통계청 보고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논의 배경

- 현재의 GDP로써는 삶의 질 평가에 한계 직면(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등)
 - '가계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 소비, 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조사 개발 필요

□ 캐나다 통계청 제안 및 OECD 역할 강조

- 캐나다 통계청은 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조
- OECD는 회원국에 소득, 소비, 자산 통계 보급에 대한 기준 및 권고안 마련

□ 주요 이슈

- 소득, 소비, 자산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연금' 등을 포함한 잠재적 소득과 자산 개념 도입
- OECD는 통합 측정에 대한 권고안 마련 및 회원국의 긴밀한 협조 요망

□ 우리청의 입장(의견)

□ 한국은 캐나다의 Household Financial Security Survey, ECB의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와 유사한 가계금융조사 (Household Finances Survey)를 금년부터 연간주기로 실시

- 가계의 자산 및 부채의 구성과 분포,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 특성, 경황 상태, 자산, 부채, 대출조건, 소득, 소비 등 조사
- 소득은 임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및 사전 이전소득으로 구분 조사
- 지출은 가처분소득 산출을 위하여 비소비지출(조세 등)만 조사
 - 소비지출도 국제분류(COICOP분류)에 따라 구분조사 시도했으나 시험

조사 결과 기억력 한계에 따른 응답어려움 때문에 포기

- 횡단 및 종단(패널) 분석이 가능한 표본관리 및 추정방법에 대하여 검토 중
- 민감한 조사내용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 그에 따른 조사결과의 정확성 문제 등의 극복을 위한 조사방법 및 조사표 설계; 조사의 범위, 방법 (예, 향후 상속, 증여받을 가능성 등 포함여부 및 방법; 연금, 보험 등의 자산적 가치 조사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연구, 각종 개념 및 방법의 표준화 필요
-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예-세금)등을 표본조사로 파악
- 동 조사로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산 내용 파악 불가
-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가계금융조사를 매년 실시
- 통계의 직접 수요기관*들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자산, 소득 및 지출 항목 파악(100여개 항목)

⇒ 소득, 소비, 자산 등을 동시에 파악 가능한 가계금융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 국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계의 웰빙' 측정 및 '가계 재무 건전성' 측정가능
◆ 향후 캐나다, OECD등 국제 기준의 측정 방법 및 내용을 통일하여 정확성,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겠음

**[No.3] Comments on AN INTEGRATED FRAMEWORK ON INCOME,
EXPENDITURES AND WEALTH**

- Data from conventional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s are not sufficient to gauge household wellbeing and financial soundness for the lack of information on net wealth. The proposed integrated framework will tackle this problem effectively.

- To tackle this problem, Statistics Korea has implemented the Household Finances Survey for the first time in May this year, in collaboration with the Bank of Korea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100 items are surveyed to collect information on wealth, incom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 This annual survey will produce basic information to analyze the linkage between income, expenditure and wealth,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measurement of household well-being.

- By adop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proposed by Canada under the integrated framework, we hope to ensure and improve the accuracy and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the data.

의제 4: OECD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표

주요 논점

- ◇ OECD 각료이사회는 2011년까지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녹색성장선언을 공표(2009년)
- ◇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표는 생산환경효율성, 소비환경 콘텐츠, 천연자원, 삶의 질 환경 등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구성

□ 개 요

-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며 이는 OECD의 ‘사회발전측정’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녹색성장 지표는 ‘정책정합성’, ‘분석건실성’ 및 ‘측정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각 국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됨
- 녹색성장 지표셋은 다섯분야로 구성되어 (i)생산의 환경적 효율성과 생산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 (ii)소비의 환경적 효율성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 (iii)천연자원보유량과 생물다양성을 기술하는 지표, (iv)환경적 삶의 질을 모니터 하는 지표, (v)정책대응 및 제도 모니터링 지표 등으로 구성

□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지표셋(5가지)

- 생산환경의 효율성 모니터링 지표
 - 자원의 생산성과 환경적 효율성에 관한 측정을 포함하며 비슷한 생산 공정을 가진 산업부문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 소비환경의 콘텐츠 모니터링 지표
 - 경제성장은 소비자 선호와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이끌어져 왔으며 이제는 소비의 환경적 효율성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 과거 포커스는 생산물의 CO2 함량이었으나 최근에는 생산물에 내재된 천연자원과 잉여물까지 분석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 삶의 질 환경의 모니터링 지표

- 삶의 질 환경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지표는 첫째, 삶의 질 환경에 대한 사람의 인지를 반영해야 하고, 둘째 환경의 질이 주관적인 웰빙측정의 결정요인중 하나라는 것임.

○ 천연자원보유량(stock)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지표

- 녹색경제 추구에 있어 유입(flow)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보유량(stock)도 지속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 천연자원의 stock-flow 정보도 모니터링할 필요
- 생물다양성 지표는 물리적·금전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의 대응 모니터링 지표

-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주체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녹색혁신과 기술'에 관한 지표와 '공공·민간의 소비와 이전'에 관한 지표로 구성
- '녹색혁신과 기술' 지표 : 기술전수와 활용, 녹색기술 특허권, 연구개발 비용 등 포함. 이 지표는 친환경적 혁신, 특허와 지속가능한 제조업을 기초로 함
- '공공과 민간의 소비와 이전' 지표 : 자본 지출, 세금, 수수료, 요금, 보조금을 포함.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수입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민간과 공공의 지출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축적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논의사항

- OECD의 녹색성장전략(GGS)에 대한 의견
- OECD 녹색성장지표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 각 국에서 수행중인 유사 사업 사례

검토의견 : [No.4] OECD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지표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 논점 (a) : OECD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의견

- OECD의 '개념틀 개발'과 '평가 지표 개발'은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올바른 시작방향으로 생각함
- 한국도 국가수준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녹색성장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 논점 (b) : OECD 녹색성장지표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 제안된 틀은 경제적 산출(economic output)을 경제자원과 사회자원, 환경자원의 투입을 연계 분석 가능하게 하는 분석틀로서 개념적으로 매우 잘 정리됨
- 그러나, 환경이나 생태계 서비스 요소 투입을 경제적 산출과 일관성 있게 연계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측정의 한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 녹색성장은 기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념틀에서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 산업육성 등 경제성장 부문이 강조된 것으로, 새로운 개념 정립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가깝다.
 - 따라서 새로운 개념틀에 따른 지표 체계의 개발보다는 구체화된 국제적인 정책 의제들의 주제 분류를 분석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국제적으로 합의하기 쉬운 지표 체계가 될 것(예: 한국 녹색성장지표 체계)

□ 논점 (c) : 각 국에서 수행중인 유사 사례

- 한국통계청에서도 녹색성장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지표선정은 2010년, 지표작성은 2011년 완료 예정임
- 지표 분석틀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정책주제 분류와 동일하게 구성

* 녹색성장지표 분석틀



-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 모델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설립을 추진(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 이명박 대통령이 2009.12.17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GGGI의 설립 계획을 공표

[No.4] Comments on Indicators for the Green Growth Strategy

Point (a): OECD's work on its Green Growth Strategy(GGS)

- We agree that it is the right direction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for green growth and relevant indicators to monitor progress with green growth.

Point (b):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icators

- The proposed framework links, in concept, the flows (input/output)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We agree that it is a well designed conceptual framework.
- But, in practice, it is not easy to connect one environmental input with an economic output consistently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knowledge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
- ※ The Green growth is an action plan for growth rather than a new concept for development. It focuses on higher economic growth with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we suggest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uses the categorized themes of global agenda for green growth. It would be more a pragmatic way to achieve consensus among countries, and an analytical framework of green growth indicators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see the box below and annex) would be one of the good examples.

Point (c): Relevant work has been carried out at the national level

- At Statistics Korea, green growth indicators are under development, by utilizing the categorized themes of the Green Growth National Strategy.
 - The list of selected indicators will be finalized by 2010, and statistical data for each indicator will be compiled by 2011.

*** Analytical framework of green growth indicators in Korea**



- The Korean Government approved the budget plan for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during the cabinet meeting in May 2010 and thereby, has come a step closer to launching the GGGI, an organization that aims to systematize various theories on Green Growth and disseminate Green Growth models around the world.
 -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this plan for establishing the GGGI during his keynote speech at the UNFCCC COP 15, held in December 2009.

[붙임 : 녹색성장지표 개발현황]

1. 개발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전략으로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2013)”의 시행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요구

2. 개발방향

- 녹색성장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지표 개발의 주목적이므로, 정책 주제 분류를 지표 분석틀로 정함
- 지표의 선정은 기존의 유사지표*로 지표Pool을 구성하여 선정
 - *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성과지표, 환경지속성지표, GRI 가이드라인 등
- 지표는 종합지표-국제지표*-세부지표**의 구조를 가짐
 - * 종합지표 중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
 - ** 종합지표 중 산업이나 분야별 세분이 필요한 지표들로 구성

3. 잠정치표

주제	소주제	지표명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 1인당 에너지 연간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연간 취수율, 1인당 물 소비량, GDP 대비 물 소비량, 식량자급률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정부 녹색기술개발투자 규모, 전체 R&D 예산 대비 환경 R&D 예산, CCS에 의한 탄소저감량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자원생산성, GDP 대비 산업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GDP 대비 용폐수 배출량, 농약사용량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인증업체 생산액, 녹색인증업체 종사자, 녹색인증업체 수, 지식집약산업 GDP비중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펀드, 녹색 기술 산업 연구인력 양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품,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국토, 교통조성	GDP 대비 공공환경오염방지지출, 연간 조림 실적, 철도 교통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친환경인증건축물 건축 비중
	생활의 녹색혁명	자전거 도로율, 1인당 생활폐기물, 1인당 가정에너지 사용량,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1인당 생태발자국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GNP 대비 녹색 ODA 비중, CDM 온실가스감축량

[Annex : Status of development of green growth indicators KOREA]

1. Background

- With enactment of “Low carbon Green growth Act” and implement of "Five year(2009~2013) action plan for green growth(GG)”,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performance of green growth policies is needed.

2. Outline of development

- Because the main purpose of the development is evaluating performance of the GG policies, the categorized theme of GG policies are used for analytical framework of GG indicators.
- Indicators are selected from the indicator pool which is made by similar existing indicators*.
 - *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OECD environment indicators, and so on.
- The GG indicators can be categorized into 3 groups: comprehensive, international*, and sectoral** indicators.
 - *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dicators among comprehensive ones
 - ** indicators that can be broken down by sectors or some sub categories

3. Tentative indicators

Theme	Sub theme	Indicators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energy independence	Effectiv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GHG emission per capita GHG emission per unit of GDP GHG emission
	Reduction of the use of fossil fuels and the enhancement of energy independence	Energy use per unit of GDP Energy use per capita Share of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Withdrawal of ground & surface water of total available water Water consumption per capita Water consumption per unit of GDP Degree of self-sufficiency of food
Creating new engines for economic growth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Government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Share of green R&D of government budget Carbon capture and storage
	The "greening" of existing industries and promotion of green industries	Unit of material per unit of GDP Generation of industrial waste per unit of GDP Share of recycling & reuse of waste Industrial waste water per unit of GDP Use of agricultural pesticid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Production of green certified enterprise Employment of green certified enterprise Number of green management certified enterprise Share of GDP of knowledge intensive industry
	Engineering a structural basis for the green economy	Fund for green technology certified enterprise Number of trained worker in green technology Number of energy efficiency marked product Number of certified carbon labeling product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enhanced international standing	Greening the land, water and building the gree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Government environmental expenditure of GDP Annual forestation area Public transportation modal split Rail modal split Share of certified green building of total construction
	Bringing green revolution into our daily live	Stock of bicycle road Domestic solid waste per capita Domestic energy use per capita Domestic water waste per capita Ecological footprint per capita
	Becoming a ole-mode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green growth leader	Share of green ODA of GNP Reduction of GHG by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의제 5 : OECD 금융통계(FINANCIAL STATISTICS)

주요 논점

- ◇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시의 적절한 금융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생산이 요구됨
- ◇ 이에 따라 OECD는 통계위원회에서 금융통계관련 활동을 점검하고 현재 금융기업국에서 운영 중인 '금융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 WPFS)'의 통계국 배치를 논의하고자 함

□ OECD 통계국의 금융통계 관련 활동

- OECD 통계국은 국민계정을 비롯한 가구자산과 부채, 기관투자자의 자산, 은행 수익률, 중앙정부 부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 금융위기로 인한 단기 자료(분기별 자료 등)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론적 공백 등을 보강하고자 이를 향후 2년간(2011-2012)의 활동에 포함시킴

□ OECD 내 금융통계 관련 업무구조

- WPFS는 OECD 통계국 내 금융통계팀과 협력하여 금융통계에 대한 컨설팅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나 실제로는 OECD 금융기업국에서 운영하는 금융시장 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 CMF)를 모기관으로 함
- WPFS를 통계위원회 산하 그룹으로 두는 것에 대해 CMF와 논의 중

□ 향후 2년간(2011-2012)의 활동 계획

- OECD는 향후 2년간 금융통계 수집 주기, 범위, 데이터 관리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

□ OECD 통계위원회 시 논의 쟁점

- 현재까지의 OECD 통계국 내 금융통계관련 활동
- 향후 금융통계관련 추진 계획 및 이에 관한 신규 자료수집(new data collection), 수집 주기(frequency), 방법론적 이슈
- WPFS의 통계위원회 산하 배치 시 장단점 및 현 구조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No.5] OECD 금융통계 관련 검토의견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

- **논점 (a): WPFS와 협력하에 OECD 통계국이 수행한 금융통계관련 사업에 관한 의견**
 - WPFS의 각국의 금융통계에 대한 조정 및 컨설팅 업무 수행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각국의 금융통계 편제현황 조사 및 정보공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음

- **논점 (b): OECD 사무국 향후 활동계획에 관한 의견**
 - 신규 자료수집과 관련해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음
 - 수집주기와 관련해 분기자료의 송부 가능함
 - 추계방법론과 관련해 추계방법의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음

- **논점 (c): WPFS의 통계위원회 배치 시 장단점 및 현 구조에 대한 의견**
 - WPFS가 실제로 OECD 통계국의 금융통계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UN,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통계가 편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WPFS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No.5] Comments on Financial Statistics

- Point (a): note of the work carried out by the financial statistics unit in STD, under the auspices of the WPFS**
 - We think it is desirable for WPFS to carry out adjustments and consultation about OECD members' financial statistics. We also believe WPFS has to play a central role in studying meta-data about the financial statistics and sharing its information.

- Point (b): views on the proposed refocusing of future work on Financial Statistics, taking into account demands for new data collections, including new frequency, and methodological work**
 - We are ready to cooperate to provide new data as much as we can.
 - We can provide quarterly data.
 - We are ready to cooperate to share the methodology for making financial statistics.

- Point (c): pros and cons of a possible affiliation of the WPFS to CSTAT versus its current affiliation to the CMF**
 - We think it is desirable that the arrangement should help WPFS's activities, considering that WPFS executes its duties in cooperation with Financial Statistics Unit of OECD Statistics Department and that those statistics are complied under the standards set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 IMF and OECD.

의제 6: OECD 혁신전략과 측정에 관한 아젠다

주요 논점

- ◇ OECD가 진행 중인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와 관련하여, 포괄적 개념의 혁신과 그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새로운 지표개발을 추진
- ◇ 위원회는 각 국 통계청과 함께 OECD의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혁신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배경

- OECD는 포괄적이며 공동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도전과제(기후 변화, 보건, 식량안보, 빈곤 등)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착수('07)
- 또한, 현존하는 혁신 측정 지표들이 혁신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다양성과 연계성을 나타내지 못함을 인식하고 포괄적 범위의 혁신과,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낼 새로운 지표개발을 추진
- 이번 통계위원회에서 OECD는 혁신 측정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진전된 논의를 보고하고 새로운 지표개발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혁신을 위한 측정 아젠다 : 5개 주요 활동

- 광범위한 혁신의 측정 및 거시경제수행과의 연계 증진
 - 무형자산 측정 및 평가, 혁신 관련 조사 (재)설계가 필요한 영역 확인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재고, 조사와 행정 데이터간의 집계 연계 등
- 혁신의 결정요인과 효과 측정을 위한 고품질, 포괄적 데이터 인프라 투자
 - 사업체등록 개선, 행정자료의 통계적 잠재력 활용, 기업과 개인의 기밀을 보호하면서 연구목적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 공공 분야에서 혁신의 역할 인식 및 측정 개선
 - 공공서비스, 보건, 교육 등 공공 분야 혁신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 혁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성격과 방향, 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고안 등
- 새로운 통계기법 고안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
 - 복잡한 기업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혁신활동의 측정 개선, 혁신적인 업무에서 필요한 능력 측정, 신종기술과 요소기술(emerging and enabling technologies)의 통합 측정 개선 등
- 혁신의 사회적 목표와 사회적 영향 측정 개선
 - 사회의 요구를 담아내는 혁신 측정 개발, 혁신의 경제·사회 영향을 있는 측정법 개발 등

□ 토의 주제

- 무형자산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현존하는 조사의 재설계 또는 신규 조사의 필요성
- 기업의 활동 및 복잡한 기업구조 중 혁신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체 자료(business registers)(특히, 소유구조 등)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혁신 관련된 기업체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시키는 방안
- 혁신과 관련된 기업체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때 이를 개선한 사례
- 데이터 수집에 있어 사업체 단위 뿐 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 사업 기능별 또는 특정 네트워크 등을 측정단위로 할 수 있을 가능성
- 혁신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 (예, 고용자와 고용인 조사의 통합 활용 등)

검토의견 : [No.6] OECD 혁신전략과 측정에 관한 아젠다

- **논점 1 : 무형자산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혁신분야 중 조사 설계 또는 재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재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1) 연구개발활동조사(KISTEP 주관)와 2) 한국기술혁신조사(STEPI 주관,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분류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의 기술분류와 산업분류의 매칭, 한국기술혁신조사의 조사주기 단축(3년→2년), 비기술적 혁신 항목 등)
 - 최근에는 R&D 투자를 포함한 무형자산의 자본화와 국민계정상에서의 투자지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중에 있음. 국제적으로 SNA에서 무형자산의 투자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계정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국민계정의 투자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중에 있음. 특별히 Frascati Manual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R&D 투자를 국민계정상의 투자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조사가 재설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향후 부처간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혁신 조사, 전통적인 기술혁신과 대비되는 비기술적 혁신에 대한 조사 및 서비스 혁신에 대한 조사 재설계 등 새로운 혁신 형태에 대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논점 2** : 기업의 활동 및 복잡한 기업구조 중 혁신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체 자료(**business registers**)(특히, 소유구조 등)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혁신 관련된 기업체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시키는 방안
(조사관리국 행정자료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업체 행정자료의 품질제고 활동_행정자료팀>

- 통계청에서는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여 통계조사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처음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10종을 입수하여 DB를 구축하여, 동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체조사 등 경제통계조사의 항목대체, 보정 등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6종을 입수하였으며, 현재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적자료에 대한 산업분류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음
* 국세청의 업종분류(소분류, 880개),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1,145개)
- 향후 표준화(안)을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개정하는 경우, 통계청은 세적 자료에 대한 업종변경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세청에서도 매년 사업자의 업종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최신자료로 갱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연구개발활동조사 관련_KISTEP>

- KISTEP 주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명부를 대상으로 함. 또한 병원,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 등을 기본 명부에 추가하여 전수조사 실시.

- 따라서, 기업 명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소유 구조 등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드는 것인데 이 경우, 기업이 인센티브를 포기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 있음

<과학기술혁신조사 관련_STEPI>

- 기업단위 통계에 대한 Control tower의 역할이 필요
 - 혁신조사를 실시하는 책임기관에서 기업 ID(사업자등록번호)를 근간으로 기업단위 연관 데이터(상장사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자료 등)를 통합하여 확장시키려는 자구노력을 실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국가 연구기관들의 다수의 설문조사는 조사예산의 중복성, 피조사자의 중복설문에 따른 비용과 그로인한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를 야기
 - 따라서, 기업단위의 신뢰성 있고 통합적인 국가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단위 통계에 대한 Control tower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이를 통해 기업단위의 전반적이고 공통적인 조사항목과 각 세부연구 분야별 조사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의 혁신활동을 보다 더 잘 측정하고 매핑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
 - 기업이 제출하는 다양한 자료를 연결하는 핵심인 사업자등록번호의 효율적 활용체계 수립이 필요함.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폐업 관련 정보를 인증된 연구기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 : 정부차원의 서비스시스템 구축 필요
 - microdata를 활용한 dataset 구성 시 반드시 필요
 - 사업체 산업분류를 실질적 운용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산업분류를 연계
 - 현재의 주생산품이 해당 기업의 현재 산업분류가 되도록 유도필요
 - 사업체 설립시 산업분류를 계속 사용하면서 주생산품이 변경된 경우

통계조사 결과 활용시 오류발생 원인이 됨

- 기업의 특허출원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필요
 - 기업혁신의 주요 성과인 기업의 특허정보를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없어 특허정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무엇보다도 통계조사기관간 microdata 활용에 대한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장치 마련 필요
 -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필요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통계담당자간의 data 공유 의식형성이 필요함

□ **논점3** : 혁신과 관련된 기업체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때 이를 개선한 사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우수사례는 없고 반대의 사례가 있음
 - 기업 혁신역량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활동조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관련 microdata 협조를 자료 보유 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업무 협조가 전혀 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필요기관이 재조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기업 민원사항)
 - 연구기관들이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통계법적인 장치가 필요함

□ **논점4** : 데이터 수집에 있어 사업체 단위 뿐 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 사업 기능별 또는 특정 네트워크 등을 측정단위로 할 수 있을 가능성

- 현재로서 국가통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봄

□ **논점5 : 고용자와 고용인 조사의 통합 활용 등 혁신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혁신전략 측정 아젠다’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고용의 공급자인 가구의 피고용자(employee)와 수요자인 사업체의 고용주(employer)에 관한 동향 파악은 노동수요·공급 정책에 필요함
- 공급자(가구) 조사는 현재 일자리 및 희망직업 및 산업 등을 파악하고, 수요자(사업체) 조사는 빈일자리 및 추가 일자리 등을 조사하여,
 - 노동력 수요·공급 mismatch 분석 등 상호비교 분석을 통한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No.6] Comments on THE OECD INNOVATION STRATEGY AND ITS
MEASUREMENT AGENDA

Point (1): new surveys that would need to be carried out or existing surveys that would need to be re-designed

- Currently, Korean Government is conducting two surveys in order to measure innovation; a) Surve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b) Korea Innovation Survey.
- Capitalizing intangible assets such as R&D investment and reflecting them to SNA as an indicator for investment is in progress. To achieve this goal, the Surve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 to be re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the concerned ministries.
- In addition, innovation in public sectors and non-technical innovation would need to be carried out to cover all types of innovation. However, it is still under discussion.

Point (2): Quality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esources in Establishments

-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in statistical production, Statistics Korea has been establishing a DB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economic survey by collecting the resources of taxation and administration since 2009. Statistics Korea i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o use the DB as

substitution to selected parts or in calibration.

- Especially, the Division systematized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of taxation by amending the law. Now resources of taxation can be used for survey. Upon this new institutional basis, six types of resources including business registration, V.A.T and corporate tax register can be collected. The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classifications based on the tax books data(稅籍자료) is in progress and will improve the current usage of resources.

* Business categories of National Tax Office(880 types),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1,145 sub-classes)

- In the case of adjusting business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tandardized system afterwards, Statistics Korea will support the work required as a result of any changes in the taxation process. The National Tax Service is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updating their resources by checking the changes made in the type of business.

- Surveys sponsored by KISTEP on the activities for research development are conducted with the list of the names of research institutes registered in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and the enterprises that have research department(s). The names of hospitals and national/public research institutes are added in the basic register, and a census is conducted also with this register.

-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business register, incentives are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or questionnaire sheets are developed to cont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properties of an enterprise. There still exists a limitation, however, which an enterprise can choose to give up the incentives rather than provide its information for a census.

Point (5): Possible usage of the resources created by mismatches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labor

- We generally agree with the opinions described in the "Innovation Strategy Measurement Agend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for policy making concerning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 The survey of supply(households)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industrial aspects of labor as their current and expected occupations.
 - The Survey of demand(establishments) aims at tracking available positions.
 - Analysis on mismatches and comparison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의제 7 : 기업체통계와 기업가정신

주요 논점

- ◇ OECD에서 오랫동안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온 대표적인 분야인 기업가정신지표(EIP,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에 관한 보고
- ◇ 그 외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분야 및 접근성 관련 이슈

□ 기업가정신지표 프로그램 (EIP)

- 기업의 행태, 생멸 및 기업가정신 관련 데이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OECD는 2006년 EIP를 발족하고 이를 OECD-Eurostat 연합 이니셔티브로 확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ing(GEM) 등과는 달리 광범위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기업가의 역동성과 중요성 등을 인식
- ‘기업가’, ‘기업가적 활동’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물론 기업가정신을 ‘결정요인’, ‘성과’ 및 ‘효과’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별 지표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 다른 국제기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계은행 등 현존 자료 활용
- 이를 위해 ‘성과’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기업체 생멸통계가 활용되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통계청 및 비회원국의 참여로 이뤄짐. 현재 EIP는 22개국을 포함
- 현재 EIP의 목표는 참여국의 확대 및 ‘성과’와 ‘결정요인’ 지표의 확대에 있음. 이를 위해, UNCTAD의 기준을 활용한 국가 범위 확대, 성과 관련 신규 지표 개발(여성 기업가정신, 녹색성장 기업가정신, 이주자 기업가 등), 시의 적절한 지표 개발, ‘결정요인’에 대한 지표 개선, 지표 결과의 정책 및 연구적 활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 마이크로데이터

- 기업 마이크로데이터는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등 특정범주의 기업 분석 및 기업의 성장속도, 각종 변수간 분석 등에 필요하며 단순 집계 수준의 자료에 비해 폭 넓은 시각을 제공
- 앞으로 거시경제분석 등을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각 국은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석을 위해서는 활용되지 못함
- OECD는 국제 비교분석을 위해 사적 데이터베이스 Orbis를 활용. Eurostat 등도 Orbis 및 Dun&Bradstreet과 같은 사적 DB 활용.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국제적프로젝트의 구성. 유사한 통계프레임워크를 각 국 DB에 적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인데,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나 제한적인 비교분석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
 - OECD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혁신조사(Innovation Strategy)’, ‘TEC(Trade by Enterprise Characteristics)’, EIP 등이 있음
- OECD는 위에 언급된 2가지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

□ 논의 주제

- 기업체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여부 및 현황. 미구축 시 그 사유
- 연구자들의 기업체 데이터웨어하우스 접근을 위한 투자 여부. 투자하지 않을 시 그 사유
- 사적 데이터베이스(Private DB) 활용 경험 여부
-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및 프로젝트간의 연계에 관한 지지 여부

검토의견 : [No.7] 기업체통계와 기업가정신

(정보서비스팀)

- **논점 (a):** 기업체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여부 및 현황. 미구축 시 사유
 - 기업체 데이터 관련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은 건설업조사 등 11종을 구축하였음
 -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기업체모집단, 도소매업동태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운수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

- **논점 (b):** 연구자들의 기업체 데이터웨어하우스 접근을 위한 투자 여부. 투자하지 않을 시 그 사유
 - 연구자들에게 기업체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공개용 파일(public use microdata)은 웹사이트(mdss.KOSTAT.go.kr)로 제공하고, 특별히 허가받은 연구자 등은 보안장치 되어있는 특정한 장소(On-site)를 방문하여 제한된 마이크로데이터(Licensed microdat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논점 (c):** 사적 데이터베이스(Private DB) 활용 경험 여부
 - 우리 청에서는 기업체 자료 확보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데이터는 사적DB*를 통해 보충하고 있음
 -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신용평가(주)

- **논점 (d):**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및 프로젝트간의 연계에 관한 지지 여부
 - 우리 청에서는 관심은 있으나 현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

[No.7] Comments on Business Statistics and Entrepreneurship

- Point (a): Current status of data warehouses related to business statistics, and the reasons for not building data warehouses**
 - KOSTAT has built 11 data warehouses related to business statistics for the following surveys and population.
 - Construction Work Survey,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Monthly Survey of Machinery Orders Received, Enterprise population, Current Service Industry Survey, Wholesale and Retail Trade Survey, Service Industry Survey, Census on Service Industry, Transportation Survey, Census on Establishments,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 Point (b): Researchers' access to data warehouses related to business statistics, and the reasons for not allowing them to make access to data warehouses**
 - KOSTAT provides researchers with microdata related to business statistics. Public use microdata is provided through the website (www.mdss.KOSTAT.go.kr). And researchers can have access to licensed microdata by visiting on-site facilities which are highly protected in terms of data security.

- Point (c): Experience with private databases**
 - KOSTAT has is using the database of the National Tax Agency of Korea to acquire business microdata and also exploiting 2 private database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business data.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orea Investors Service

- Point (d):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microdata projects**
 - KOSTAT i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microdata projec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However, it seems more internal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further decision.

의제 /ELSA/WP(2010)1: 이주에 관한 OECD데이터베이스

주요 논점

- ◇ 동 보고서는 이주 관련 OECD 데이터베이스(DIOC)를 비OECD국가까지 확대하는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주요 결과 설명
- ◇ OECD 국가 내 분포한 외국 이주자의 데이터를 통해 숙련노동자의 분포 및 이주와 송출국의 발전과의 관계 등을 분석

□ 추진 배경

- OECD 고용노동사회국(DELSA)과 통계국은 공동으로 각 국 2000년 센서스를 기초로 OECD 국가 내 이주자의 출신국별 자료 수집 착수('04) 및 DB구축, 1차 보고서* 발행('08)
 - * A Profile of Immigrant Populations in the 21st Century
- 국가별 두뇌유출(brain drain)현황, OECD 국가 간 이동 현황, 고숙련 노동자의 이동 및 개발도상국가 간 이동의 빠른 증가세 등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 용이해짐
- OECD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OECD국가의 2005/6년 자료 및 비OECD 국가의 2000년 자료 현행화 프로젝트 진행 중

□ 데이터 수집 및 OECD국가의 2005/6년 DB 현행화

- 데이터는 이주자의 '출신국'과 '교육수준' 등 두가지 측면에서 수집
 - DIOC는 다음의 7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데이터를 노동력 조사에서 수합하는 한계로 인해 OECD국가에 대한 2005/6년 현행화는 현재 A부터 D까지만 진행 중
 - 비OECD국가의 2000년 자료에 대해서는 A, C 및 D만 현행화 중

Table A	Table B	Table C	Table D	Table E	Table F	Table G
· 연령 · 성별 · 시민권	· 거주기간	· 고용상태 · 성별	· 직업분류 (중분류) · 성별	· 직업분류 (세분류)	· 활동영역 · 성별	· 노동시장 참여지위 · 학습영역

- 30개 회원국중 인구센서스 8개국(호주, 캐나다 등), 인구등록자료 5개국(덴마크, 스웨덴 등), 2005/2006 업데이트 자료 미비 3개국(한국, 터키), 그 외 국가는 노동력 조사 등을 활용하여 DB를 현행화하고 있음
- 자료 현행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①국내외 기준 및 조사표의 변동으로 인해 특정변수들의 정의가 바뀌었고, ②센서스를 기초로 한 국가의 자료와 노동력조사를 기초로 한 자료간의 비교가능성 저하 및 ③노동력조사 활용시,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기밀성 유지를 위해 발표시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발생함

□ 비OECD국가의 2000년 자료 현행화

- 동 프로젝트는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데이터는 각 국 센서스('95~'04) 또는 IPUMS*, Redatam** 등 DB를 통해 수집
 - * 미네소타대 인구센터에서 보유한 각국 센서스 원자료 및 표본
 - ** 중남미 인구센서스에서 특정자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 확장된 DIOC의 1차 발표에는 중남미 15개국,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4개국, 유럽 2개국 등 비OECD 국가 27개국 포함
- 2차 발표('10.6월)에는 1차 국가 외 추가 27개국이 포함되어, OECD국가 27개국, 비OECD 국가 54개국이 총 포함될 예정(추가 가입국 및 EE국가 포함)

□ 향후 추진방향

- 2005/6년 데이터 현행화는 곧 마무리되어 데이터 및 방법론적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와 함께 발표될 예정. 비OECD국가에 대한 2차 발표는 '10.6월 중, 최종 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
- 현 프로젝트는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수행을 위한 교훈이 될 것
 - 센서스 데이터 수집을 위한 3~4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데, 이는 ① DIOC 2005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추가적 활용, ②2010년 현행화를 위한 새 데이터 수집 및 ③2005년 현행화의 경험을 기초로 2015년 데이터 수집 방법론 개선에 활용될 예정

의제 8 : 2010-2011회기 의장단 선출

주요 논점

- ◇ 2010-2011회기(2010.6월~2011.12월) 의장단 선출
- ◇ OECD 이사회 결정('08)에 따라 2012년 회기부터는 의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축소되며 매년 임기는 1월 1일 시작

□ 현 선출 방식 및 2010-2011 회기 선출

- 현재 OECD 통계위원회의 의장단은 임기 2년(2년 재선 가능)으로 의장(1인), 부의장(2인), 의원(6인) 등으로 구성됨
 - Eurostat, IMF, UNECE, UNSD 및 세계은행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 2010-2011회기 경우, 핀란드 통계청장(Ms. Jeskanen-Sundstrom)이 단원들과 상의하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통계위 본회의 시 발표 후 선출 예정
- 금번은 2012년 적용되는 새 OECD 의장단 선출방식 적용을 위한 과도기적 절차

□ 2012년 이후 선출방식

- OECD 이사회는 각 위원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정('08)하고, 이를 2012년부터 적용
- 개정된 방식에 따르면,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1월 1일 시작하고 임기 전 해에 개최되는 마지막 본회의 시 선출함
- 이에 따라, OECD 통계위원회의 의장단 역시 매년 선출되며 현행대로 개인의 자질에 따라, 지역균형을 맞춰 구성될 예정(의장1, 부의장2, 의원 최대5인)
- 의장단 구성원은 각 역할에 따라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되, 역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에서 임기 재계산. 이 경우에도 최장 6년을 넘길 수 없음
- 통계위는 내년 본회의('11.6월) 시 현 의장단원들의 재선의사 타진 예정
- 이때, 공석 대비 후보자가 많을 경우, 사무국 및 통계위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 등을 거치되, 실패 시 의장단원의 이력 및 활동제안서 등을 근거로 한 모의투표로 부적격자 판정 예정. 최종 후보명단은 위원회에 제출되어 투표로 결정

의제 RD(2010)2 : 2011-12회기 티OECD 위원회에서 예정된 통계관련 사업

□ 논의 배경

- OECD 통계위의 추후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통계조정' 역할 확대에 따라, OECD 타 부서의 통계관련 사업을 공유
- 통계위는 통계위원장의 타 위원회 회의 시 배석을 추진 중

부서명	통계관련 사업	
기업가정신, SME 및 지역개발 센터(CFE)	SME와 기업가정신에 관한 작업반회의 (WPSM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의 OECD Scoreboard, 창업금융 데이터 및 정책 · 신흥시장으로의 SME액세스 권장 (2010년 말 착수)
	LEED Directing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고용이동성, 고용의 질 및 노동시장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지표 개발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지표 · 기업가정신, SME, 사회경제에 관한 클러스터스코어보드 프로젝트 착수 · 증거기반 지역전략창출 지원
	관광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경쟁력에 관한 지표세트와 정책개발
	투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이사회가 권고한 FDI에 관한 벤치마크 정의에 따라,

	(국제투자통계 작업반)	① FDI 통계 및 메타데이터 작성 및 배포, ② FDI통계와 다국적기업의 활동 통계의 조정 과 통합 등 추진
금융기업국 금융기업국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연금) 전 세계 대규모 연금회사를 대상으로 이윤투자비율, 자산배분, 운영비 등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적연금의 범위, 기여도 및 이윤 등에 대한 파악 · (보험통계) 보험의 프리미엄규모, 대차대조표, 자산, 순수익 등을 파악하는 데이터 계속 수집 ※ 모두 OECD 추가 가입국 및 EE국가에 대한 데이터 포함
개발협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관련 풍부한 자료와 더불어 비ODA 흐름, 특히, 자선재단의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개발 필요 - 다양한 개발원조 관련 흐름 파악으로 원조 수혜, 배분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 얻을 수 있음
경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위원회의 작업반회의 및 회원국별 주택관련 조사 진행 · 잠정적으로 경쟁력관련 법과 정책 지표를 통해 'Going for Growth' 관련 지표 개발
교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3년 조사 수행 후 2014년 결과 발표, 중점내용 : 교사경력개발, 학교지원정책 효율성, 효율적 교수법 등 · 교육시스템관련 데이터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시스템관련 데이터수집 추진; '교사와 커리큘럼 조사(연간)', '학교선택 및 학부모참여조사', '학교 신뢰성 조사', '의사결정조사', '형평성 조사', '교사자격조사' 등 · 국제성인능력측정(PIAAC)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차 현장조사 실시, 예비결과 및 지표 발표는 2012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혜택(social benefit)을 받는 근로연령층에 관한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혜택을 받는 근로연령층 개인에 관한 다국적DB구축 : EU-OECD공동 프로젝트로 2013년 초 종료 예정

고용노동사회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임금노동 관련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한눈으로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에 OECD국가, 추가 가입국 및 EE 국가들의 무임금노동현황 내용 포함 예정(스티글리츠위원회 후속 조치) - 동 보고서에 생활시간조사 관련 내용이 현행화되고 더 많은 국가들의 데이터가 포함될 예정 - 주요 내용 : 국가별 무임금노동 규모, 무임금노동의 세분화, 무임금노동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국가별 무임금 노동의 상대적 가치 등 • 보건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2년간 특별한 신규사업 예정 없음 - 보건계정체계 매뉴얼 완성(2011), 의료비와 PPP 관련 프로젝트(계속), Eurostat 및 WHO와 공동으로 보건계정 설문지 개발, 질병별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교역 등에 대한 사업 지속 추진 • 노동시장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DB(추가 가입국 및 EE국가 포함), 노동시장정책 DB(Eurostat과 협력), 고용활성화정책 관련 DB 구축 등 • 이주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PEMI 네트워크 확대(추가 가입국 및 EE국가), 노동시장에서 이주자의 산출물 DB 구축, 이주자와 그 자녀에 관한 통합 지표 발표(2011), 아동이주자 관련 신규 DB 구축 등
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녹색성장전략 및 사회발전측정 사업과 관련 있는 녹색성장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용, 천연자원 및 광물, 자원생산성 및 환경적 삶의 질 등
공공행정 및 영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실행 및 절차 DB, 규제관리 지표 현행화 • 열린정부(Open Government) 지표, 서비스 품질 지표, E-정부 지표, 조달시장 규모 등 지표 수집 ⇒ 상기 자료들은 2013년 발행예정인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에 포함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와 협조하여 공공부문고용 관련 데이터 수집 예정 	
과학기술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자산측정(2011-12) : 혁신, 기업가정신 및 생산성 관련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 ICT 및 환경지표 개선, R&D관련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정책관련 지표 산출 · 상기 지표개발을 위한 방법론 가이드라인 제작에 통계국과 협조의사 표출(특히, 혁신측정 관련) 	
무역농업국	무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생산네트워크, 고용 및 무역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부가가치 측정(WTO와 공동) - 기업체수준에서 국제생산네트워크 데이터 구축 · 수출제한 : 국제공급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서비스무역제한지표(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개발
	농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품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작업 진행
국제미래 프로그램 (사무총장 자문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운영그룹 : 자연재해 및 기술재난 관련 통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 후속조치, 구호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및 지출 - 자연재해 또는 기술적 위험에 노출된 인구 및 자원 - 직간접 손해 등 ⇒ 각 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공표되지 않고 있어 국가간 비교분석 어려움. 따라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방법 등 개발 예정(통계국 협조) · 우주경제에 관한 OECD 글로벌포럼 : 우주공간에 대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발행된 '한눈에 보는 우주경제(Space Economy at a Glance)' 이후 데이터 현행화 및 관련 지표 개발 	

의제 info 4: OECD 데이터 보안 및 기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 논점

- ◇ OECD에서 마련중인 데이터 보안 및 기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고서 구성안 및 기존의 OECD 내부 법적장치 설명

※ 동 문서는 OECD 통계위 의장단 회의 시('10.2월) 제출됨

□ 추진 배경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과 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는 높아지나, 민감한 데이터를 국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가 높음
- OECD 내 자료에 대한 보안과 기밀유지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자 OECD 통계정책그룹(Statistical Policy Group)은 통계국이 그 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토록 함
- 동 보고서는 6개 구조로 구성되며, 6월 통계위 본회의 시 발표될 예정

※ 보고서 구성(안)

I. 개요 // II. OECD의 마이크로데이터 필요성 // III. 직원에 대한 내부 규정을 포함한 기밀성 보호 (아래 참조) // IV. 기술적 보호방법 // V. 통계배포관리(SDC,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 VI. 결론

□ 데이터 기밀성 유지를 위한 장치

- OECD는 기존의 법적 문서들에 데이터 기밀성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
 - 'OECD 기밀 분류와 해제에 관한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밀분류를 하도록 명시됨. 특히, 시장 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해당됨
- * OECD Council Resolution on Classification and De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 또한, 직원규정(Staff Regulations)에는 OECD 직원의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과 규정을 어겼을 때의 적절한 조치사항도 명시됨

□ 의장단 회의 시(10.2월) 논의 결과

- 의장단 의원들은 각국이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내법과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동 보고서를 6월 회의 전 공람할 것을 제안
- 의장단은 동 보고서를 회람하는 절차에 대해 제안된 내용을 동의함

4. 제58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1. 의제 1: 통계 보급, 소통, 및 출판 심층분석결과 /
2. 의제 1/ADD: 통계의 서비스와 소통
3. 의제 25: 생활시간조사의 목적과 해결과제
4. 의제 4: 정보사회측정과 과학·기술·혁신 통계/
5. 의제 7: 성인지통계 개발 매뉴얼 /
6. 의제 8: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가구 측정/
7. 의제 9: 고용의 질 측정지표 보고서
8. 공간통계 - 핀란드/
9. 공간통계 - 미국/
10. 공간통계 - 슬로베니아/
11. 공간통계 - 이스라엘/
12. 공간통계 - 스웨덴/
13. 공간통계 - 네덜란드/
14. 공간통계 - 멕시코/
15. 의제 3: 재정위기와 데이터 향상 필요성/
16. 의제 20: 소규모 경제의 시의성 딜레마 /
17. 의제 21: 루마니아 공식통계의 관점으로 본 경제 재정위기/
18. 의제 22: 사회변화와 사회통계업무 모니터링/
19. 의제 23: 재정위기로 도출된 사회통계 분야에서의 사안들/

의제 1 : 통계 보급, 소통, 및 출판 심층분석결과

주요 논점

- ◇ 2009년 10월 CES Bureau에 의해 시행된 통계 보급, 소통, 출판 심층분석결과
- ◇ CES Bureau은 UNECE지역내 통계활동의 조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선택된 통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 ◇ 2009년 6월 CES에서 이 관련 토의한 결과를 추가

□ 배 경

- 2008년 10월 Bureau는 CES멤버로부터 자료수집하여 CES총회에서 심도 있게 선택된 Topic을 토의하기로 결정
- 이 결정에 따라 통계 보급, 소통 및 출판이 2009 CES에서 토의하기로 함.

□ Bureau 토의 요약

- 2009년 10월 CES Bureau가 통계 보급, 소통, 및 출판에 대해 토의
- UNECE와 통계 보급 및 소통 Steering 그룹이 만든 자료와 슬로베니아의 추가 노트에 기초하여 토의

- 토의 내용
- 통계해독능력의 향상은 이 부분에서 큰 도전임.
- 보급과 소통은 일반 이용자를 타겟으로 함
- 국제적인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공식통계를 위해 사용되도록 추천되기 전에 테스트되어야 함
- 소수그룹(예, 민족/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자료의 보급은 나라마다 다른 관례 존재. 일부 나라에서 그들의 경제적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소수그룹에 대한 통계생산이 수용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민감성 때문에 미수집

- 소수그룹에 대한 자료보급 관련 이익과 위험에 대한 설명이 더 포함되어야 함.
- 사전 접근에 대한 나라별 사항은 완전한 금지에서 특정 대화 틀로써 제한된 지원까지 다양
- 만일 사전배부를 한다면, 대중에게 규칙과 절차를 고지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누가, 왜, 어떻게 사전에 정보를 얻는 지)
- '공식통계 기본원칙'은 공식통계는 공정(impartial basis)에 근거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 원칙은 국가 사례에서 다양한 여지를 남김.(미디어에 사전배포는 단기적으로 이들 미디어로부터 통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통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유용)
- 국제기구에 의해 자료배부관련 중요한 문제를 제기. 통계활동 조화를 위한 위원회(CCSA)회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업데이트 해야 함.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그들의 경험을 추가적 문서로 제공가능
- 재정위기의 측면에서 소통 전략과 어떤 통계는 일부 이 위기에 비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계청이 리뷰하도록 권고
- 실비 또는 무료 접근 문제는 이 문서에 있어야 하며 통계청의 큰 이슈
- Eurostat은 'Statistics Explained' 프로젝트를 언급 및 이것에 대한 정보를 이 문서에 포함 요청

□ 심층 리뷰의 결론

- 접촉하기 어려운 그룹(hard-to-reach groups)과의 의사소통 보다 오히려 일반 유저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 소통, 배포해야함.
- 통계해독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Steering Group은 관련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작업은 IAOS 활동과 연계되어야 함.
- 사전배포와 엠바고, 소수그룹에 대해 국제적으로 좋은 선례를 공유하는 작업 필요

- 국제기구간 자료배포에 대한 CCSA에서의 토의 반영하여, 또한 가격 이슈, 사전배포와 소수그룹에 대한 교재 개발하여 업데이트 해야 함.

□ 통계위원회의 향후 조치사항

- Bureau의 결론과 논평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 통계배포와 소통관련 UNECE사무국과 CES Steering Group은 “Making Data Meaningful”시리즈의 일부로 통계해독능력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잡을 비공식 그룹 구성하기 위해 (파리, 6.30-7.2) “통계의 소통에 대한 작업 세션”을 제안예정
 UNECE사무국은 통계훈련 교재 온라인 도서관을 Wiki방식으로 개발 예정
 시작토의는 통계해독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사업에 대해 UNECE 사무국과 UNESCWA가 함
- 사전배포와 엠바고 대한 좋은 선례의 공유에 대해 “통계의 소통에 대한 작업 세션”에서 토의 예정

의제 1/ADD : 통계의 서비스와 소통

요약

- 통계 커뮤니케이션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간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활동 포괄
 - 인터넷확산은 과거 일방향 정보제공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통계서비스 방법의 변화, 통계 이용자의 증가 및 다양화 야기
 -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계기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전문화 필요
- 통계의 사전제공, 공표일정 공지, 오남용 관리 등과 관련된 소통은 통계조직의 신뢰성 및 독립성 강화 핵심활동
 - 오류의 최소화 및 발생시 투명·명확한 처리, 이용자 오류 발견시 대응정책 및 절차 개발 필요
 - 사전제공 엠바고 제도는 미디어와 정책부처의 효율적인 대국민 소통 지원 수단, 세심한 관리 하에 실시 필요
 - 사전제공 관련 법령, 절차 등에 대한 투명한 대국민 공지
- 새로운 통계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
 - 온라인상에서 통계표, 도표, 지도 등 자동생성이 가능한 시각화 도구 제공, 오남용 예방을 위한 메타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 용이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한 웹검색 기술의 활용(예, SDMX)
 - 블로그, 위키, 소셜네트워크 등 새로운 소통채널의 활성화
 -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사이트 등장으로 이용자간 자료공유 및 토론이 가능하여 새로운 차원의 통계서비스 및 소통 가능
 -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 필요
 - 통계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표현 및 설명은 통계활동의 핵심과정
 - 그래프가 포함된 짧은 분량의 교차분석 간행물, 통계와 경제적 분석을 결합한 간행물 등이 이용자 호응, 통계의 대중적 보급에 기여
- 전문가 및 일반국민용 메타정보 동시제공, 저널리스트 수준의 통계홍보, 통계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교육 및 종사자 훈련 등 강화

1. 커뮤니케이션

통계의 이용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모두 포함됨.

①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발과 시행, ②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 ③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비스, ④뉴스 자료 발표, ⑤홈페이지 운영, ⑥간행물의 마케팅, ⑦이해당사자 및 이용자와 관계형성, ⑧이용자만족도 조사, ⑨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성원 교육, ⑩소통수단(글, 언어 등)의 교정 및 개선, ⑪인트라넷 등 내부 소통채널의 유지

전통적으로 통계기관은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을 통한 정보의 보급과 일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커뮤니케이션과 통계서비스 방법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통계 이용자를 증가 및 다양화시킴.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은 특히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요하며, 미디어나 정책결정자와 같은 주요 이용자와의 소통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 다른 통계 생산자와의 경쟁 증가는 통계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전문화 필요성을 증대시킴.

2. 통계기관의 윤리와 독립성

윤리와 독립은 통계기관의 핵심 이슈이며, 마이너리티 집단에 대한 통계서비스, 사전 제공 엠바고 정책 등과 같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해야 함.

예컨대, 소수민족 또는 특수지역에 대한 통계가 정책목적상 필요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조사 및 공표범위 조정, 공평한 설명 등이 필요함.

통계의 사전 제공, 공표일정의 공지, 통계에 대한 오남용의 관리 등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조직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함. 고품질

통계제공에 의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오류 발견시 대응 정책과 절차를 개발해야 함. 오류 발생시 투명하고 국민이 명확히 이해가능 하도록 처리해야 함.

사전제공 엠바고 제도는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미디어와 정책결정자의 효율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지원 수단으로, 세심한 관리 하에 실시하는 나라도 있음. 사전제공이 허용되면, 국민에게 그에 관한 법령과 절차(누구에게, 왜, 얼마나 이르게 제공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공지하여야 함.

3. 자료 시각화와 통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도구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통계DB에 접근하여 통계정보 다운로드, 질의 등이 가능 한데, 이에 더하여 이용자가 다운로드나 별도 작업과정 없이 온라인 상에서 바로 통계표, 도표, 지도 등의 생성이 가능한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이럴 경우 이용자가 무의미한 도표 또는 지도 생성, 잘못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알기 쉽게 주요 메타 정보를 제공하고, 오용에 대하여는 모니터 및 지원이 필요함.

새로운 웹 검색기술을 이용하여 통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고 검색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면에서 **SDMX(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의 활용이 중요함.

새로운 웹기술은 통계기관이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음. 블로그, 위키 및 소셜네트워크는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이용자가 접근 가능 하도록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등장하여,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자료를 업로드하고 그래프를 생성할 수도 있음. 이러한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코멘트하고 자료와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차원의 통계자료 배포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계의 중개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용자 생성 콘텐츠는 향후 새로운 통계보급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될 것이므로, 이들이 통계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상호작용 정보기술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과학적이 아닌 이념적인 논리로 특정 이익집단이 통계조직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됨.

통계의 효과적이 표현은 통계활동의 핵심과정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래서 통계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통계표 생성, 도표화, 기타 표현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통계 관리자와 실무자, 미디어 관련 종사자 등의 수요가 증가함.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1. A Guide to Writing Stories about Numbers(2006년), 2. A Guide to Presenting Statistics(2009년), 3. Communicating with the media(2004년, 2010년 개정출간 예정) 등을 발간함.

통계기관들이 종이 간행물을 줄여가고 있지만, 그래프가 포함된 짧은 분량의 **Cross-cutting** 간행물이 이용자 사이에 호응을 얻고 있음. 통계와 경제적 분석을 결합한 간행물도 통계의 대중적 보급에 기여 하고 있음.

4. 통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는 이용자 그룹을 식별하고, 통계의 개념과 통계정보 활용방법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이용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통계조직 내 지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에 의해 증진될 것임. 통계기관은 통계의 표현 및 설명방법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은 물론 전문가를 위한 통계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공식통계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한 공공교육을 강화해야 함.

통계인은 통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도 해야 함. 통계전문가로 채용된 종사자는 저널리스트 수준의 표현 능력이 없을 것임을 감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일반국민을 교육하고 통계조직내 종사자를 훈련시키는 전략과 이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됨.

- ① 미디어가 통계조직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사자 교육
- ② 저널리스트의 통계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통계에 대한 이해 증진시키는 미팅 조직
- ③ 학생들에게 통계의 이해 및 활용기법을 가르치는데 사용할 통계교재를 공동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자와 파트너십 유지 등

5. 통계의 유료화 문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자료의 무상과 유상서비스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웹상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통계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반면, 통계간행물, 이용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마이크로 데이터, 민감한 변수데이터 등은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음.

유상 서비스는 이용자수를 통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가능하게도 함. 자원의 제약으로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필요한 통계표나 마이크로데이터 파일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음.

의제 25 : 생활시간조사의 목적과 해결과제

요약

- 생활시간 통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간 통계
 - 생활 활동별 빈도와 지속시간 파악에 중점. 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조사

<주요 목적>

- 한 사회의 생활실태와 그 변화 파악, 근로와 가사외의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주요 생활수준 측정 지표
- 국민의 정치 및 공동체 활동, 봉사활동 등의 참여경향 파악, 공공 서비스나 교통체계에 대한 수요 파악 등
 - 보육, 노인부양, 사교육 등에 드는 시간, 양성평등 정도도 산출
- 조사 간 결과 차이에 대한 검증 및 설명, 통계에 근거한 가설검증 등
 - 예, 저물가 유지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꺼이 대기, 할인판매 찾기 등 시간을 사용하여 지출을 줄이는 행태에 기인
- 비시장 노동가치의 추정
 - 가구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내 비시장 노동활동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구위성계정 추계에 활용
 - 예,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구내 생산 및 서비스를 시장에서 조달, 그에 따라 시장 노동가치 위주의 국민계정 통계의 현상 왜곡 야기
- 실질소득 등 양적지표의 한계를 넘는 삶의 질 측정에 활용
 - 스티글리츠의 경제성과 및 사회발전 측정 권고안 발표로 더욱 부각

<이슈 및 해결과제>

- (행동분류) 컴퓨터 및 현대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간활용의 분류, 여러 목적이 연계된 이동의 정확한 조사 및 분류 문제
- (표본설계) 10세 이상이 대상으로 자녀의 조사참여를 꺼리는 부모의 설득,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응답자의 자발적 참여 인센티브 등
- (과소응답 및 낮은 응답률) 민감하거나 불법인 시간활용의 과소응답, 조사설계 등에 기인한 응답기피 등
- (연구자 요구) 조사항목의 추가, 복잡한 조사결과 자료의 연구자 편의적 정리 제공
- (조사주기 및 부가정보) 대부분 10년 주기, 웰빙 등의 적기분석이 가능하도록 주기 단축(간이조사도 대안); 행위 장소, 함께한 사람, 근로시간, 소득, 생활수준, 보육, 건강상태 등도 조사하면 유용

1. 개요

최근 수십년 간 많은 국가에서 생활시간조사(TUS, Time Use Survey)를 실시해 옴. 주로 선진국에서 생활시간 통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 및 생활 실태에 대한 기간 통계 역할을 함.

그러나 표본설계, 항목분류, 시간기록 단위 등의 차이로 국가간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의 해소를 위해 Eurostat, UNSC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예, HETUS,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함.

2. 생활시간조사의 목적

생활시간조사는 활동별 빈도와 지속시간 파악에 중점을 둠. 이외에 가구와 가구원의 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관심의 대상임.

A. 생활실태의 파악

무엇보다 한 사회의 생활실태와 그의 변화를 보여줌. 근로와 가사외의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종종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됨.

B. 사회 및 정치적 관심

생활시간 통계는 국민의 정치 및 공동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의 참여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나아가 공공 서비스나 교통체계에 대한 수요파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 보육, 노인돌봄, 사교육 등에 드는 시간, 양성평등 실태에 대한 정보 등은 정책결정이나 사회발전 계획 과정에 매우 적절하게 활용됨.

C. 다른 통계의 검증 및 해석

조사 간 상이한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설명, 통계에 근거한 가설의 채택여부 판단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음. 예컨대, 근로시간이나 통근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조사 간 결과의 차이를 설명 및 검증하는데 활용 가능함. 근로시간에 대하여 생활

시간조사와 경활조사 결과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음.

시간활용 통계는 물가지수통계를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예컨대, 저물가가 유지되는 것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위해 기꺼이 기다리고 할인 판매를 찾아보는 등 시간을 소요하여 돈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D. 비시장 노동가치의 추정

국민계정의 문제점은 비시장 노동은 무시하고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생산활동만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국민계정은 가구원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가구내 활동을 제외함.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가구위성계정을 통해 이런 활동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가구위성계정은 경제와 그 성장의 원천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예컨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는 이전에는 가구/가족에 의해서 생산 또는 제공되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증가를 야기함. 이에 따른 시장노동의 증가는 GDP와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왜곡된 분석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E. 삶의 질 평가

지금까지는 실질소득과 같은 양적지표들이 삶의 질 평가에 사용됨.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개인의 선호를 감안하지 않고, 임금이 높으면 삶의 질도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은 많은 노동시간과 적은 여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삶의 질과 웰빙의 측정은 최근 통계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이 주제는 스티글리츠가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때 특히 부각됨.

3. 이슈와 해결과제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의 조사를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이슈와 해결과제들이 제시됨.

A. 행동분류

컴퓨터와 현대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간활용이 활동분류상 문제를 야기함. 예컨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떤 활동을 할 경우, 중요한 측정대상이 컴퓨터를 이용하며 보낸 시간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활동(예, 이메일, 검색, 읽기, 채팅 등)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됨.

핀란드는 현재까지 Eurostat의 권고안에 따라 각 활동을 할 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2진 코드를 각 활동에 부여함. 그래서 예컨대, 온라인으로 신문을 읽으면 신문구독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용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미국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그들이 사용된 방식에 기초하여 분류됨. 그래서 신문을 읽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면 그 활동은 신문읽기로 분류됨. 이러한 방법이 유용한 것 같지만,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가 있음.

미국에서는 이동을 분류하는데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음. 특정 이동행동에 여러 가지 이유가 연관될 수 있어서, 이동과 그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아침 통근은 예컨대, 자녀의 보육원 보내기, 커피 사기 등 일련의 활동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새로운 분류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함.

B. 표본설계

생활시간조사 표본은 10/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함.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의 조사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BLS는 부모에게 협조요청 우편을 발송함. 우려하는 부모의 자녀에게는 동성의 면접원이 조사하도록 함.

또한 조사방법과 관련되는 문제로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응답자에 접근하는 것임. BLS는 40\$ 직불카드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용함. 응답자가 전화를 하여 조사에 응하면 직불카드의 핀 번호를 받게 됨.

C. 과소응답

민감한 내용과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간활용에 대하여 과소 응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D. 낮은 응답률

낮은 응답률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임. 미국에서 낮은 응답률은 부분적으로 조사 설계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음. 응답 대상자는 이미 CPS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를 꺼리는 경우가 있음. 또한 모든 응답자에게 날짜 편향을 없애기 위해 특정 면접 날짜를 교체를 허용하지 않고 할당한 것도 주요 이유로 거론됨. 게다가 대리응답도 허용하지 않음.

E. 연구자의 요구충족

연구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사말미에 질문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음. 이용자에게 조사결과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도 있음. 자료파일이 복잡해서 이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정리가 필요함.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자료의 일부를 재결합한 요약파일을 제공하고 다양한 통계 패키지로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F. 조사주기

대부분의 조사주기가 10년인데, 예컨대 가구위성계정이나 웰빙 측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핀란드에서는 천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35개의 사전 코드화된 주요 활동에 대한 간이 다이어리 우편조사를 시험하고 있음. 여기에는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음. 이 시험조사의 목적은 간이조사 결과를 본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지 검토하기 위한 것임.

G. 부가정보

장소 및 함께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면, 행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이러한 추가질문은 행위 비용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함.

가구원 또는 가구의 주당 근무시간, 소득, 생활수준, 보육, 만족도, 건강상태 등과 같은 부가질문도 필요함.

의제 3 : 재정위기와 데이터 향상 필요성

주요 논점

- ◇ 현 경제위기로 나타난 환율, 채권자, 채무자 등의 형태별 정보의 업데이트 및 투명성에 대한 필요 및 중요성
- ◇ 부동산 및 자산 등에 관한 향상된 경제 통계가 현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음에 관한 보고서

□ 본문 요약

- 미국의 부동산 및 물가 변화, 이익분배 등의 자료와 통계를 통한 분석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크게 흐름을 벗어난 변동이 있었음을 입증.
- 이 통계를 통해 가구당 수입별 저축양의 범위도 지속 불가능했음이 증명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통계 또한 미국 GDP를 생산하는 BEA, 혹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

*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최근 파커와 팔럼보에 의해 작성된 논문에서는 각종 계정에 관한 통합된 자료가 현 위기에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지를 설명함.
- 미국의 데이터는 차입(레버리지)에서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기에 너무 종합적이었으며 또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조정불량에 관한 세부 데이터와 서브프라임과 같은 형태별 세부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함.
- 모아서브프라임 론(collateralized sub-prime loan) 의 소유권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했고 2008년 봄 미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함.
- 좋은 통계는 자산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정책 실패 등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에 공공 정책의 형성과 문제의 심각성 보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산 소유권에 관한 더 나은 데이터가 있었다라면 미리 국제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협력을 이루었을 것이라 분석함.

의제 4: 정보사회측정과 과학·기술·혁신 통계

주요 논점

- ◇ 정보사회 발전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관련 통계 개선을 위해 국제통계 현황과 도전과제, 향후 방안 등을 세 가지 측면(개념, 인프라, 국제협력)에서 논의하고자 함
 - ※ 호주 통계청 작성
- ◇ 이번 회의 결과를 기초로 의장단은 2010년 11월 심층검토(In-depth Review)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배 경

- 각 국 통계기관은 과학, 기술 및 혁신이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생산·보급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정보사회 및 이와 관련된 통계 개발에 있어 세 가지 큰 부문(개념틀, 통계 인프라, 국제협력)에서 접근하고자 함

□ 접근 방식

- **(개념틀)** 정보사회,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임으로 향후 연구와 정책에 필요한 통계에 핵심이 될 적절한 개념틀 정립 필요
 - 현존하는 관련 개념*들의 한계를 파악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요구됨
 - * 국민계정, 혁신통계(오슬로매뉴얼), R&D통계, OECD 가이드라인 등

- **(통계 인프라)** 관련 통계 개발을 위해서는 신규 통계 개발 또는 현존하는 통계에 설문 추가 등의 전통적인 접근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혁신과 생산성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다 비용대비 효율적인 통합적 데이터 수집 방법이 요구됨

※ 호주 통계청의 경우, 사업체 시계열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 활용

- **(국제협력)** 동 분야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OECD 내에만 해도 20여개의 회의체가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회의체*가 구성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국제적 공조는 어려워짐

- 따라서, 현존하는 회의체들의 결과물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회의체간의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 있음

- **(통계개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정합성(relevant), 정확성(accurate), 일관성(coherent) 있는 혁신 통계 개발 필요

- 이러한 통계는 혁신과 정보사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투입대비 산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또한, 의사결정 및 중요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논의 사항

- 정보사회 측정 관련 국제사회 다양한 활동들 간의 조정
- 정보사회 측정의 공백 및 통계개발 우선순위
- 관련 통계 개발을 위한 국제적 회의체간 관계 설정

의제 7 : 성인지통계 개발 매뉴얼

주요 논점

◇ UNECE 성인지통계 매뉴얼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위한 의견 요청

□ 작성 배경

- UNECE와 세계은행연구소(WBI)가 공동 추진 중인 국가통계시스템 성인지화 프로젝트(Project on engendering national statistical systems)의 일환으로 UNECE 성인지통계 교육 Task Force이 작성
- 주요 내용
 - 성인지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
 - 성인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
 - 성인지통계와 관련된 특정 분야별 데이터수집 방안
(예. 비정규근로, 무임금노동, 성폭력, 사회적 배제 등)
 - 성인지통계 활용방안

검토의견: [No. 기성인지 통계 매뉴얼

여성가족부장관(성별영향평가과장)

□ 개요

- *Developing Gender Statistics*(이하 DGS)는 UN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세계은행연수원(World Bank Institute)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지 통계 훈련 프로그램 교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인지 통계 매뉴얼임.
- *Developing Gender Statistics*는 스웨덴 통계청이 *Engendering Statistics*를 발간한 1996년 이후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경험과 동향을 반영한 최신판의 성인지 통계 교육훈련 교재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통계법 개정 등을 통해 성 인지 통계를 활성화하려는 우리나라의 요구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나라 성 인지 통계 발전 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요구 사항

1. 성별 분리 통계의 유형별 사례 보완 요구

- DGS의 Ch 1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를 성별 분리 통계, 여성 관련 통계, 남성 관련 통계로 세분화하고 있음
 - ☞ 해당 부분: 1.2 The importance of a gender perspective in statistics
- 우리나라에서는 성 인지 통계를 성별 분리 통계(Sex-disaggregated data)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여성 관련 통계와 남성 관련 통계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여성 또는 남성 관련 통계가 성 인지 통계의 한 유형인지에 대한 설명의 보완을 요구하여, 국내의 성 인지 통계 인식 개선에 활용함.

2. 일가족 양립, 여성이민 관련 내용 보완 요구

- 최근 일가족양립, 결혼이민여성 등 우리나라의 정책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통계 주제(topics)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을 요구하여 DGS의 국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해당 부분: 4.5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 4.15 Minority groups
 - 4.16 Social exclusion

3. 분산형 통계 시스템 국가의 성 인지 통계 실행 방안의 구체화 요구

- DGS Ch 6. Making it happen에서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집중형 통계 시스템 국가를 전제로 성 인지 통계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분산형 통계 시스템인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짐.

- 따라서 분산형 통계 시스템 국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실행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분산형 통계 시스템 국가의 DGS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부분: Chapter 6 Making it Happen

4.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도 추진에 필요한 성 인지 통계 목록 및 생산 방안의 구체화 요구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에 필요한 통계의 성격과 내용, 이러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실행방안과 사례를 구체화함으로써 국내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한국 사례 추가 요구

- 우리나라는 통계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통해 성 인지 통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신규 통계의 개발 및 개선, 성 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성 인지 통계 전문 DB 구축·운영, 성 인지 통계 관련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성 인지 통계를 촉진하고 있음.
- 그러나 DGS에 인용된 한국 사례는 199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무급노동의 GDP 비중 추정을 기술하고 있는 한 문장 (sentence)뿐 임.

☞ 해당 부분: 4.4.3 The value-added of statistics(p.57)

- DGS의 각 부분별로 국내의 우수 사례를 집약한 자료집을 제공, 한국 사례의 추가를 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 인지 통계 발전 수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Best Practice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성 인지 통계 우수 사례 자료집 구성(안)
 - ① 자료집 명칭: Developing Gender Statistics in Republic of Korea
 - ② 자료집 목차
 - 성평등정책 및 성 인지 통계 개요
 - 성 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 통계법, 여성발전기본법
 - 성 인지 통계 정책: 여성정책기본계획, 성 인지 통계 활성화 계획 (통계청)

- 분야별 우수 사례: 인구, 사회, 교육, 보건, 복지, 성폭력 등
- 성 인지 통계 관련 연구 사례
- 성 인지 통계 교육 사례: 통계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 성 인지 통계 간행물: 한국의 성 인지 통계(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부처 및
지자체 성 인지 통계 간행물 등
- 성 인지 통계DB: KOSIS(통계청), GSIS(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아태지역 및 선진국형 매뉴얼 개발 요구

- DGS는 유럽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UN 회원국 일반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음.
-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및 성 인지 통계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에 특화된 매뉴얼 개발을 중장기 과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No. 7] Comments on Developing Gender Statistics: A Practical Tool

On Chapter 1

- Gender-cognitive statistics are often conceived as equal to sex-disaggregated statistics. To make a more effective presentat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statistics, it might be helpful to show how gender-cognitive statistics are more than just gender-disaggregated ones and demonstrate some concrete examples of this.

On Chapter 6

- Chapter 6 describes various plans to promote the use of gender statistics, and it is more or less applicable to a 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Thus, as the text currently stands, those plans do not seem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countries with a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such as Korea. It is called for to lay out the strategies differentiated in terms of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On examples of Korea's gender statistics cited in the manual

- Korea supports gender statistics in many ways. Korea has established and secured relevant statistical laws and female rights, publishes periodicals, operates databases for gender statistics, and grants researches on related fields. However, the report cites Korea in just one area (the value of unpaid work in 4.4.3). It is strongly urged to make more use of best practices achieved in Korea, in order to share the experiences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gender statistics in Korea.
- A draft of the "Session of best practices on gender statistics in Korea" includes the following:

- 1) Title of the Session: <Developing Gender Statistics in Republic of Korea>
- 2)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and relevant policies
 - Legitimate foundations: statistical laws, laws on females' developments
 - Policies with gender statistics: principle plans on female policies, actions to utilize gender statistics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 Good practices from the fields of: population, society, education, health, welfare and sexual crimes
 - Researches on gender statistics
 - Examples of educations on gender statistics: cases from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Statistical Training Institute and Korean Institute of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 Periodicals on gender statistics: *Gender Statistics in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omen's Life Reflected in Statistics* (Statistics Korea) and other periodicals created by various divisions and regional organizations
 - Database on gender statistics: KOSIS (Statistics Korea), GSI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n development of a manual for Asian and Pacific countries as well as for developed countries

- As DGS is developed based on the experiences of European countries. Development of a new manual for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and for countries where gender statistics have reached a certain level might need to be considered as a mid- or long-term task.

의제 8 :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가구 측정

주요 논점

- ◇ UNECE 지역의 가족 및 가구 구성은 전통적인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의 가구 등에 대한 정의 정립
- ◇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가구(5가지 유형)에 대한 측정 및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 배경

- 개인 행동양식의 변화, 가족 및 생활 양식의 변화는 기존 가족 개념의 경계를 탈피
- 비교가능한 새로운 가구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및 측정 필요
 - 행정자료(가구등록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형태에 대한 측정

□ 새로운 가족 및 가구의 형태

- UNECE는 크게 5가지의 새로운 가구 및 가족 형태를 제시
- 재결합 가족(Reconstituted Families)
- 가구간 통근자(Commuters between households)
-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Living apart together)
- 동성커플(Same-sex couples)
- 따로 살며 네트워킹하는 관계(Living apart within a network)

□ 논의사항

-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가구에 관한 개념 정의 및 배경 논의
-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가구 측정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 결과 검토 후 UNECE 지역의 조사 및 행정자료 개념의 이행 가능성 평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가구 측정

요약

- 개인행태, 생활여건, 기대수명 등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단위 (가족 및 가구) 증가
 - 생활단위의 형성, 해체, 재결합 등의 패턴 다양화, 범위 모호화 등
 - 이에 따른 생활단위의 구조, 역할, 의미 등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 및 공인된 통계 수요 야기
- 가구, 가족 및 주 거주지의 전통적 개념정의
 - 가구는 일반적으로 동거, 지출의 분담, 소득 및 자원의 공동관리, 정신적 연대감 존재 등의 기준에 의해 정의(생계 개념)
 - 가족은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부부관계, 동거관계, 동성부부, 부모와 미혼자녀 관계 등인 사람들로 구성
 - 주 거주지는 가구원을 정의할 때 주요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야간 수면을 하는 장소
- <새로운 생활단위>
- 재결합 가족(Reconstituted Family)
 - 부부 중 한 쪽에만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가 포함된 가족, 그런 자녀는 없으나 최소한 한 쪽이 결혼경력이 있는 재결합 커플 등
 -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형편이 궁핍하여 관련 정책 및 통계 필요
- 가구간 왕래자(Commuters Between Household)
 - 주말부부, 외지유학생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가구를 왕래하는 사람
 - 중복/누락 등의 최소화로 센서스 등 모집단조사의 품질 제고, 가구 특성 등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위해 통계필요
-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Living Apart Together)
 - 독립성 유지, 생활여건 등의 이유로 공동의 거주지 없이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
 - 평균수명 증가, 이혼률 상승, 결혼의 지연 등으로 증가 추세
- 기타: 동성커플(Same-sex Couples), 따로 살며 네트워크하는 관계(Living apart but within a network) 등

1. 검토 배경

최근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개인행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 및 생계단위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가족의 형성, 해체, 재결합 등의 패턴이 다양화 되고 가족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임.

먼저 결혼의 필수성이 약화되고 동거가 확산됨. 이혼과 별거의 증가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과 생계단위를 야기함. 별거 또는 이혼한 개인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 자녀의 존재여부에 따라 재결합 부부 또는 가족을 형성함.

공간적 이동의 증가는 다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가구 사이를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사람을 증가시킴. 결혼 후에도 독립성 유지 갈망,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 기대수명의 증가 등은 따로 사는 커플과 같은 새로운 커플 형태를 야기함. 동성애의 사회적 용인은 동성부부를 증가시킴. 사회 및 가족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비용 및 품질 등 정책 환경의 다양성은 기능적으로 결속하며 따로 살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침.

가족의 구조, 사회적 역할 및 의미 등의 변화는 정책영역과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음. 새로운 가정형태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짐. 연구자나 정책입안자가 가족과 개인 대상 정책의 추진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의 구조, 변화 및 지원패턴에 대한 적절하고 공인된 통계가 필수적임.

①재결합 가족(**Reconstituted family**), ②가구간 왕래자(**Commuter between household**), ③따로 사는 부부/파트너(**Living apart together**), ④동성부부(**Same-sex couples**), ⑤따로 살며 네트워크 하는 관계(**Living apart but within a network**) 등이 새로운 가족 및 생활형태로 주목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국제 및 지역수준의 명확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야 함.

- ①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가구에 대한 정책차원의 개념정의
- ②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의 개발
- ③ 정의된 개념이 행정자료 및 조사에 활용가능한지 평가

2. 가족과 가구의 전통적 정의

가구의 정의는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며, 조사목적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새로운 가족 및 가구유형을 정의할 때, 기존 정의를 기본으로서 고려해야 함.

대부분의 조사는 정의된 기준에 따라 수집된 가구원 정보가 있는 가구명부에 의해 이루어짐. 새로운 생활단위(가족 및 가구)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에 앞서, 가구원이 정의되어야 함. 가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데, 조사별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즉, 어떤 조사에서는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구로 간주하기도 함.

①함께 거주한다(동일한 거처에 산다). ②생필품의 공동조달을 포함하여 지출을 분담한다. ③소득과 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④정신적 연대감이 존재한다.

1) 가구와 가족의 개념

A. 사적가구의 일반적 개념

- ① **1인 가구**: 독립된 거처에 혼자 사는 개인 또는 자취를 하며 거처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
- ② **2인 이상 가구**: 거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스스로 식료품 및 기타 생필품을 조달하며, 소득의 대부분 또는 일부를 공동 관리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

이러한 사적 가구의 개념은 생계(**housekeeping**)개념임. 이에 의하면 가구수와 거처수가 일치하지 않음. 이에 따르면, 하숙자(boarders)와 자취자(lodgers)를 구분하는데 유용함. 하숙자는 가구와 함께 취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가사도구를 공동사용할 수 있음. 그래서 이들은 상기 정의에 따라 가구원으로 간주됨. 자취자는 거처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하며 별도 가구로 취급함.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생계개념의 가구원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런 국가에서는 가구 거주(**household-dwelling**)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개념에 의하면 한 거처에 사는 모든 구성원은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됨. 그래서 빈집이 아닌 거처수와 그를 점유한 가구수가 같고 거처와 가구의 위치도 동일함.

생계단위 또는 거처단위 가구개념 사용에 따른 전체 가구수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적음. 그러나 예컨대 1인 가구와 같은 특정 가구 유형에서는 차이가 클 수 있음. 그러므로 국제비교를 위하여, 생계단위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거처단위 개념에 따른 가구수를 추정하고 이를 가구원수별로 구분할 것을 권고함.

B. 가족의 개념

가족핵(family nucleus)은 협의의 가족개념으로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사람으로 부부관계, 동거관계, 등록된 동성부부, 부모와 미혼자녀 관계 등인 사람들로 구성됨. 그래서 가족은 자녀 없는 커플,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커플,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 등을 포괄함.

위와 같은 가족 개념은 부모와 미혼자녀 관계로 한정됨. 그런데 어떤 국가에서는 부모는 없고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상당함. 이러한 경우도 가족정의에 포함됨. 센서스 보고서나 메타정보에는 이러한 가족형태가 핵가족에 포함되는지 명시되어야 함.

미혼자녀는 혈연, 의붓 또는 입양 자녀(연령 또는 혼인상태 여부 불문)로서, 적어도 한 부모와 거주를 함께하고 동일 가구에 파트너 또는 자신의 자녀가 없음.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도 포함됨. 양부모의 자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배우자, 동거파트너 또는 자신의 자식과 함께 사는 자녀 또는 손자녀는 아이로 간주되지 않음.

커플은 결혼, 혼인신고, 동거 등에 의한 커플을 포괄함. 동일 가구에 거주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부부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두 사람도 동거커플로 간주함.

C. 주 거주지

주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특히 가구간 왕래자와 따로 사는 부부/커플을 정의

하는데 관련됨.

주 거주지는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리적 장소임. 사람의 주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야간 수면을 하는 장소임. 대부분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은 큰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지만 몇몇 경우 문제가 됨. 이런 경우 전통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주중에는 외지에서 일하고 주말에 귀가하는 사람은 가족이 있는 집을 주 거주지로 본다.
- ② 학기 중에 외지에 거주하는 초·중등학생은 가족이 있는 집을 주 거주지로 본다.
- ③ 학기 중에 외지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기숙사나 개인 거주지 여부를 불문하고 학기 중 거주주소를 주 거주지로 본다. 단, 국민계정 작성 목적일 경우 가족이 있는 집을 주 거주지로 본다.
- ④ 시설은 센서스 때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수용자의 주 거주지로 본다. 여기에는 입원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재소자 등이 포함된다.
- ⑤ 연간 통상적으로 두 거주지 이상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다수기간을 거주한 장소를 주 거주지로 본다.
- ⑥ 대부분의 저녁수면을 보내는 장소 기준은 의무복무 군인이나 군시설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 ⑦ 조사 장소는 노숙자, 유목인, 방랑자 그리고 거주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등의 주 거주지로 본다.
- ⑧ 두 가구를 왕래하는 아이(예,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많이 거주한 가구를 주 거주지로 본다. 양 가구에 동일시간 거주한 경우 센서스날 저녁을 보낸 집을 주 거주지로 한다.

3. 새로운 가족 및 가구 유형

1) 재결합 가족(Reconstituted Families)

A. 조사 필요성

이혼, 별거, 사별 등을 겪은 후 재결합하는 과정은 당사자의 삶과 사회전반에

중요한 심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침. 재결합가족의 특성들은 모든 가구원의 생활형편에 영향을 미침.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결합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 비해 생활이 궁핍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드뭄. 이것이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가정형태로서 재결합가족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임.

B. 재결합 가족의 정의

재결합 가족이란 결혼 또는 동거커플로서 부부 중 한쪽에만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가 최소한 1명이 있는 가족임. 재결합 이전의 과거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이른바 혼혈가족을 식별하는 것이 가치가 있음. 이러한 가족은 가족구성원간 결속력 및 관계가 매우 복잡함.

최근 이혼이나 사별하고 이복자녀가 없이 새로 동거 또는 결혼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노년기의 재결합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재결합이 신체 및 정신적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가족형태가 재결합 커플인데 최소한 한쪽이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결혼 또는 동거부부이며, 이전 커플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없는 경우임.

C. 조사내용

재결합 가족조사에는 재결합 유형(결혼, 동거 등), 재결합 가족의 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가구간 왕래자(Commuters Between Households)

A. 조사 필요성

가족 라이프사이클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교육 및 직업 이력은 가구간 왕래자를 증가시켜 왔음. 이러한 새로운 생활단위 형태는 개인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계정보가 필요함.

B. 가구간 왕래자의 정의

가구간 왕래자는 두 가구를 왕래하며 사는 사람으로, 일정 시간(예컨대, 주당 2-3일 또는 학기 중 등)을 규칙적으로 주된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서 지냄.

이러한 가구형태에 대하여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① 중복조사를 예방하여 모집단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② 가구와 가족의 특성에 대한 정도 높은 정보를 얻는다.
- ③ 현행 가구 및 가족 개념의 기본 카테고리의 모호성을 밝혀낸다.

C. 조사내용

가구간 왕래자 조사를 위해서는 왕래하는 사람과 규칙적으로 왕래하는 가구에 중점을 둬. 지표에는 왕래하는 사람(어린이, 청소년, 노인, 남자, 여자, 근로자 등), 왕래자의 생활상 특성(왕래 이유, 거주기간, 왕래거리 등), 그리고 가구유형(미혼, 커플 등) 및 거주자(자녀, 배우자 등)가 포함되어야 함.

3)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LAT, Living Apart Together)

A. 개념정의

따로 사는 부부/커플관계는 커플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다른 가구에 살며 공동의 거주지가 없는 파트너 관계이임.

커플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유일한 생활형태는 아니며, 개인은 다양한 이유로 파트너와 함께 살지 않을 수 있음. 그들은 기존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음. 예컨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음.

따로 사는 파트너 관계는 결혼을 하는 과정의 한 부분일 수 있음. 또는 집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아직 공유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한 생활방식일 수도 있음.

B. 조사 필요성

LAT는 새로운 가족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현대사회에서

증가추세에 있음. 관심에 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적 선택이든 환경에 의해서든 장기간 LAT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임. 이러한 현상은 **평균수명 증가, 이혼율 상승, 결혼의 지연 등 때문에 미래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C. 조사내용

이에 대한 조사에는 **연령대별 LAT관계 분포, LAT 기간, 혼인상태,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

LAT를 조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사시점에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에게 실제 LAT관계인가를 질문하는 것임. LAT관계의 기본 기준은 공유 또는 공동의 주거지가 없고 파트너가 따로 사는 것임. 그러나 **실제 조사시 가구간 왕래자와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임.**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동시에 두 가지를 조사하는 것임.

4) 동성커플(Same-sex Couples)

A. 조사 필요성

동성커플은 새로운 가구유형은 아니나 **사회적 용인 분위기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하고 있음.** 정책결정자가 동성커플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고, 차별 위험집단을 식별하고, 주거수요나 생활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B. 동성커플의 정의

동성커플은 동성의 동거 또는 결혼한 파트너로 구성됨. 동성애에 대하여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사회적 수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성커플은 조사에 응하기를 꺼려할 것임. 이러한 **통계의 품질과 정확성은 동성커플에 대한 사회의 수용정도에 따라 다를 것임.**

동성커플은 성적 정체성과 태도에 대한 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면 사실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왜냐하면, 조사 응답자에게 동성커플 관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임.

C. 조사내용

동성커플에 대한 조사에는 **성별, 결합유형(법적 혼인, 동거 등)별 동성커플, 동성커플 가구에 사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음.

5) 따로 살며 네트워킹하는 관계(Living Apart But Within a Network)

A. 개념정의

따로 살지만 네트워킹하는 관계는 다른 거처에 사는 사람/가구와 유지하는 도움과 결속관계임. 이는 가족과 그 기능을 보는 다른 방법임. 그것은 동거관계를 넘어 친척, 친구, 이웃 등을 포함하여 가구구조 및 가구관계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임. 네트워크와 그의 기능에는 수단과 자원을 지원 또는 교환하는 ① 다른 가구의 가구원, ②응답자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 ③사회적으로 접촉(방문, 전화, 이메일 등)하는 관계 등이 포함됨.

B. 조사내용

따로 살지만 네트워킹하는 관계는 **잠재(지원 가능성과 같은 잠재된 결속 형태)와 행동(지원의 교환)이 교차함**. 지표는 네트워킹하는 사람들 간의 친밀성, 그들의 지원가능성(접촉의 친밀성과 빈도),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다양한 양태, 네트워크에 실제 연관된 사람과 가족의 유형 등을 식별하여야 함.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생활단위 유형을 파악하는데, 행정등록자료의 활용가능성은 제한적임.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 가구간 왕래자, 따로 살며 네트워킹하는 관계 등에 대한 통계는 표본조사에 의하여 수집하는 게 가장 적합함. 반면, 재결합 가족의 일부 특성은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있음. 동성부부가 합법적으로 등록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일부 정보도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파악가능함.

검토의견: [No. 8] 새로운 가족 및 가구형태 측정

(조사통계국 인구총조사과)

제1장. 재결합 가족(Reconstituted families)

재결합 가족이란 부부(결혼, 동거, 동성커플 등) 사이의 자녀가 아닌 일방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의미함. 단, 사후에 상대방이 그 자녀를 입양하면 재구성 가족이 아닌 일반가족

(의견) UNECE의 재결합 가족 파악 제안은 한국에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으로 센서스에서는 조사하기 어려움. 필요 시 재결합 가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 (예, 가구형태조사) 도입을 검토

제2장. 가구간 왕래자(Commuters between households)

하나 이상의 거주지, 즉 상주지와 또 다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파악하자는 의견

2-1. UNECE의 상주지에 대한 개념정의

조사대상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서 12개월 이상 또는 적어도 1년 이상을 머물 의도로 “상주지”에 거주해야 함

(의견) 한국은 3개월 동안 주로 거주하는 곳을 상주지로 간주하고 있어 UNECE와는 차이가 있음

【참고】 UNECE에서 제시한 상주지 개념에 대한 특이사례

- 1) 직장 때문에 외지에 나가있다가 주말에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및 초·중등학교 학생이 학기 중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조사 ⇒ 우리나라는 직장 또는 학교에서 조사
- 2) 연중 정기적으로 하나 이상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람 및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양쪽 부모 집을 오가는 어린이의 경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조사 ⇒ 우리나라도 동일

2-2. 상주지가 한 곳 이상인 경우 2차 거주지(Second residence) 조사여부

(의견) UNECE의 2차 거주지를 조사하자는 의견은 인구이동이 많은 현대 사회를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한민국은 2010년에는 2차 거주지는 조사하지 않고 주된 상주지만 조사할 예정이나 다음 센서스(2015년)에서는 표본항목에서 2차 거주지 파악을 검토할 계획임

제3장. 따로 사는 부부/파트너(Living apart together)

제4장. 동성부부(Same-sex couples)

(의견)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혼외관계, 동성혼에 대해서는 법적·사회적 consensus가 이루어 지지 않아 조사가 곤란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 재결합 가족(Reconstituted Families)

2. 가구간 왕래자(Commuters Between Households)

인구센서스에서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관련 표본조사 모집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지 않음

대한민국에서는 가구단위의 소득, 지출, 재무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서 주중 또는 학기중에 타지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학생을 별도 가구로 취급하는 경우와 두 가구를 합쳐서 하나의 가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음

1)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에서는 별도 가구로 취급하여 조사함

- 일이나 학업을 위해 따로 살면서 주말 또는 방학 중에만 주 거주지에 귀가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은 주거주지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구의 웰빙(?)측정 측면에서 보면 합당함. 그러나 소비자물가조사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세부 재화 및 서비스별 지출자료가 필요한데, 이들이 따로 거주하며 지출한 내역을 주 거주지에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가구로 취급함
- 다만, 여기서 조사된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지표도 산출하는데, 이들도 주 거주지 거주자와 지출을 분담하고 소득과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가구로 취급하여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가계금융조사(Survey of household finances)에서는 자산을 공유하고 부채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가구로 취급하여 조사함

- 단, 이러한 가구에 대한 모집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 표본조사에서 가구원 각각에 대하여 동거여부를 조사하여 여기서 나온 비율을 모집단 분포비율로 보고 추정에 이용하고 있음

의제 9 : 고용의 질 측정지표 보고서

주요 논점

◇ UNECE 고용의 질 측정지표 보고서에 대한 의견 요청

□ 보고서 주요 내용

- 주제 : 고용의 질 측정지표 (잠정안)
- 주요 지표 : 7개 부문
- ※ ①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② 고용에 따른 수입과 복지혜택, ③ 근로 시간 및 근로조건, ④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보장, ⑤ 노사관계, ⑥ 직장 내 교육훈련, ⑦ 직장 내 유대관계와 일의 본질적 특성
- 특이사항 : 동 보고서에 제시된 지표는 각 국 수준에서 작성가능한 지표를 기초로 하며, 각 지표별 메타데이터는 설명하지 않음

- 검토 요청사항
- 동 보고서 접근방식의 관련성 및 종합성 여부(개념, 포괄범위, 각 국 통계와의 관련성 등)
- 7개 부문이 고용의 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부문별 또는 세부 부문별 지표 배치의 적절성
- 제안된 지표를 실제 활용 시 장단점
- 각 국별 고용의 질 관련 통계 제공 계획 여부

No. 91 고용의 질 측정지표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1. Do you find the Report's basic approach to the statistical measurement of quality employment relevant and comprehensive in general and in the case of your country, concerning a) underlying concept b) coverage c) relevance for statistics at the national level.

고용의 양적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질적지표 개발 제안에 적극 동의함

- 근로의 안전성, 복지혜택, 고용의 지속성, 노사관계 등 기본적인 개념과 포괄범위는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며,
- 대부분의 차원별 지표들은 우리나라 고용·노동 관련통계 및 행정자료 등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음

2. How well, in your opinion, the proposed seven dimensions outline/reflect the quality of employment?

차원별 지표는 고용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지표가 객관성, 실용성 등의 측면에서 각 국가별 측정가능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단, 고용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국제비교를 위한 주관적 지표의 개념 정의 및 구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Does the main set of proposed indicators populate adequately the dimensions /sub-dimensions? Do you have any suggestions for adding /removing /reallocating indicators under specific dimension(in general)?

차원(7개)별 구성은 적절하며, 단 60여개 세부지표중 일부 측정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차원1) 어린이(children)의 노동은 법적기준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한 동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현실성이 의문시되어, 지표에서 제거 또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차원7) “직장내 유대관계와 직무동기”의 만족도관련 지표가 근로자의 느낌정도에 따라 측정된다면 다분히 주관적인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음.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계적 측정 노력이 필요함

차원 및 구성지표별 자료원의 정의도 필요함

- 사업체, 가구단위조사에 따른 지표별 자료원은 포괄범위 차이로 인한 측정결과 국가별 비교 시 자료의 한계 명시할 필요

4. For implementation; what are, in your opinion, potenti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using the suggested approach to measure quality of employment?

경기변동에 민감한 고용사정은 고용률, 실업률 등 주로 양적지표 분석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일자리 창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맞춤형 통계개발 측면에서 “고용의 질 측정지표” 는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과 정책수립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
- 다만 고용의 질 측정이후 국가별 비교 또는 지표별 해석은 신중 할 필요가 있음

5. Is there any interest or plans in providing statistics on quality of employment in your country?

- 우리나라는 2010 경제정책중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의 질 측정지표 개발 및 시산”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도에는 해외 선행연구 검토 및 지표선정과 가능한 자료원을 이용한 지표시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 2011년 이후 신규조사항목 발굴 등 보완계획에 따라 구성지표별 시산 범위 확대를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참고자료]

고용통계과

□ 추진현황

- 1차 회의('05.5, UNECE/ILO/Eurostat 공동주관)
 - 고용의 질 측정에 관한 중요성 등 주요이슈 토의
*Decent Work(ILO), European Commission Quality of Work,
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 Working Condition
 - TF 구성 제안 등
- 2차 회의('07.4)
 - 고용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단일화 추진 등
- 3차 회의('09.10)
 - 측정에 관한 기본원칙 채택
 - 주요국*의 사례 발표
 -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9개국

□ 차원별 구성지표(안)

A.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 ① 고용의 안전성 ② 최소연령이하의 노동 ③ 고용의 공정성

B. 수입과 복지혜택

- ① 임금(수입) ② 비임금 금전적 보상

C. 근로시간과 근로의 균형성

- ① 근로시간 ② 근로시간 조정 및 유연성 ③ 근로의 균형성

D. 고용보장과 사회적 보호

- ① 고용보장 ② 사회적 보호

E. 노사관계 F.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G. 직장유대관계와 직무동기

차원A.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 직장내 부상과 사망 등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
- 노동의 형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아동 노동 등의 유형도 포함

(1-1) 근로의 안전성

- ①치명적인 산업재해 비율 ②단순산업재해 비율 ③위험 산업직업군 종사자 비율 등

(1-2) 최소 연령 이하의 노동

- ①최소연령이하 노동인구 비율 ②18세이하 위험직군 및 산업종사자 비율 ③18세이하 초과근무 근로자 비율 등

(1-3) 고용의 공정성

- ①여성, 소수민족, 이민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 비율 등

차원B. 수입 및 복지혜택

- 수입은 물론 근로자가 제공받은 비임금 혜택도 포괄하는 지표
- 보수와 휴가, 건강보험, 기타 복지혜택 등의 유형

(2-1) 임금(수입)

- ①주당 임금(수입) ②저임금 근로자 비율 ③임금 분포 등

(2-2) 비임금 금전적 보상

- ①유급휴가 사용근로자 비율 ②유급휴가 일수 ③병가 사용 근로자 비율 ④부가적인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 비율 등

차원C. 근로시간과 근로의 균형성

- 일하는 시간, 유연근무 가능 여부 등 일과 생활의 균형정도 측정지표
- 자발·비자발적 근로시간 및 주야간 근무 유형 등 포함

(3-1) 근로시간

①연간 근로시간 ②주당 49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③비자발적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④부업근로자 비율 등

(3-2) 근로시간 조정 및 유연성

①평소 저녁 또는 밤근무만 하는 근로자 비율 ②평소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 ③탄력근무자 비율 등

(3-3) 근로의 균형성

①여성 근로자(20~49세)중 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 비율 ②근무지 까지 평균 통근시간 등

차원D. 고용보장과 사회적 보호

- 고용보장은 재직기간, 연속성 등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측정지표
- 사회적보호는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안전망 관련 측정지표

(4-1) 고용보장

①25세이상 임시직 근로자 비율 ②25세이상 정년보장된 임금근로자 비율 ③자영업자 비율 등

(4-2) 사회적 보호

①실업보험 수혜자 비율 ②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사회보장지출 비율 ③ 주당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 비율 등

차원E. 사회적 대화

- 노동조합 구성, 임금교섭 권리 등 근로자 자유 정도와 고용주 및 정부 기관간 사회적 대화 참여정도 측정지표

(5-1) 노사관계 등

①임금단체교섭으로 보호받는 근로자 비율 ②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인한 휴업일수 등

차원F. 기술개발 및 훈련

-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일에 대한 능력정도 등 측정지표
*교육훈련 결과 업무반영 여부 등도 포괄검토 필요

(6-1) 기술개발 및 평생학습

- ①숙련직종 근로자 비율 ②1년내 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 비율
③요구되는 기준보다 고학력자, 저학력자 비율 등

차원G. 직장내 유대관계와 직무동기

- 일에 대한 근로자의 사회적 특징과 개인의 동기적 특성 측정지표
· (유대관계) 직장내 상사와의 소통 및 동료와의 대화 정도
· (직무동기) 직장에서의 가치, 목표, 자율성, 피드백 등 동기요소

(7-1) 직장유대관계

- ①직장동료와 강한 유대관계를 느끼는 근로자 비율 ②상사와 강한 유대관계를 느끼는 근로자 비율 ③직장에서 처벌 또는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비율 등

(7-2) 직무동기

- ①작업순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 비율 ②상사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 ③일에 만족을 느끼는 근로자 비율 등

□ 지표(안) 활용

- 고용의 질에 관한 전반적인 모습 파악
- 고용률, 실업률 등 양적지표의 설명확대와 병행분석 가능
*경기 하락 및 상승시 일자리의 양과 질적구조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상황과 정책적 대응모색 가능
- ※ 각 국가는 차원별 구성지표의 정확성, 개념정의, 자료원 발굴은 물론 양적지표와 병행 검토 등 세부지표 체계화 노력필요

□ 우리청의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구성지표(안) 선정 : '10.상반기
- 자료원 수집 및 시산 : '10.하반기
 - 구성지표별 활용 가능한 원자료 수집 및 시산
 - 신규조사항목 발굴 및 보완계획 수립 등
- 구성지표별 시산 범위 확대 : '11년~

[No. 9] Comments on Measurement of quality employment

1. Do you find the Report's basic approach to the statistical measurement of quality employment relevant and comprehensive in general and in the case of your country, concerning a) underlying concept b) coverage c) relevance for statistics at the national level.

Statistics Korea strongly agrees with the suggestion on developing quality indicators for employment, which has been relatively less well developed compared with the quantitative indicators.

- The approach is based on the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employment safety, employment benefits, continuity of employment, and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 and is considered to be a comprehensive method toward a quality indicator.
- Most of the indicators on various dimens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rresponding statistics in Korea for labor and employment and also they are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data in Korea.

2. How well, in your opinion, the proposed seven dimensions outline/reflect the quality of employment?

Each of the Indicators for the seven dimensions seems to represent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employment quality quite well.

- Most indicators seem to be adequate for the considerations whether every nation will be able to measure the indicators by using objective and practically implementable methods.
- Considering the fact that objective method alone will have limitations to measure the quality of employment, additional discussions are necessary to define the subjective indicators that will help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possible.

3. *Does the main set of proposed indicators populate adequately the dimensions /sub-dimensions? Do you have any suggestions for adding/removing/reallocating indicators under specific dimension (in general, not at metadata level)?*

We consider the allocations of the seven dimensions are appropriate. However, we propose some of the 60 detailed indicators be adjusted to improve the measurability and to enhance the practicality.

- (from dimension 1) Since most countries prohibit child labor by law, there are questions on whether attempts to measure such labor are practical in most countries. The indicators can either be removed from the list or be rearranged as a sub category.
- (from dimension 7) The ‘workplace relationships’ and the ‘work motivation’ are feelings and any measurements of them will naturally tend to be subjective. Further development of objective methods based on statistical estimations is necessary.

Data sources must be defined for each dimension or for each indicator.

- Data sources for each indicator require descriptions on the coverage and limits of the source when comparing data results among countries.

4. *For implementation; what are, in your opinion, potenti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using the suggested approach to measure quality of employment?*

Employment conditions that are sensitive to economic changes are mainly measured by using the quantitative indicators of employment such as employment-population ratio or unemployment rate. But these quantitative indicators do not give us a whole picture of what is going

on in the labor market and working conditions.

The proposed quality indicators will help evaluate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the positions that were created through a government job creation policy* to promote employment.

* A policy to create jobs such as short term jobs with high quality, jobs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 jobs for the vulnerable.

- However, the use of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employment quality should be performed with discretion especially when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or for interpreting the indicators.

5. Is there any interest or plans in providing statistics on quality of employment in your country?

Since 2010, Statistics Korea has started to develop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o calculate them." The plan was set up as part of the Korean economic policy to "Create new jobs."

- In 2010, studies are underway to review the relevant researches done by other countries, and to establish the framework of the indicator sets.

- In 2011 and beyond, more indicators will be adopted and tested, and the availability of new data will be improved through surveys or by other methods.

특별세션: 공간통계(Spatial Statistics)

논의 배경

- ◇ 상세한 지역 및 공간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참조(Geo-reference)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간코드(spatial code)는 개인, 가구, 기업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기본 단위로 인식됨
- ◇ 각 국 통계청은 다양한 지리공간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
 - ※ UNECE는 Eurostat 주관으로 유럽지역 공간정보 분석을 위해 격자(grid) 방식을 기초로 하는 GEOSTAT 프로젝트 추진('10~, European Forum for Geostatistics, The European GridClub)

□ (세부주제 1) 공식통계에서 통계그리드(statistical grid)* 활용

- 통계그리드는 통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작은 소규모 단위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구역 중심 데이터 서비스와는 달리 데이터 분석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계그리드는 일정 간격(예. 1km², 2km²)을 기준으로 구역화하는 방법으로, 행정 구역을 넘어선 자연 상태의 인구·주거·사업체 등의 분포와 성향을 분석하는 데 용이

- 동 세션은 각 국 통계청의 통계그리드 활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행정 구역 중심의 전통적인 통계 제공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사례 발표 : 핀란드, 미국, 슬로베니아

□ (세부주제 2) 공간분석 : 지리정보와 통계와의 결합 및 공표 개선

- 동 세션은 상이한 지역(대도시, 농촌 등)에 적용한 공간통계 활용 사례를 통해 정보의 부가가치, 공표의 개선, 접근성 강화 등 논의

※ 사례 발표 : 이스라엘, 스웨덴, 네덜란드, 멕시코

- 데이터 수집 시 공간분석을 적용할 때 발생할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논문 11 핀란드

□ 제목 :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grid data since the 1970 Census in Finland

□ 논문 주요내용

- 1970년도 센서스부터 모든 건축물을 좌표로 나타내는 그리드 방식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코드화된 등록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그리드 기반 통계 제공에 유리
 - 행정구역 단위가 갖는 잦은 변동, 지역 및 국가 간 비교가능성 결핍 등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또한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코드화된 등록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그리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핀란드 통계청은 통계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1km² 단위와 250m² 단위 두 가지 그리드를 유지하고 있음
- 그리드데이터를 이용, 5년에 한 번씩 지역과 도시주거지 형태를 현행화 하며 동 데이터는 규격화된 상품으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
- 인구밀도가 낮아 그리드데이터 활용 시 기밀유지의 한계 발생. 이를 위해 Local Restricted Imputation 방식 및 자료공표 가이드라인 활용
- 그리드 활용시,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물 및 인구 등록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 및 주기적 확인작업 실시
- 과거에는 주로 학계, 연구소(특히, 환경연구소) 등이 주이용자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체의 마케팅 자료로 널리 활용됨
- 행정자료 기반의 그리드통계 작성체계 구축

- 1987년 개인, 기업, 건축물 및 세대에 대한 코드 부여 완료
- 행정자료 기반 통계시스템에서는 건물번호, 거처번호, 기업체/사업체 고유번호, 주소 등이 그리드 통계 작성의 기반을 이룸

○ GEOSTAT⁴⁾ 프로젝트에 참여

- 핀란드의 경험을 다른 EU 국가들과 공유

○ 도전 과제

- 그리드데이터는 영토와 관련된 통계 및 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는데 유용하며 행정구역으로만 고정된 영역을 벗어나 유연하게 공간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데 용이함
- 행정구역 등 사용자에게 친숙한 구역 수준으로 집계할 필요성이 있음
- 희소데이터에 관한 명확한 공개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그리드데이터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및 국경지역의 데이터 표현을 위한 국제적 기준 및 연구 필요. 특히, 그리드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및 활용, 오차 해결방안, 엄격한 공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함

□ 검토의견

○ 그리드 적용에 대한 우리 청의 입장

- 우리 청도 '메쉬통계'라는 명칭으로 그리드 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데이터 처리의 어려움으로 집계구 단위 서비스로 전환
- 우리 청의 공간통계 데이터는 개별 포인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리드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임
- 그리드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해서는 그리드 확정 이외에도 통계상의 비밀보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사각형 구조의 그리드 통계는 사회, 경제생활 권역과의 차이가 존재

4) GEOSTAT은 UNECE에서 소프트웨어의 공유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ESSnet프로젝트의 공간정보 관련 하위 프로젝트

하므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구역(조사구)을 묶어서 소지역 통계를 작성하여 서비스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Grid statistics in Kostat

- Kostat tried to implement grid statistics as the name of "mesh statistics" in 1990s. But the data processing was a big burden to provide mesh statistics as service, Kostat converted mesh statistics to enumeration district based services.
- The geo-statistical data in Kostat have the form of individual points, and with this reason, it has flexible to be used in various form including grid statistics.
- The scheme of protection of statistical secret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grid areas has to be considered.
- The grid system which has rectangular structures, differs to social and economical living area. So the service system which provides small-area statistics by aggregation of basic districts(enumeration areas) was adopted

논문 12 미국

- 제목 : Combining variable spatial data with grids to improve data visualization
- 논문 주요내용
 - 공간통계와 그리드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
 - 사례를 이용하여 공간통계와 그리드 통계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사용상의 이점 및 단점에 대하여 기술
 - <사례>
 - 그리드 통계로서 아이티의 인구분석
 - 공간통계로서 미국의 농업통계
 - 공간데이터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
 - 공간통계데이터 : 일정 면적에 대한 연속적인 변화와 관련된 관측
 - 포인트 패턴 데이터 : 개별 위치에 기반을 둔 자료 값
 - 그리드 데이터 : 일정한 격자 상의 자료 값
 - 공간통계 Spatial Statistics = Geostatistics
 -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 값의 위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와 구분됨
 - 공간통계가 답하고자 하는 기본적 질문
 - 데이터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 데이터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패턴(규칙성)은 무엇인가?
 - 군집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 데이터 또는 군집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그리드 통계
 - 특정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같은 크기를 가진 공간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함
 - 하나의 통계값이 둘 이상의 그리드 셀에 존재할 수는 없음

- 공간데이터와 그리드 통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간데이터는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며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을 가짐
 - 공간정보를 나타내는 데는 공간좌표만으로 충분하지 못함
 - 공간통계의 획득, 관리 및 사용 측면에서 그리드는 센서스 블록에 비해 가용성이 떨어지며, 복잡성이 늘어남.

- 미국 센서스국의 Geographic framework
 - 미국 센서스국은 센서스 블록 수준으로 지리정보를 유지함 (센서스 블록은 행정구역 경계나 도로 등으로 구분)
 - 센서스 블록은 법, 통계, 행정목적 등 3가지 유형이 있음

- 향상된 시각화와 분석 - 사례연구
 - 미국 센서스국의 인구통계과가 아이티의 인구분석을 실시
 - 센서스데이터와 위성영상을 활용, 100m×100m 그리드에 인구를 표시함
 - 1992년 농업지도는 그리드와 행정구역 지도를 조합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위치표시를 위하여 점묘도(dot-distribution map)를 활용

□ 검토의견

- 우리 청의 공간정보 체계와 유사
 - 우리 청도 센서스 블록과 유사한 기초단위구 및 집계구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시계열적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그리드 통계의 작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in Census Bureau is similar to ours.
 -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in Kostat consists of basic unit districts and enumeration districts like census blocks.
 - Kostat needs reconsiderations of establishment of grid statistics in terms of temporal comparability.

논문 13 슬로베니아

- 제목 : Establishing a national hierarchical grid in Slovenia lessons and learned and future challenges
- 논문 주요내용
 - 2008년 오스트리아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한 개발한 슬로베니아의 GIS, 특히 행정자료를 활용한 그리드 통계에 대한 실적을 소개함
 -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그리드 형태로 집계함
 - 행정구역 기반 데이터(1971, 1981 및 1991년 센서스)와 개별 데이터 기반 데이터(2002년 센서스) 및 행정자료 기반 데이터를 수록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슬로베니아의 국가 그리드 계층체계 확립
 - 100m, 200m, 500m, 1,000m, 2,500m, 5,000m 및 10,000m의 7개 계층
 - 그리드 원점 및 그 명명법에 대한 정의 등 체계 확립
 - 슬로베니아 통계청이 활용하는 행정자료
 - 인구(Central population register), 사업체 자료(Business register), 세금 자료(Tax Register), 고용자료(Statistical register of employment)
 - 가까운 시일 내에 가구 및 부동산 자료의 활용이 계획됨.
 - 그리드 통계의 통계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국제적 표준이 없어 자체적인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 국가 간 비교 및 통계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이 필요함
- 검토의견
 -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공간통계자료 제공
 -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우리 청 공간통계 서비스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이 있음
 - 그리드통계에 대한 국제표준의 정립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Provision of geo-statistical information from diverse data sources
 - This paper has some implications on the direction for the change of geo-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in Kostat in terms of utilizing register data (administrative data).
 - Kostat want to attend to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Grid Statistics.

논문 14 | 이스라엘

- 제목 : Measuring compactness of locality in Israel
- 논문 주요내용
 - 이스라엘 197개 지자체의 지역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 내무부의 위임을 받아 도시계획 및 개발권역 선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소개함
 - Compact/Sprawl 개념의 정립
 - 개발 및 자원분배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밀집도시 모형 개념의 구축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노력 중임
 - 밀집성(Compactness)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있음
 - 밀집성에는 다음 3가지 관점이 존재
 - Configuration : 크기, 모양, 퍼진 정도 등 기하학적 차원
 - 토지 또는 공간사용도 : 밀도 차원
 - 다양성, 토지이용 분포, 접근성 등 공간특성
 - 측정기준
 - 주민 2,000명을 기준으로 도시/농촌(농사와 관계없음)으로 구분
 - 법적, 행정적 규정에 따라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의회로 구분(2004기준)
 - 197지자체 = 112 유대지자체 + 72 아랍/드루즈 + 8 혼합
 - 193개 도시 + 4개 농촌 (인구기준)
 - (범위) 면적 : 1km² ~ 80km², 인구 : 1,291~733,329명
 - 토지이용 데이터는 2004년 내무부의 위탁을 받아 이스라엘 통계국 GIS 부서가 작성, 건물(2006년분)에 대한 업데이트 완료
 - 적용방법론
 - 밀집성의 3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선택된 반경, 건폐율 등 8개 지표의

선형조합(가중평균)

- 지표의 조합에 따라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음
- 197 지역을 군집으로 나누고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사용

□ 검토의견

○ GIS를 활용한 정책 사항의 검토

- 정책사항 검토에 GIS가 활용된 예로, 우리나라도 각 부서별로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통계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Analysis of policy issues using GIS

- This paper is taken as an example of using GIS in examination of policy issues. Kostat actively share our information for these examinations occurred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for the future, Kostat needs to improve our capabilities in this area to widen our roles in this area.

논문 15 스웨덴

- 제목 : Role of a spatial dimension in official statistics
- 논문 주요내용
 - 소지역 통계를 위한 2가지 도구에 대한 소개
 - NCVA(National Census for Visual Analytics) eXplorer
 - “Data from the map” 어플리케이션
 - NCVA eXplorer
 - 스웨덴의 Linköping 대학에서 개발한 플랫폼으로 OECD의 NCVA eXplorer와 유사함
 - 지도를 시작으로 하여 scatter plot, parallel coordinate, 변수와 값들 간의 쉬운 관계 묘사 등 다양한 통계시각화 기능을 갖춘
 -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을 위해 구축, 스웨덴 통계청의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통계 생산에 관해 지원
 - “Data from the map” 어플리케이션
 -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한 영역에 대한 정보의 생성 : 사용자가 정의한 영역 내의 포인트를 식별하고 정보를 가진 별개의 DB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집계, 집계 데이터를 엑셀 등 보고서로 변환하는 기능이며 이용하는 데이터양에 따라 유료로 사용 가능
 - 지도를 가진 PC 기반의 맵핑 소프트웨어인 MS MapPoint 상에서 구현, VisualBasic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라이선스당 300€)
 - 통계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250m×250m(도시) 및 1km×1km(농촌)단위의 그리드 DB 구성
 - 동 통계자료 결과를 엑셀 형태의 보고서로 출력
 - 스웨덴의 구축 내용
 - 290개 지자체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웹서비스를 담당하며, 각 지역 대학이 주로 이 연구를 함
 - eXplorer는 다음의 기능을 가짐
 - 배경지도로서 Google Map을 사용
 - GapMinder를 활용한 Time Animation

- open eXplorer wizard 기능 지원
- 추가적인 개발 수요
 - 상세한 배경정보의 표시
 -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데이터의 애니메이션 표시

□ 검토의견

- 구축비용에 대한 고려
 - 우리 청의 Open API와 비교하여 사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내재됨
- Consideration of implementation costs
 - This system has an advantage of easiness in using by the users than our Open API services, but it has the issue on the costs and dependencies of using commercial software.
- 서비스 일관성 및 통합
 - 290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스웨덴 전체의 공간통계 데이터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Service Consistency and Integration
 - Even though the systems are implemented by same software products, it needs to be considered if the service systems are implemented individually in 290 provinces, and how to provide the geo-statistical information for whole country in Sweden.
-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와의 비교
 - 호주 등에서 통계자료의 배포를 위하여 사용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 SuperSTAR 제품군과의 기능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 필요
- Comparison to the cases of other commercial software
 - Study on the usability and differences with other commercial software, such as SuperSTAR products for distributing statistical information in Australia.

논문 16 네덜란드

□ 제목 : Cartography, Google and neighborhood statistics

□ 논문 주요내용

- 네덜란드 통계청이 Google Map 및 Earth를 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그 이면의 검토내용,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임
- 지도의 역할 증대
 - 각국의 통계주관부처에서 지역통계의 배포수단으로서 활용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
 - 2001년부터 네덜란드 통계청은 지역통계의 배포 및 시각화 수단으로서 Neighbour in the picture(집계구)를 서비스하고, 2003년부터 온라인 통계 DB인 StatLine에 지도 관련 인터페이스를 포함함
 - 종전 벡터그래픽을 2010년부터 플래시 기반으로 변경(경계)
- 행정자료 활용 : 데이터
 - 2003~2004년의 통계법 개정으로 네덜란드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명시적이고 무료로 사용가능하게 됨
 - 행정자료의 활용으로 40종→100종 이상으로 항목이 증가되었으며, 2009년에는 편의시설 근접성 서비스를 개발 중임
 - 집계구 통계의 공표주기도 2년→연간으로 단축함
- 행정자료 활용 : 지리정보
 - 2004년부터 행정자료(지리기본파일 및 국가도로파일)와 비교 검토함
 - 집계구에 대해서도 주소 및 경계 각각 약 1%가 변경,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통계와 지도제작
 - 네덜란드 통계청은 집계구 통계를 표시하기 위한 현대적인 영상 기반 지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MS Virtual Earth, Google Earth, World Wind(NASA) 등을 검토하여 Google Earth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음
 - 데이터와 경계는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공개 표준으로 채택한 KML(Keyhole Markup Language)로 기술함

○ 향후의 전망

- Google Earth는 통계변수의 표시에 컬러와 3D 모형이라는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Google Earth 레이어에 움직이는 통계를 추가
- Google Earth에 대한 의존성 해소를 위한 비상업적 대안의 개발이 정부 내에서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방향 재설정이 필요함

□ 검토의견

○ Google Earth 및 Map의 활용

- 한국의 경우 Google Earth가 제공하는 영상은 (도시화지역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해상도에 큰 차이가 있어 활용에 제한이 있음. 네덜란드 통계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가 Google Earth에 대한 의존성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대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음

○ The utilization of Google Earth and Maps

- In Korea, the images provided by Google Earth are different in resolution by the area. And this is the restriction to utilization for Kostat. We need to check how Statistics Netherlands has overcome this kind of problem.
- Kostat needs more concrete information about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 dependencies on Google Earth in Netherlands government.

○ 공간통계자료 시각화의 개선

- 네덜란드 통계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벡터 그래픽에서 플래시로 전환 중이며 우리 청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음

○ Improvement of Visualization

- Statistics Netherlands has converted vector graphics on the maps to flash in web services, and Kostat is now trying to convert like this for improving user interfaces.

논문 17 | 멕시코

- 제목 : The role of the spatial dimension in official statistics in Mexico
- 논문 주요내용
 - 정책결정 지원의 예
 - 멕시코 에너지부의 대체에너지(태양) 전력공급 프로젝트에 통계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지원함
 - 가난한 농촌 공동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찾는데 GIS를 활용
 - 고도 빈곤 지자체
 - 40% 이상의 토착언어 사용자가 있는 지역
 -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 10% 미만의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만 공동체 중 위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763개임
 - 이 763개의 반경 10km 이내의 공동체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최종적으로 15,910 공동체를 선정
- 검토의견
 - 공간통계정보의 활용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의 다양화 추구
 - 우리 청은 외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2008년 61건, 2009년 137건의 공간통계자료를 공유,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공공 및 민간 분야)
 - Towards diverse policy making suppor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geo-statistical information
 - Kostat has shared geo-statistical information by the requests from users both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shared information has utilized in policy making, service providing and various analysis. There are 61 cases in 2008 and 137 cases in 2009, and this will be increased for the future.

의제 20 : 소규모 경제의 시의성 딜레마

주요 논점

- ◇ 재정위기와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공식 통계의 소통과 시의성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 공식통계시스템의 시의적 전달에 어려움이 따르는 급변기의 경우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배경

- 국가통계시스템은 공식통계에 관한 인지도 확산 및 최대 활용, 변화에 대한 민첩한 응답 능력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세계 경제 위기는 2008년 경상수지 적자, 수입 감소,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등 뉴질랜드 경제에 영향을 줌.
-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통계 사용자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규모 개방경제 시스템 내 통계시스템에 시의성 확보의 어려움을 진단함.

□ 시의성 증진 및 품질/시의성 딜레마

- 뉴질랜드 통계는 4분기로 생산되며 이 주기를 앞당기기 보다는 배포 날짜에 앞선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QGDP 사전평가 없이 QGDP 편집에 필요한 산업경제지수를 최대한 빨리 제공함.
- 분석, 배포, 데이터수집 과정에서의 효율성 증진시켜 전산카드처리, 제조업 경제조사, 배포 주기 등에서 시의성이 증진됨.

- 세금기록은 공급에 있어 데이터 품질과 시의성 양쪽에 현재 극복해야 할 어려움에 직면해 실험적 시리즈를 생산했지만 품질 문제로 사용을 중단함. 세금 데이터는 연별 수집에서 조사기록을 교체하는데 쓰이고 따라서 응답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됨.
- 사용자 커뮤니티는 뉴질랜드 통계청의 시의성 확보 정의와 실행에 있어 통계품질 유지를 기대하며 경제 수행 평가 혹은 예측에 있어서 방법론 및 절차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원함.

□ 결론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적시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거나 변화가 심한 경제구조에서 통계를 더 자주 생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변화가 잦은 경제구조를 가진 뉴질랜드의 경험으로부터 주요경제통계의 시의성과 주기를 향상시키기 전에 품질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도출.
- 뉴질랜드는 시의성/품질 딜레마 해결책의 초점을 4분기 데이터의 시의성 향상, 더 견고하고 교정에 영향을 덜 받도록, 더 광범위의 인구에 적용이 되어 이용자가 이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행정데이터 제공으로 시의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맞춤.
-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비용문제 및 사용자 커뮤니티와의 소통 및 시의적 관계도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의제 21 : 루마니아 공식통계의 관점으로 본 경제 재정위기

주요 논점

- ◇ 통계인프라 및 통계분야의 잠재격차에 대한 진단을 위해 루마니아 통계청(INS)은 데이터 시스템 증진 등의 활동을 제안함.
- ◇ 경제위기 및 외부 재정지원 분석을 통해 루마니아통계청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논의

□ 개요

- 다년간의 과잉 가속화(over acceleration)와 지속 불가능성 불균형은 다양한 차원에서 루마니아 경제를 위기에 노출시킴. 높은 경상수지적자 등 자본 조달 및 금융제도에 위기로 외부지원요청을 결정.
- 2009년 EU 위원회는 IMF, 세계은행, EBRD과 연계된 자금지원을 결정. 지원은 연계성 있는 경제정책 실행, 재정건전화, 공공행정의 재건 등을 조건으로 수반함.
- 루마니아가 직면했던 위기의 영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공식통계가 인식되었고, 국가 및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타격의 원인과 영향분석 필요성이 강조됨.

□ 루마니아 통계청(INS)의 성과

- 위기의 원인과 추이를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 이론적 기반으로 토대로 정책결정자의 정확한 결정의 계획과 이행을 지원함.
- 세계위기의 통계적 의미와 관련된 IMF 및 OECD 수용 활동계획 분석
- 정부 반위기(anti-crisis)프로그램의 부속물로서 월별 물가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 분야별 주요 거시 경제적 변수편성, 빈곤관련 다차원적 정의개발, 사회조사 재구성에 대한 분석 글로벌 프로그램을 작성함.

- INS 청장은 글로벌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수평적 통계그룹을 창설.
 - 반위기 대책 작성관련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증진
 -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가능 데이터에 관한 인식 확대 등 소통증진 및 주요통계의 비교성 확보, 프로그램 실행 관리

□ 루마니아 통계의 활동계획 및 책임업무

- 단기간의 계획으로서는 타 통계국과의 연계업무를 정리하도록 위기 과제의 문서화, 관련 데이터 출간 및 소통강화 등을 통한 위기단계 인식이 진행 중임.
- 중기간 계획으로서는 방법론적 개발, 새로운 조사 시행, 이론적 접근 등을 포함함.
 - 재정위기가 실재경제에 미친 영향이 전통적 공식통계에서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단기경제통계, 4분기 GDP, 고용통계 등에 중점을 둠.
- 서비스는 더 많은 통계의 공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통계 보급 강화가 필수적임.
 - 가계의 처분가능 넷조정 수입 및 정부서비스의 정확 측정, INS 수행 표본조사에서의 “주관적 복지”강조 등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 환경통계 향상, 인적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통계조사 개발,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지수에 관한 새로운 조사 개발 필요.
 - 교육과 보건측정에 관한 북클릿과 같은 특정 보급 이니셔티브의 개발 및 시행, 가계채무 분포 및 지속가능 복지 등에 관한 통계 데이터의 투명한 보급 필요.
- 글로벌 계획은 채무과약에 어려움을 주는 열악한 통계정보, 시의성, 그리고 위기 시 결과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향상된 마이크로데이터로의 액세스 등의 통계생산 과제를 다룸.

의제 22 : 사회변화와 사회통계업무 모니터링: 네덜란드 내의 개발과정

주요 논점

- ◇ 네덜란드의 경험을 통한 사회통계의 범위확장 및 새 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 검토
- ◇ 위기에 의한 사회적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수요 진단

□ 네덜란드에서의 경제 재정 위기

- 네덜란드는 2008년 GDP 성장을 2.0%, 2009년 민간소비지출 2.4%, 예상 실업률 5.4% 등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음.
-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로 네덜란드 정부는 시간제 고용 정책, '기동성 센터' 설립, 재교육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제한 등의 정책시행.

□ 노동시장 통계의 부족: 세부사항과 역학관계

- 재정위기동안 예측에서 벗어나는 변동사항들은 노동력조사(LFS)에 청년, 자영업자, 노동이민 관련 통계 등 더 세부적인 수치 및 광범위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반영함.
- 전통적인 정적 방식의 통계분석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감지한 네덜란드 통계청은 노동력 시장에 대한 역학적인 실시간 데이터 수요를 피력.

□ 사회통계 전통적 범위의 확장

- 현재경제상황과 삶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간의 격차는 신뢰도, 범죄 방지, 주관적 복지 등에 관한 주제의 체계적이고 빈번한 정보 제공은 점차 더 중요해짐을 반영함.
- 네덜란드의 가구조사는 기술화된 조사방법을 최적화시킨 시행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보고 가구의 경제 사회 상황을 모니터 하는 관련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될 것임.
- 광범위하며 적응성 있는 조사 데이터 수집 인프라는 경제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미래의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열쇠가 될 것임.

□ 결론

- 네덜란드 통계청은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개인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현재 사회통계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선택함.
- 통계국의 제도적 응답은 단기의 혹은 시의적인 전통적 사회경제 데이터 제공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적응성 있는 인프라로 미래 사회통계를 준비해야 함.

의제 23: 재정위기로 도출된 사회통계 분야에서의 사안들

주요 논점

- ◇ 2008년 경제위기 후 대두된 사용자를 위한 향상된 통계 활동의 필요성 및 대책 정리

□ 개요

- 재정위기에 대처해 EU는 노동시장, 수입지원, 재정위기의 직접타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와 보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측정
- 위기시기에 통계는 사전경고시스템 제공 및 사후 결과 모니터링, 위기에 대한 정책 답변 평가, 출구전략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위기 후 빠른 대응력, 시의적 연별통계제공 및 구조적 데이터를 통한 위기영향 분석 등에 대한 필요성 대두.

□ 현 단계

- 사전 수립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 간의 데이터 수집 및 교류가 이루어지며 ESS 내 수집된 데이터 품질은 상당히 양호.
- 이용가능 데이터의 더 향상된 사용과 시의성, 정보격차감소, 유용성 등 모든 차원의 대응성 강화 필요

□ 향상대책의 개요

- 현장업무와 데이터처리 간 시간 단축을 위한 도구 개발, 적용가능한 양질의 사례를 다른 회원국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의성 확보에 일조.
- 통계 모듈 등의 통계관련 수요를 행정데이터 수집으로 통합
- 빈곤율 예측을 위해 EUROSTAT과 NSI는 EU-SILC 데이터생산을 시의성 향상을 논의.
- 정보 격차는 다양한 핵심 개념의 실행, 데이터 매칭, 데이터연계 바탕 마련 등의 방법으로 접근.
-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위기 시 주요 유동성을 파악을 위해 노동 시장을 분석할 데이터소스가 미약하며 방법론 연구 필요.
- 현재 긴급정책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메커니즘 보유를 위해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에 의해 개발된 인프라가 현재 시험 중임.

V 기 타

1. 기념품

○ 기념품 지급대상

- OECD 대표부 (2) : 허경욱 대사, 권해상 공사
- Eurostat (4) : 유럽통계처장(Mr. Waltar Radermacher) 외 3인

○ 기념품 지급계획(안)

지급대상	선물품명	수량	비고
▶ OECD 대표부			파리
- 대사 (허경욱)	넥타이	1 개	
- 공사 (권해상)	넥타이	1 개	
▶ Eurostat (유럽통계처)			룩셈부르크
- 유럽통계처장(Mr. Waltar Radermacher)	넥타이,액자	각1개	
- 국제협력국장(Mr. Pieter Everaers)	넥타이,액자	각1개	
- 국제협력과장(Ms. Maria João Santos)	지갑	1개	
- 실무자(Ms. Ann Nilsson)	지갑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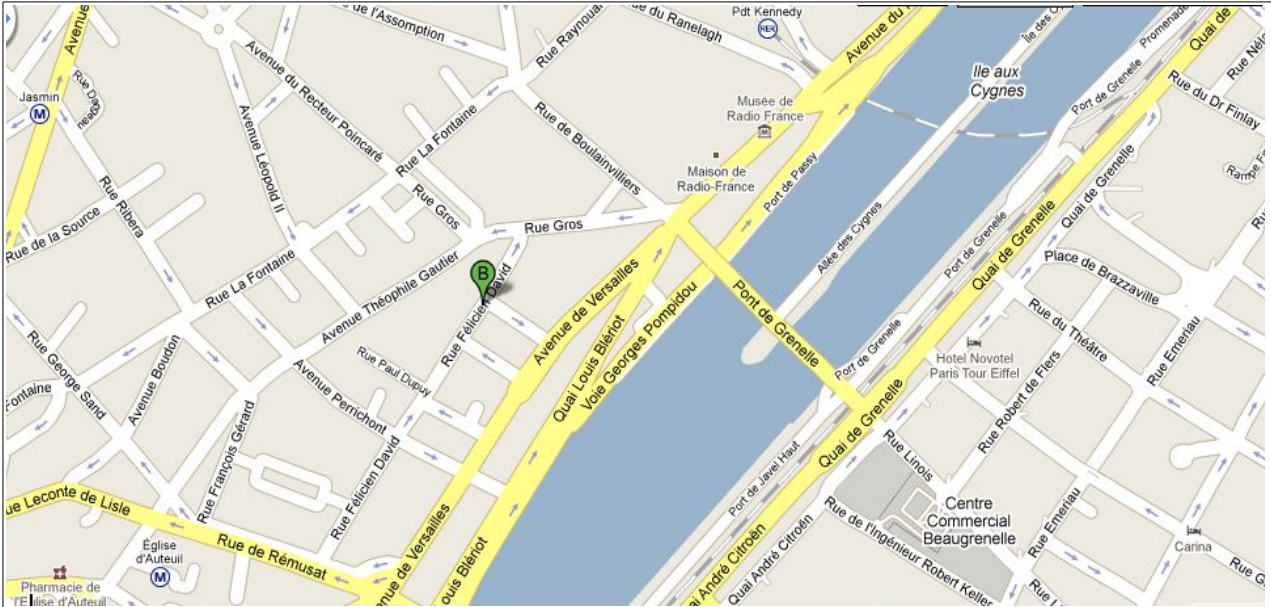
※ 긴급소요 대비 Kostat 기념품(손톱깎이, 탁상시계) 여분 준비

2. OECD 통계위원회(CSTAT) 의장단 명단 (2008.6 ~ 2010. 6)

구 분	국 가	성 명	사 진	비 고
의 장	호 주	Mr. Brian Pink		통계청장
부위원장	프랑스	Mr. Jean Philippe COTIS		통계청장
부위원장	미 국	Ms. Katherine Wallman		예산관리처 통계처장
의장단	한 국	Ms. InSill YI		통계청장
	영 국	Ms. Jill Matheson		통계청장
	핀란드	Ms. Heli Jeskanen Sundstrom		통계국장
	터 키	Mr. A Omer Toprak		통계청장
	네덜란드	Mr. Gosse van der Veen		통계국장

3. 약 도

<호텔: Hotel Auteuil Tour Eiffel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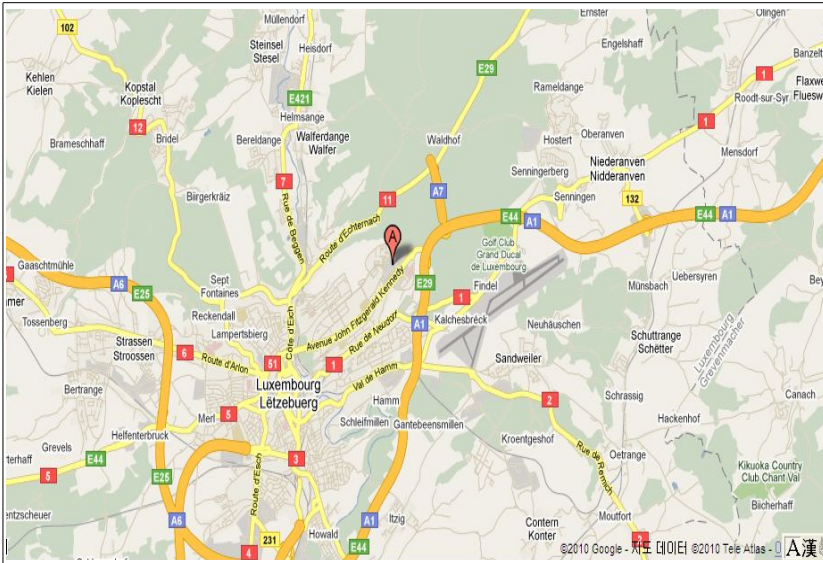
- ▶ 주소 : 8/10 Rue Felicien David 75016 PARIS
- ▶ 전화 : 33 - 1 -4050 - 5757

<주 OECD 대표부 및 OECD 약도>



- ▶ 주 OECD대표부 주소 : 4, Place de la Porte de Passy 75016 Paris, France
- ▶ 주 OECD대표부전화 : 33 - 1 -4405 - 2050

<EUROSTAT 약도>



- ▶ 주소 : Joseph Bech Building, 5 Rue Alphonse Weicker, L-2721 Luxembourg
- ▶ 전화 : 33 - 1 - 4405 - 2050

4. 주요 연락처 및 명함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주OECD대표부	대사	허경욱	+33-1-4405-2050	kor.oecd1@mofat.go.kr
	공사	권해상	+33-1-4405-2051	paris-kwon@hanmail.net
	국장	서태중	+33-1-4405-2071	tjseo386@naver.com
	주재관	서원석	+33-1-4405-2060 +33-6-1320-8245	한은차장 sws@bok.or.kr
주프랑스대사관	대사	허경욱	+33-1-4753-0101	
	대사관	사건사고계	+33-1-4753-6995	
OECD통계국	통계국장	Martin Durand	+33-1-4524-8707	
	등록담당	Karen Blaise	+33-1-4430-6249	karen.blaise@oecd.org
	팀 장	홍은표	+33-1-4524-7563	Eun-pyo.Hong@oecd.org 노동통계 및 비교지표
	한은과견관	이동원	+33-1-4524-8568	DongWon.Lee@oecd.org 통계국 국민계정과
EUROSTAT	통계처장	Waltar Radermacher		
	국제과장	Pieter Everaers		
PARIS 21	Logistics	Jenny Gallelli	+33-1-4524-9051	jenny.gallelli@oecd.org
UNECE	의제관련	Tiina Luige	-	Tiina.Luige@unece.org
대표단(한국은행)	지출국민속독팀장	최덕재	011-585-4598	
대한항공	대전GTR	함옥란	+82-42-323-0023	
인천공항	의전담당	-	+82-32-741-2412~3	
통계청 당직실	-	-	+82-42-481-2151	
기획조정관	국장	문창용	+82-42-481-2580 010-8710-1897	
	과장	백만기	+82-42-481-2584 010-8709-3650	
통계청 비서실	비서실장	이종호	+82-42-481-2103 011-237-1802	
	수행비서	나창엽	+82-42-481-2105 017-407-1801	
	운전기사	나재규	011-9812-1800	41호3736 (검정색 제네시스)